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

양천구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양천구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



발간사

유난히 길고 힘들게 느껴졌던 2020년은 코로나19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온라인 수업을 듣고 어른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시의 슬로건은 “따로, 함께하자(Together, Apart)”라고 합니다. 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몸은 따로, 마음은 함께하는 연대의 시간이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연대를 계속해왔던 우리 양천구 마을공동체는 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1년 동안 마을공동체와 함께한 이들의 소중한 마음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는 그 위대한 여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어린이부터 노년층, 장애인 및 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채로운 특화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한층 성숙된 마을공동체를 보여줬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서로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한 끝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사회적 연결은 이어가는 ‘힘내라 양천!’, ‘위 캔 두!’, ‘괜찮아! 잘 될거야!’ 등의 마을응원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참여한 많은 주민들은 서로를 위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에게 식료품을 직접 전달하는 상호부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양한 매체에서 양천구 마을공동체를 취재, 보도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양천구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 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라서 행복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모든 주민모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마을로 거듭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양천구청장 김수영



발간사 2

성장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마을과 만나다

이웃만들기 10
시시콜콜 마을탐험대 133
마을나들이 141
제자리마을운동회 151

양천은 마을로, 마을은 양천으로

우리마을지원사업 162

마을을 만들다

생생마을터 264
들樂날樂 280

함께라서 행복한 양천구 마을공동체

양천구 마을공동체 with 코로나 - 나눔, 배려 그리고 희망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힘내라 양천! 293
코로나 극복 공동체백신나눔 수기공모 294
마을공동체 행복밥상 꾸러미 뉴(New) 달(Delivery) 공모사업 295

너와 나의 마을응원 캠페인

오하공! 298
괜찮아! 잘 될거야~! 299
위 캔 두! 300

힘내라! 마을 바캉스 302
마을살롱 303
아~아~이장입니다! 304

코로나19 속에서도 양천구 마을공동체는 자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어렵지 않아요!

공모사업 설명회 307
선정모임 워크숍 '반가워요~ 마을!' 308

마을로 한 걸음 더

마을아카데미 310
실무교육 312
1번 모여라 313
예비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314

마을을 잇다

마을주간 316
마을공동체 한마당 318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해피투게더> -성장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야기 321

축하해요! 양천구 마을공동체

서울마을상 수상 326
행복동지 이야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 327

마을느티나무들의 몽클 릴레이

마을사업지기 330
마을지원활동가 333
마을기록지원단 334
주민협치과 마을공동체팀 334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335





성장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 ◆ 마을과 만나다
- ◆ 양천은 마을로, 마을은 양천으로
- ◆ 마을을 만든다



◆ 마을과 만나다 ◆

이웃만들기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 뜨개사랑 / 일상의 취미생활을 통한 이웃 간 교류 /
깨끗하고 쾌적한 목4동 만들기 - 3GO 운동 캠페인 / 맹모힐링지교 / 모여라~ 이웃들! /
목사랑 반찬 나누미 / 마음을 나누는, 토닥토닥 힐링바스질 / '수요밥상' 지역주민과의 소통 Day /
힘내라엄마들! / 배움+나눔+해소 우쿨렐레 마을 / 신4족 / 새로운 이웃과 함께! / 신월5동 친구와 이웃만들기 /
해오름 마을공방 / 달맞이체조 / 따송이(따뜻한 송편으로 이웃만들기) / 꽃향기 나는 마을친구 /
나를 찾아가는 에세이 / 사진으로 소통하기 / 소소한 일상 나누기 / 시니어들의 건강한 행보 / 공감대를 통한 이웃만들기 /
풀고 잇고 품고 / 나눔을 통한 행복전하기 / 다문화가정과 함께 공생 공영의 삶 /
모이고! 나누고! 친해지고! / 우리 함께 할까요

시시콜콜 마을탐험대

드림틴 "꿈꾸는 10대들의 마을 탐험" / 보이즈(The boys)

마을나들이

보라그림 / 모이자 전래놀이

제자리마을운동회

신나는 업다운 / 몸과 마음을 스마트하게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함께같이78
주요활동	1. 알쏭달쏭 아이스브레이크 2. 마을 꿈을 꾸다
활동지역	목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2018년 '같이살림 프로젝트' 진행 후 이웃 간 소통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자발적으로 주민 소모임이 만들어졌다.

'알쏭달쏭 아이스브레이크' 활동으로 매실청, 디퓨저를 함께 만들며 이웃 간 소통 및 친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얼굴은 알고 있으나 소통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 꿈을 꾸다' 활동으로 모기퇴치제 만들기 및 함께 차리는 밥상 모임을 가지며 활동하였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 한마당' 마을주간에는 '장미어린이공원'에서 우리 모임 활동을 홍보하고 함께 만든 약초추장 나눔을 진행하였다.

주민 간의 소통, 공감에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주민과 나눔 및 함께 만드는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의 소통, 공감,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로 이웃 간의 교류가 적고,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인식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활동을 통해 이웃 간 교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관련 인식 제고 및 향후 사업에도 참여할 동기를 갖게 되었다. 우리 활동을 통해 3명만 모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직접 참여하며, 장·노년층 역시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과 아파트에서도 '이웃 간의 정'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웃과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차츰 마을공동체를 느끼고 알아간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디퓨저 만들기

일시

2020년 7월 29일(수)
10:00~12:00

장소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골목골 책방

아침부터 세차게 비가 내리는 7월의 어느 날, 목1동 현대아파트 뒤편에 있는 '골목골 책방'에서 60대 전후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장맛비에 오늘은 참석자가 적을 것이라는 고덕모 대표의 예상과 달리 평소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참석했는데요. 모두 11분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가장 젊은 회원은 약속 시간 10시 정각에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재료를 정리해서, 모으고, 무게도 달아보며, 어디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날은 디퓨저, 즉, 방향제를 같이 만드는 날입니다.

'골목골 책방'은 원래 외부인들을 위한 화장실로 사용된 곳입니다. 그 후 한동안 빈 건물로 불쌍사납게 있었는데요. 이곳을 마을공동체를 위한 장소로 바꿔보기로 주민들이 의기투합했고, 마침내 작년 초 회의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는 복층 구조의 예쁜 작은 공간으로 바뀌어놓았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흉물 화장실이 주민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골목골 책방'이 이날은 향기 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제각기 방향제를 동시에 만

들다 보니 책방은 순간적으로 향기가 가득했는데요. 향기에 취해 급기야 환기를 위해 문도 열었습니다. 장맛비는 계속 쏟아져 내리고, 향기와 함께 여름날의 운치 또한 더해집니다.

방향제 만들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붓고, 넣고, 섞고, 꽃고, 붙이면 끝입니다. 일회용 컵에 「디퓨저 베이스(수상)」를 저울로 달아 정확한 양을 붓고, 방향제 유리병 케이스로 옮긴 후, 노란색의 방향제 원액을 2~3방울 넣고, 잘 저어 섞으면 됩니다. 스틱을 꽃고, 이튿날 같은 표식물을 붙이면 벌써 완성품입니다.

그런데, 배합을 어떤 비율로 하느냐, 스틱을 몇 개 꽂느냐에 따라 방향제의 향은 달라집니다. 적은 양으로 은은한 느낌을 선호하는 회원도 있고, 조금은 강한 느낌을 좋아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마지막에 꽃는 스틱이 많을수록 향은 진해지는데요. 이날은 자신이 만든 방향제를 각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11명이 만든 이날 방향제는 개성만큼 달랐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기증을 위해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서 동일한 방향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함께같이78> 모임은 2018년도에 소모임 형태로 결성된 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모임으로 발전했는데요. 모임이 지향하는 소통의 방향은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날 모임에는 연령층이 다소 높은 회원 중심으로 참석했지만, 남성 회원도 상당수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회원 수가 현재 35명 정도인데, 이 중에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회원이 대부분인데요. 배성용 회원이 전해주는 말처럼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모범적인 공동체를 한 번 일궈보겠다.”라는 뜻이랍니다.

<함께같이78> 모임은 모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모임 장소에 부착하지 않고 아파트 입구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체 활동을 알리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함께같이78> 모임만이 아닌 많은 주민들과 같이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월 1회 정도 손 소독제, 모기퇴치제, 콩나물 재배 키트를 나눠주고 직접 만들어 보게끔 하면서, 결과물을 마을 밴드에 올리게 하는데요. 아이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제작물이 마을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 몸소 체험해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을 알고,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해까지는 웃음교실 등 작은 모임도 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요즈음은 모임 자체가 여의치 않아 어르신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로는 콩나물 키트로 콩나물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함께같이78> 모임은 하반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마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날 방향제를 같이 만들고 난 후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9월에는 상

황을 보아 야외에서 주민들과 함께 전을 부쳐 동네 주민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모임을 갖겠다고 합니다.

10월에는 양념 고추장, 유자청 만들기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함께같이78> 모임만의 행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행사를 열 때마다 주민들에게 가능한 많이 알리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이 방향제를 만들고 모두 돌아간 후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배성용 회원과 잠깐 마주했습니다. 배성용 회원은 <함께같이78> 모임이 소위 우리만의 만남으로 남고 싶지 않고,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공동체로 발전해나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만나서 참여하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의 모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회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장맛비는 그칠 줄 모르고, 조금 전까지 방향제를 만들던 ‘골목끝 책방’은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놓았지만,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원들이 남기고 간 인간의 향기가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향이 아파트 주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전해질 날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뜨개사랑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목2동 뜨개사랑
주요활동	1. 뜨개질 배우기 2. 꼼지락
활동지역	목2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통장 일을 하면서도 다른 주민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어 항상 아쉬웠다. 다른 통장님들, 주민들과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뜨개질 배우기’ 활동을 통해 뜨개질을 함께 배우며 함께 담소도 나누며 활동 소감을 공유하였다.

‘꼼지락’ 활동으로 우리가 배운 뜨개질을 가르쳐주며 주민들과 함께 뜨개질 활동을 하며 친목을 다지기로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기 어려웠던 힘든 시기에 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모여서 뜨개질을 배우고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물병 뜨개

일시
2020년 8월 14일(금)
10:00~12:00

장소
이너 가든(목2동)

8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목2동의 작은 공간 ‘이너 가든’에서 <뜨개사랑>팀의 ‘물병 뜨개’ 활동이 있었습니다.

<뜨개사랑>팀은 2020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에 선정된 팀으로 ‘뜨개질’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제안자 임영애씨는 작년부터 통장 일을 시작했는데 통장 일을 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어 항상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통장님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취미 생활도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자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을 알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뜨개질 잘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물병 뜨개’와 ‘가방 뜨개’를 배우면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수업 후에는 뜨개질에 대한 소감도 나눌 생각입니다. 모임 장소인 ‘이너 가든’은 반지하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아담한 공간인데 모임 시간이 가까워오자 실내는 뜨개질 선생님을 비롯하여 하나둘씩 인사하며 들어오는 멤버들로 금방 꽉 찼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자마자 친숙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어머 발톱에 봉숭아물 들었네!”, “봉숭아물 잘 안 들어지던데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잘 들었어?”, “이거 시중에



서 파는 봉숭아 가루로 물들인 거야.”
예쁘게 봉숭아물 들인 발을 보면서 정겹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춘기 소녀들 같습니다. 오늘 모인 멤버들은 좀 젊은 분도 계시고 그보다 연령이 좀 높은 분도 계셔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서로들 이미 가까

워진 듯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큰 의자를 빼고 작은 의자를 인원수에 맞춰놓느라 잠시 실내가 어수선했지만 이내 자리는 정돈되고 바로 뜨개질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준비해온 뜨개실과 코바늘을 꺼내들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을 잘 들으면서 한 코 한 코 뜨개질에 집중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물병 뜨개를 반쯤 떠오신 분도 계셨는데요. 대부분 초보라서 실 새 없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였고 선생님은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뜨개질을 거들기도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 바퀴 감아서 넣으세요.”, “여기서 잘못 뜨셨어요.”, “오른손으로 실 끝을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에 걸친 다음 그대로 검지에 감으세요.”

학생들은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따라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

“짧은뜨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지?” 궁금한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옆 사람은 직접 시범까지 보이면서 찬찬히 가르쳐줍니다. 마치 언니가 동생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흐뭇한 광경입니다.

뜨개질을 하면서 커피도 나누어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애기가 몇 살이라고 했지?”, “11살이요.”, “애기라고 해서 두 살인 줄 알았어.” “애기 엄마는 몇 살이야?”, “마흔이예요.”, “30대 초반으로 보여.”, “그래,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기특해 이런 거 한다는 게, 아들이 보고 잘 만들었대.”

“근데 손이 아파, 힘주고 하니까, 실이 뺏뺏해서.”, “눈도 아프고 어



깨도 아프고, 힘든 일이야.”,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도 뜨개질이 치매를 예방한대잖아, 손을 움직이니까.”

모두들 열심히 코바늘을 놀리면서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전체 코 수가 모자란다는 선생님 말씀에 “하나가 없어? 하나가 왜 빠졌을까?”, “코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농담을 던지고 그 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 물병 뜨개와 가방 뜨개가 서서히 완성되어갔습니다.

“잘 한다, 빠른데?”, “짧잖아.”

“언니는 진짜 선수네, 처음 하는데 저렇게 잘 하네, 진짜 잘하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소리가 오고가고 얼마 후 “여러분 완성입니다!” 하는 환호성과 함께 주황색 물병 뜨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청녹색 귀여운 가방도 완성되었어요.

“가방 다하셨네, 잘하셨네, 이쁘다.”

감탄과 칭찬이 연달아 나오면서 모두들 스스로가 대견한 듯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뜨개사랑>팀의 ‘사랑’은 ‘뜨개질’에 대한 관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알아가려 하고 서로 가까워지려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코바늘 하나하나에 녹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뜨개질을 통해 즐거움을 공유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앞으로로도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가 이어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봅니다.



일상의 취미 생활을 통한 이웃 간 교류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이웃 세대 간 공감의장
주요활동	1. 이웃 맺기, 주변 이웃과 겨울 꽃을 화분에 옮겨 심어 나누는 행사 2. 주변 독거노인분들께 돈육과 요리 방법을 함께 전달하는 행사
활동지역	목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 동네에는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끔씩 노인분들을 모시고 고기구이 파티를 하는 터라 더 많은 어르신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웃 간 서로 매일 지나치면서 서먹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인사 나누며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평소에 가졌던 생각으로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웃 간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겨울 꽃과 화분을 준비하여 정해진 날짜에 모일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가가호호 입구에 붙여 홍보하였다. 활동 당일 참여한 분들에게 다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두 명의 통장님의 도움으로 독거 어르신들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돈육과 요리 방법을 설명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이 활동을 함께한 동네 주민 몇몇 분들과 이웃집 마당에 모여 요리를 함께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함께하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깨끗하고 쾌적한 목4동 만들기-3Go 운동 캠페인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참좋은 사람들
주요활동	1. 양천구 목4동의 열악한 주변환경 개선사업 2.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동참 캠페인 3. 방치된 꽃 담장 등 재단장 사업
활동지역	목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양천구 목4동은 지저분한 주변 환경이 많아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보 고자 모이게 되었다.

코로나19로 더욱더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기도 했다. 그렇게 함께 방치된 꽃 담장 등을 재 단장하고 주변을 소독하며 깨끗한 목4동으로 건강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 마을공동 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활동하면서 지저분한 곳이 깨끗하게 탈바꿈되어 주민들도 좋아하셨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기도 하셨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리에 동참하시 겠다고 한다.

목4동은 깨끗하고 쾌적한 목4동이 될 거 같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우리모임 뽀뽀뽀: 손 소독제 만들기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17:00~19:00

장소

목4동 애플당당스튜디오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깨끗하고 쾌적한 목4동 만들기-3GO 운 동 캠페인>팀의 '우리모임 뽀뽀뽀: 손 소독제 만들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목4동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로 만들고자 모였다는데요. 주민들에게는 이른바 3GO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면서 함께하는 이웃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3GO 캠페인은 '안 버리고, 줍고, 분리 수거하고'를 기본으로 주민들이 주변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 해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점점 완연해지던 날, <깨끗하고 쾌적한 목4동 만들기-3GO 운동 캠페인> 멤버들은 그 전부터 마음 속에 두고 있던 일을 실천에 옮기고자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목4동 영도중학교 뒤쪽 담 이 예전부터 점점 어지럽혀져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오고가는 사람들의 눈에 별로 좋은 인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새 단장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죽은 식물들과 지저분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을 정리하고, 새 꽃을 심었습니다. 윗부분은 조화이 지만 크리스마스를 연상하는 꽃인 포인세티아를 장식했고, 아래 화단에는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화단 도 이참에 새로 칠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주민이 "누가 이렇게 예쁘게 해 놓았네."라면서 고맙

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주민도 이렇게 바뀌기 전의 모습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오후 저녁 시간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이현진 대표의 '애플당 당 스튜디오'에서 무언가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민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때라, 위생 관리가 중요하기에 손 소독제를 만들어 주변 주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먼저 큰 통에 담겨 있는 소독제를 붓기 쉽게 작은 용기로 옮기고, 조그만 스프레이 용기에 다시 담아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 일입니다. 이날은 우선 50개만 만들었는데요. 비록 적은 양의 손 소독제이지만 이것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위생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도 다수 참여해서 엄마의 손을 도왔다는데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든 손 소독제 50개가 금방 완성됐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손 소독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가져봅니다. 3GO 캠페인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날처럼 목4동 마을을 위한 이런저런 일에 애쓰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목4동의 이런 작은 움직임에 왠지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목4동을 가꿔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맹모힐링지교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아베크(AVEC)
주요활동	1.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제품 만들어서 건강 지키기 2. 재능 기부로 수학 등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의견 나누기
활동지역	목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선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응원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같은 초등학교에서 같은 중학교로 입학을 앞둔 아들 둘을 둔 여섯 집이 중, 고 6년 동안 봉사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을 접하면서 봉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분야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하였고 선정 후에 협약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모임,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했으니 다 잘된 거라 생각한다. ㅎㅎㅎ

정말 힐링이 되었다며 참여했던 모든 분의 만족도가 높았다. 모임 구성원들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아로마 제품을 사용하는 계기가 된 '마음채움', 수학 등 학습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대표제안자의 재능 기부로 하게 된 '수학, 넌 뭐니?', 양천구마을공동체 행사 등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신경 쓸 부분도 많아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대표제안자들을 포함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따라주고 호응해준 덕분에 '이웃만들기' 사업을 신청, 진행하게 된 사실이 참 뿌듯했다.

개인적으로 아로마 자격증도 따며 미래를 구상하게 된 시간도 되었고 구성원들과 다른 마을사업도 더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더 큰 그림을 생각하게 해준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활동명
아로마 힐링 테라피로
마음채움

일시
2020년 8월 28일(금)
10:30~12:30

장소
목4동 그곳카페 2층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목4동 그곳카페 2층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맹모힐링지교>팀의 아로마 힐링 테라피를 통한 마음채움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맹모힐링지교>팀은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아들만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으로 엄마와 자녀가 함께 봉사하기를 위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모임을 통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아들만 그런 거야?’가 아닌 ‘다른 아들도 그렇구나’, ‘아들들은 그래’ 등 만나서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 고민도 하며,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힐링 모임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활동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엄마들이 조심하면서 모임을 이어가 보자는 의지로 오늘 활동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참여자 명단 작성, 손 소독을 꼼꼼히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음채움 시간으로 아로마 힐링 테라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맹모힐링지교’라는 말처럼, 엄마들의 힐링 시간이 되는 것이죠.

먼저,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을 띄엄띄엄 재배치한 후 활동 현수막도 설치합니다. 이제 는 별말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역할을 분담하면서 활동 준비를 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분들을 기다리는 동안 엄마들의 수다 주제 1순위는 역시 자녀들 이야기네요. 요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위로하며 일상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는 김현정샘은 대표제안자 신가혜샘과 인연이 있어 멀리 성남에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마을활동가라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공부를 지속하며 공부방도 운영하는 성남시 마을공동체 사업지기라고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양천구를 넘어 성남시와도 소소하게 향기 나는 관계 맺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식물의 향기라는 뜻의 ‘아로마’와 치료의 ‘테라피’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후각을 통해 들어오는 향기가 내 몸 깊이 들어오는 느낌, 즉 끌리는 향의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되자 끊이지 않던 수다를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 강의 내용에 집중하시네요. 에센셜 오일은 증기를 이용한 증류나 압착을 통해 만들어지며, 레몬 오일 한 방울은 레몬 껍질 45개를 압착해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의 자료에 꼼꼼하게 메모도 합니다. 강의 도중 강사님의 질문에 손들어 답을 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듣고 있지만, 아로마 테라피의 시향을 포기할 수 없기에 서로를 위해 멀찌감치 거리를 유지하고 잠깐씩 여러 가지 향을 체험해봅니다. 문을 활짝 열어 활동 공간이 자연 환기가 되도록 하고요. 천연재료로 농축된 오일이기에 한 방울만으로도 향이 진한 것을 느끼며 즐겁게 수업을 이어갑니다. 다양한 시향에도 사뭇 진지합니다. 좋은 향기는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듯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꽃 에센셜 오일은 걱정, 두려움, 위로, 무기력, 상처 입은 감정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클라리세

이지 오일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나한테 필요하네’, ‘언니, 꼭 필요해!’, ‘나도~’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어서 강사님이 제시하는 사진을 보며 스트레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회색, 스트레스가 있으면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듣고는 회색으로 보인다는 참여자에게 “우리 모임 기준 미달이야. 탈퇴해.”라고 농담을 던져 한바탕 웃었습니다.

페퍼민트 오일 체험은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페퍼민트 한 병이면 7,000잔의 민트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향도 좋지만 시원한 느낌이 좋아 무릎, 뒷목에 바른 뒤 체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시원하니 기분까지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시원함을 경험하는 것이라 더 좋아하는 건 아닐런지요.

오랜만에 용기 내어 주민모임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걱정

도 있었지만, 다행히 넓은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하며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면서 엄마가 아닌 수강생이 되어 열심히 메모도 하고 질문도 하며, 아로마 오일 시향과 체험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힐링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해 합니다. 같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끼리 교육 관련 정보 나눔과 마음채움 활동을 이어가는 <맹모힐링지교>팀의 다음 활동도 응원합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0일(금)
13:30

장소

그곳 카페

참여자

신가혜(대표제안자)

진행자

임재현(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거창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고 평소에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엄마들 모임이 있었는데 동아리처럼 만들어 어울리면서 정보를 나누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동아리 모임 외에 좀 더 많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엄마들 모임에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마을 사업 전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참여한 경험은 없고 작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취지를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3. 마을사업명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그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엄마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잘 키우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멥모삼천지교란 말

이 있는데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엄마들이 힐링이 되고 엄마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멥모힐링지교' 어머냐고. 갑자기 이 표현이 떠올라서 짓게 되었어요.

4. 회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대표제안자 세 명이 모두 아들만 둘씩 있는 엄마들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엄마들도 서로 친해지게 되었죠. 여기에 각자 아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인원이 추가되었어요. 아이들 봉사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계기로 연결되었는데 아이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기도 해서 서로 친숙하고 성향도 잘 맞는 분들이 모였죠.

5. 주민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멥모힐링지교'는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주를 이루는 모임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학부모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학부모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통해서 모임을 알렸죠. 학부모 위주로 하는 것이라 주로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했어요. 목4동 일대가 주택가라서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라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아로마 프로그램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6. 공동체 활동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주로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임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했는데 학교 커뮤니티가 있어서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7. 올해 활동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올해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요?

올해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는 아로마를 통한 힐링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수학과 관련된 아이들 학습에 대해서었는데 수학과 관련해서는 엄마들이 학습을 도와줄 때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질의응답식 수업도 했고요.

아로마 테라피 수업은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통증 오일이나 피로를 풀어주는 오일, 손 소독제, 탈취제 등을 만들었죠. 4회에 나눠서 활동을 했는데 아로마가 무엇인지에 관한 강의에서부터 그 활용도까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힐링이 된다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마음과 몸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고 안전하기도 하니까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엄마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신선한 부분이 있어서 관심도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선정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율도 높았고요. 나중에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 예산을 이용해서 아로마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해서 학교에서 강사를 모시고 어머니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때 만든 손 소독제, 비누 등을 초등학교생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참여자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이웃만들기는 이웃 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늘려서 친밀해지는 것을 독려하기 때문에 간식비보다는 재료비나 강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비를 아주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그램 특성상 재료는 좋은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일 수가 없어서 강사님이 자신의 강사비를 줄인 것이죠.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8. 다른 과목이 아닌 수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수학 전문가를 알고 있기도 했고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관심이 많지만 가르치기는 어렵고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고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강의를 들으면 집에서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보 나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인데 단순한 정보 나눔이 아니라 아이들을 학습시킬 때 부모의 자세라든지 어떤 마인드로 다가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나 부모에게 좋은 것인지

에 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의를 해주신 분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면서 심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아로마 테라피 첫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사진을 보이면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빨강, 파랑으로 보이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회색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자신은 회색에 가깝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 중에 한 명이 우스갯소리로 “너는 우리 멤버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바탕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솔직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애, 너는 우리 모임 탈퇴해!” 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고 떠드는 분위기에서 기분 좋게 수업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래 만나다 보니까 서로 편하고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하니까 가르치시는 분도 너무 재미있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0. 올해 진행한 활동 중 의미 있었던 혹은 보람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요?

저희가 배운 아로마 테라피로 별레 퇴치제, 비누 등을 만들어서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참 보람 있었습니다. 재능 기부를 한 것이죠. 비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긴 한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11.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애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팀원들도 서로 잘 맞고 갈등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다만 센터에서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너무 갑자기 연락을 해오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대표제안자들이 각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거의 저 혼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못가면 아무도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의 저 혼자 참석하게 되었죠.

12.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로마를 접하게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 사람과 같이하고 싶어 하고 나눠주고 싶어 하는데 모임의 구성원들이 저를 통해 아로마를 알게 되고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이 활동을 하면서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잘 이끌어나가서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요. 이렇게 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니 기분도 좋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좋은 평가도 받고 여러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3. 내가 바라고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같이 생활해나갈 수 있는 것이 마을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모이고 만나면서 행복해지고 힐링도 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적 없이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힐링을 하니까 사이도 더욱 돈독해지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마을공동체를 더 크게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힐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모임을 잘 운영해나가는 것이겠죠. 일처리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앞에서 잘 이끌어주면서 때로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기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서포트도 하면서 모임을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4.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의 지원은 만족스러웠나요?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행사 프로그램이 있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일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가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가기도 했어요. 여유 있게 일정을 알려주 시면 스케줄 조율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사용할 때 용도에 대해서 물론 센터에서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

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절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절충했으면 하는데 센터의 생각을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좀 더 수용해서 조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5.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크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멤버 7명에 재료비도 한정되어 있어서 인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프로그램 횟수도 오전, 오후로 한 번씩 더 늘리면 좋겠고요.

16.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이웃을 알아가고 가깝게 지내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폭넓게 생각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상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취지에 맞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멤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행해나가기가 힘이 들어요. 마음이 잘 맞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잘 맞아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대표 제안자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서로 대화도 잘되고 성격이 잘 맞는 분들이 모여서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진행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여라~ 이웃들!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가람4차산업
주요활동	1.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3D프린팅 등 체험 2. 친해지기 수다 타임 3. 소통하기 마실 타임
활동지역	목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4차산업 관련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스터디에서 만났다.
우연히 같은 동네 친구라서 더 반가웠다.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문득 우리가 가진 4차산업 관련 정보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같이 모임을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면서 머리가 좀 아팠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체험활동을 같이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모이지 못하고, 모임 때도 식사도 같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 진짜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3D펜 체험에 참여하고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환한 얼굴로 가져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과 재미를 느꼈다.
또 다른 여러 활동도 같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한다.
목4동 화이팅~ 코로나 물러가라~



목사랑 반찬 나누미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목사랑동네살핌이
주요활동	1. 이웃과 함께 삼계탕 나누기 2. 명절 음식(송편&전) 만들기 3. 우리 함께 삼겹살 day
활동지역	목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쉽지는 않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진행하신 분들과 모든 분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졌기 때문이었다.

동네 모임을 시작하다가 마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참여하였다.

이웃에 함께 살고 있지만, 도시화, 핵가족화가 되면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웃과의 친분을 만들기 위해 시작하였다.

사람이 가장 정이 싹트기 쉬운 것은 먹는 것에서 정이 붙는다고 해서 주로 음식에 대한 활동을 하였다.

이웃과 함께 삼계탕 나누기는 더운 날씨에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닭 배 속에 찹쌀과 마늘을 넣고 다리를 붙잡고 묶는 모습을 보며 힘은 들었지만 보기 좋았다.

‘반찬 나누미’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였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마을공동체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와 활동성이 필요한 듯하다.

진행자,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음을 나누는, 토닥토닥 힐링바스질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브링더소울
주요활동	1.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기 2. 마을 사람들과 바스질하며 놀기 3. 코로나 극복하는 행사
활동지역	목5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이런 복잡한 요즈음, 더욱 힘이 나는 계기!!!

으쌔으쌔~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웃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과 조용조용 소통하고, 힘들지만 더불어 만드는 행사나 모임에서 잠시잠시 웃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장(場)이 되어주었다. 활동은 원래대로라면 바스질을 하고자 했지만, 코로나로 머리를 맞대고 모여 있는 게 쉽지 않아서 주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상담이나 고민거리인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하 호호 웃었다. 동네를 걷기도 하고, 작은 뒷산 숲길이나 안양천을 함께 걸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여름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기 전, 지난 여름 파리공원에서 캘리그라피로 부채에 글씨 써주는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고, 좋은 문구 속에서 희망을 느끼며, 시원한 화선지 부채를 하나씩 가지고 가셨다.

강아지의 건강을 기원하기도 하고, 많이 웃고 싶다는 기원을 담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내용도 있었다. 20명에게 진행하려던 것을 여분의 부채까지 35개 정도를 소진하고, 줄을 서 있던 분들도 다 못 드릴 정도였다. 봉사해주신 캘리그라피 작가님과 동네 주민들 모두 즐겁고 뿌듯했던 활동이었다.

나눈다는 것, 같이한다는 것, 특히 일상적인 것들을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행복인 거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가슴 뭉클하도록 도와주신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우리모임 뽐뽐뽐:
마스크 비즈 목걸이 만들기

일시

2020년 10월 13일(화)
16:30~18:30

장소

목5동 장미어린이공원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 2차 마을주간 2일차인 10월13일 화요일 오후 4시30분에 목5동 장미어린이공원에서 <마음을 나누는, 토닥토닥 힐링 바스질>팀의 ‘마스크 비즈 목걸이 만들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발열 체크를 하고 사전 예약한 참여자들이 마스크 비즈 목걸이 재료를 개인별로 받아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참여자들은



공원 한편에 준비된 돗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진행했고, 어르신들은 놀이터 옆 정자 벤치에서 알록달록 스마일 별 마스크 비즈 목걸이를 차분하게 만드십니다.

<마음을 나누는, 토닥토닥 힐링바느질>팀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폐현수막이나 안 입는 옷 등을 활용해 바느질을 하며 갱년기 여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돗자리에서 만들어보겠다고 도전한 손 깍스를 한 여자 친구는 힘들어서 엄마 찬스를 쓰기도 하고 어떤 참여자는 마스크걸이가 없는 손녀에게 선물하시겠다고 행복해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운 어르신은 젊은 참여자가 도와주기도 하고 구슬을 잘 꿰는 요령도 가르쳐줍니다.

비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집중해서 잘 꿰어나가네요. 첫 번째로 만든 것은 완성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두 번째로 만든 마스크 비즈 목걸이는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저녁이 다 되어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요밥상’;지역주민과의 소통Day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신월1동 마을사랑
주요활동	1. 매주 수요일에 주민들과 밥상 나눔 2. 뜨개활동으로 수세미와 마스크걸이 만들어 기부 및 나눔 3. 신대어린이공원에서 찐 고구마와 계란을 주민들과 나눔
활동지역	신월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수요밥상’;지역주민과의 소통 Day’라는 이름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매주 수요일에 주민들과 밥상 나눔을 하다 보니 정이 들고 서로를 알게 되면서 돈독하게 되었다. 또 한동네 살면서도 몰랐던 고향 후배도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다.

코로나19로 인해 밥상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신대어린이공원에서 찐 고구마와 계란, 음료수를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니 너무 좋아하셨고, 주민분들, 인근 유치원 어린이들, 어머니와 함께 모여 송편 만들기 행사를 할 때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셔서 뿌듯했다.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뜨개질로 마스크걸이와 수세미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기부도 해주셨다.

모든 분들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신월1동이 되었으면 한다.

마을공동체 파이팅~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14:00

장소

신월1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자

최강남(대표제안자)

진행자

이정화(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을 사람들끼리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신월1동에서 무엇인가 함께할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웃만들기 사업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록 이웃들은 많이 알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주 1회 수요일에 함께 밥을 해서 먹는 활동을 했는데, 먹는데서 정이 든다고 주민들의 참여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신월1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에 주민들과 음식을 만들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코로나가 2단계로 접어들면서 공간에서 취식이 금지되어 몇 주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극복하기 위해, 고구마, 계란을 삶아서 신대어린이공원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대접해드리니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5. 대표제안자와 참여자들 간 생각이 차이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조율하였나요?

제안자들은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분들은 그 활동에 버거움을 느끼셔서 조금씩 줄이자고 하여 회의를 통해 조율하였습니다.

6. 보람 있었던 점이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에 함께 모이질 못하니 각자 공간에서 마스크걸이 뜨개와 인견 때 밀이 타올을 만들었던 활동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만든 것을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주민들이 다양하게 많이 참석하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주민모임이 제한적이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준비를 하면서 거점 공간지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모여 회의도 하고 소통하는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마을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샘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마을에 대한 관심이 넓어졌어요.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나요? 또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수요밥상에 더 많은 주민들께서 오시고 참여해서 더 행복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인사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 내년 계획이 있다면요?

올 한 해는 제가 대표제안자를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저보다 더 출중하고 능력 있는 분이 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마을공동체 오행시를 적어주세요.

마: 마을주민들이

을: 을인 줄 알았는데

공: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

동: 동감하고 공감하여 마을일을 하며

체: 체감되니 어느덧 마을에~

힘내라!엄마들!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꽃줍마들
주요활동	1. 캘리그라피 엽서, 작품 만들기 2. 조화 꽃다발, 리스, 꽃 풍선 만들기 3. 마을공동체 한마당 체험활동
활동지역	신월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양육에 지친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엄마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활동이나 모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서로 가까워진 뒤에 육아 품앗이를 해오고 있었다. 학부모로서 각자의 재능을 더 많은 학부모, 그리고 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나누며 함께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거나,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돈독해졌다. 코로나로 모임 수 없을 때는 DIY 키트를 제작하여 나누고 온라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마을공동체 한마당 마을주간을 통해 신월3동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하면서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모임과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던 엄마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모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유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서로 친밀해지고 믿음이 생겨나니 급할 때 서로 아이들을 맡아 돌볼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



활동명
우리모임 뽐뽐뽐:
비즈 팔찌 만들기

일시
2020년 10월 15일(목)
10:00~12:00

장소
신월3동 엄마의 작업실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신월3동 엄마의 작업실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힘내라!엄마들>의 ‘우리모임 뽐뽐뽐: 비즈 팔찌 만들기’활동이 있었습니다.

<힘내라!엄마들>팀은 신월3동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만나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주민모임입니다. 이웃만들기 사업에 선정되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 건강상 이유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던 김신영샘은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되어 오랜만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감사했고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활동은 비즈를 이용한 소품으로 팔찌를 만들 예정입니다. 알록달록 비즈를 본 반응은 ‘색깔 예쁘다’, ‘고르기 힘들다’입니다. 고민 끝에 각자 원하는 색깔과 크기의 비즈를 골라 손목에 맞춰 자른 실에 꿰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과 배려의 마을에 맞도록 1+1,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이웃을 위해 팔찌를 만듭니다.

비즈를 꿰는 동안 마을 주민들이 또 방문합니다. 엄마들과 함께 방문한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습니다. 엄마의 작업실 뒤쪽 공간에서 아이들도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한마당 취지를 설명하고 비즈 팔찌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색상 선택에 거침이 없습니다. 과감한 색깔을 선택하고 비즈

를 꿰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비즈 크기가 작아 아이들에게는 더 쉬운 작업인 듯합니다. 아이들은 비즈팔찌를 만들어 친구를 주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도 살짝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참 이쁘고 따뜻한데요. 오늘은 필요한 이웃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팔찌를 만드는데요. 작은 구슬을 줄에 꿰면 예쁜 팔찌가 되는 과정이 마을공동체와 많이 닮은 듯합니다. 각각의 색깔이 달라도 줄에 꿰어 조화를 이루고 멋진 팔찌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손목 사이즈에 맞게 비즈를 꿰고 마무리로 매듭을 지은 다음 풀어지지 않도록 접착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 붙여줍니다. 세심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과정이라 김신영샘의 손길이 빨라지고 완성된 비즈 팔찌가 하나둘씩 쌓입니다. 엄마들도 아이들도 팔찌 만들기가 재미있다고 합니다. 완성한 팔찌를 보며 서로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아이들이 만든 팔찌는 색상이 선명합니다. 반짝거림보다는 뚜렷한 색상이 엄마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비즈가 작을수록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 크기가 작아 시간이 두 배나 걸리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쁜 것은 손이 많이 가는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여름에 착용하면 좋은 건?’ 어떤 걸 기부할까? 하는 즐겁고 행복한 고민도 하고 서로의 작품을 보며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마을주간의 우리모임 뽐뽐뽐 활동으로 <힘내라!엄마들>팀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마음을 이어가듯 비즈 팔찌를 꿰며 이웃들과 일상을 나누며 잠시나마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 같은 체험활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13:30

장소
신월3동엄마의 작업실

참여자
김신영(대표제안자)

진행자
원은실(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이가 크면서 엄마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중 지인에게 마을공동체 활동을 소개받고 엄마들이 모여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모여져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으로 시작했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엄마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두 배로 즐거웠어요.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활동 초기는 개인적으로 수술이 있어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고 9월부터는 '슬기로운 집

콕생활'이라는 행사부제로 배포용 키트로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만드는 활동 중심으로 진행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자녀 때문에 모임이 어려워 DIY 패키지를 제작하여 배포, 엄마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대표제안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슬기로운 집콕생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모여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활동 재료를 1인 키트로 제작하여 각자 집에서 활동하고 카톡방에 인증샷으로 공유하면서 소소하게나마 주민들과 연결해보려고 했습니다.

5.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 생각이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했는지요?

모이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서 엄마들이 모임 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카톡방은 소통방 그 이상이였지요. 의견을 내고 동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반기에 이사를 오면서 전학 온 자녀 또래의 친구가 있었는데 10월 마을주간에 그 전학 온 친구가 마을공동체 모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여 우리모임 뽀뽀뽀에 참여하고 마스크걸이를 만들면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10월 마을주간 동안 공방은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동네사랑방 같았어요.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더 자주 모이지 못한 아쉬움이 제일 컸고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하자는 말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려운 점으로는 엄마이기에 아이들의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주민모임 활동 후 소소한 문제를 발견하고 일반적인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함께한 엄마들도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며 주민센터, 아파트부녀회, 동단위 주민모임 등 생소했지만 새로운 경험이라고 반가웠다고 합니다.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문화가 있는 마을이었으면 해요. 사는 게 바빠 여유 없는 마을로 그냥 지내는 것이 아쉬워요. 여유의 시간을 주고 싶고 그 여유는 문화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공방을 개업한 것도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공예 수업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10. 내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올해 이웃만들기 활동으로 새롭게 알게 된 열정 맘들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우리마을지원사업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11. 마을공동체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마: 마을공동체가
을: 언제나 좋게요?
공: 공기 좋은 서서울호수공원에서
동: 동심으로 돌아가
체: 체조도 하고 즐겁게 놀았답니다.

배움+나눔+해소 우쿨렐레 마을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어울림
주요활동	1. 우쿨렐레를 함께 배우며 배움의 기쁨 느끼기 2. 우쿨렐레라는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하기 3. 우쿨렐레 공연을 통하여 즐거움을 나누기
활동지역	신월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마을 안에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함께 어렵지 않게 악기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 부담 없이 자주 만나며 우쿨렐레를 함께 배우기로 했다.

배움의 기쁨을, 함께 연주하며 스트레스 해소의 기쁨을 느끼고, 공연을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누어 즐거운 마을이 되기를 희망하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3회 정도 강사님을 통해 악기에 대한 이론과 연주법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코로나가 심할 때를 제외하고 주 1~2회 정도 모여 함께 연습하며 기쁨을 누렸다.

10월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그동안 연습한 내용을 무대 위에서 공연하여 음악을 함께 나누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자주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최대한 계획한 내용에 가깝게 활동을 하였다. 모임 회원들의 연령대가 30~60대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미로 모여진 모임인 만큼 친구처럼 공유하며 모임을 진행하였다.



활동명

우리모임 뽐뽐뽐:
우쿨렐레 연주

일시

2020년 10월 15일(목)
11:00~13:00

장소

신월2동 스카이 그라운드

가을이 무르익던 10월 중순, 신월2동에 있는 ‘스카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니 귀에 익은 곡이 들려옵니다. 로망스입니다.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배움+나눔+해소 우쿨렐레 마을>팀의 ‘우리모임 뽐뽐뽐: 우쿨렐레 연주’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배움+나눔+해소 우쿨렐레 마을>팀은 현악기인 우쿨렐레 연주를 배우고, 주민들에게 공연을 통해 나누면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 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모임입니다. 배움, 나눔, 해소가 모임이 지향하는 키워드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모임이라 함께 모여 연습을 많이 하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모일 수가 없었던 점이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는데 요. 이날 모처럼 함께했습니다.

우쿨렐레는 기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닳은 점은 손가락으로 코드(chord)를 짚어 소리를 낸다는 점입니다. 코드(chord)란, 기타



나 우쿨렐레 같은 현악기에서 음의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화음처럼 울릴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쿨렐레는 현이 4줄이고, 기타는 6줄입니다. 현을 짚지 않은 개방 현 상태에서 우쿨렐레는 엄지가 닿는 제일 윗현부터 아래로 음계가 라, 미, 도, 솔입니다. 반면 기타는 미, 라, 레, 솔, 시, 미의 음입니다. 코드 잡는 손가락 모양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우쿨렐레는 4현이라 기타에 비해 단순해 보입니다.

오늘 연주곡은 ‘로망스’, ‘조개껍질 묶어’, ‘소양강 처녀’, ‘나성에 가면’ 등 음악의 장르는 조금씩 다르지만, 4곡 모두 친숙한 노래들입니다. 자신들의 연주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배움+나눔+해소 우쿨렐레 마을>팀은 신월음악도서관에서 수년 전부터 우쿨렐레 연주를 교육할 때 참여했던 분들이 인연을 계속 이어온 모임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우쿨렐레지만, 그들이 느낀 즐거운 에너지를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마을 전체에 퍼진다면 우리 마을에 갈등과 스트레스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4족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신월4동 족구회
주요활동	1. 신4족 2. 출동! 신4족 3. 패밀리 포트락 파티
활동지역	신월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족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고, 서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다. 주민들 간의 친목 도모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렇게 모인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회원들의 가족들과도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족끼리 서로 가깝게 지내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로써 활기 넘치는 마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족구회를 만들게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매주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면 주말에 모여 족구도 하고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며 담소를 나누며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지나고 보니 더 많이 모이지 못해 아쉬웠지만, 몇 번의 만남이 서로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 보람된 일이었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족구 모임

일시

2020년 7월 5일(일)
09:00~11:00

장소

신월로203 삼익4차 플라주
아파트 부근 배드민턴장

올해 5월, 신월4동에 새로운 족구 모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신4족'!

2020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선정모임인 <신4족>은 신월4동에서 족구를 매개로 이웃을 만 들어가고자 합니다.

7월 5일 일요일 이른 아침, 코로나19로 차일피일 미루던 <신4족>팀이 첫 모임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따라 나와 족구를 한다고 다리 하나를 걸칩니다.

족구는 남녀노소 모두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아이들도 금세 따라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족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원 포인트 레슨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면서 2대2 경기가 3대3 경기로 발전합니다.

연령층이 40~50대라 몸보다 마음이 앞섭니다.

15점을 먼저 얻는 팀이 이기는 경기에서 각각 한 세트씩을 주고받다가 결과는 2대1로 끝났습니다.

심판을 보는 회원에게 편파 판정(?)을 항의도 하며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는데요.

심판은 녹화한 것이 있다며 휴대폰을 보여 줍니다. 모두 한바탕 해맑게 웃음이 터집니다.

응원에 지쳤는지 아이들이 "아빠 언제 끝나? 우린 족구 언제 해요?"라며 아빠들을 재촉하고 결국 족구

장은 아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족구공 하나가 '신4족'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줍니다. '신4족'은 족구공이 했던 것처럼 이웃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족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같이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 마을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족구를 할 만한 공간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도 배드민턴 경기장에 네트를 낮게 치고 진행했는데요.

쓸 만한 족구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듯한데요.

이웃들이 모여 족구를 하며 관계망을 넓혀가다 보면, '신4족'이 족구장을 마련했다는 좋은 소식이 빨리 전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신4족'도 다른 이웃과 시합도 하면서 이웃의 범위도 넓혀가게 되겠지요.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9일(목)
18:00

장소
신월동 신곡시장 부근
메가커피

참여자
이재형(대표제안자)

진행자
이호중(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참여자들을 모을 수 있었나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운동을 통해 친하게 지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몇몇이 알고는 지냈지만, 좀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족구를 하게 됐고, 족구로 사람들이 모이면 운동만이 아니라 동네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같이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인들을 통해 입소문으로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참여한 분들이 주변의 다른 분을 참여하시게 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집 자체가 어려웠기에 이런저런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 족구라는 것이 아빠들이 힘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 그래도 나온 편이었습니다.

아빠들이 운동을 하러 나오면서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나와 저희 모임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함께하는 모임이 됐습니다.

'신4족'이라는 사업의 명칭은 신월4동의 족구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 모임이며, 어떤 모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이름을 지어보려다 우리 사는 동네 이름을 활용해서 '신4족'을 사업 이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4명이 시작을 한 '신4족'인데 지금은 12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2. 함께하는 운동은 자주 하는지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얻는 성과나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일은 어렵고, 주로 주말을 활용해서 매주 운동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코로나로 모임 자체가 제약을 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10월, 11월은 매주 운동도 하고, 식사도 같이하면서 보냈습니다. 단톡방을 통해 운동하기 좋은 날을 투표로 정했습니다.

몰랐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함께 도모할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도 조성됐어요. 특히, 아이들도 함께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회성도 좋아지는 것 같았고, 아빠들도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아는 사이에서 이웃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해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빠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엄마들도 나와 응원도 하고, 엄마들끼리도 서로 인사하면서 아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신4족’ 모임에 함께 나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근처 강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이제 서로 인사하고 아는 사이가 된 아이들끼리도 또 하나의 이웃을 만드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상급반 형들은 아래 학년 동생들 돌보아주고, 아래 학년 동생들은 형들을 의지하면서 학교생활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3. 족구 실력도 꽤 수준급이겠는데요, 시합에 나가기도 하나요?

아빠들 중에 몇 명은 선수급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보 아빠들을 지도도 하고, 이른바 One-Point 레슨도 하십니다.

족구에도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넣을 때 스핀을 거는 방법도 있고, 소위 스카이 서브로 볼을 높게 튀기게 해서 타점 잡기를 어렵게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발바닥’을 이용한 스파이크 등 빈 공간을 찾아 찢러 넣는 기술로 수비를 어렵게 하는 기술들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시합에 나가는 것에 대비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아빠들끼리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가다 보면 족구 실력도 많이 늘게 되겠죠. 주변에 사실 족구팀들이 많이 있어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대회 등 이런저런 대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력이 쌓였다고 생각되면, 그런 대회 참가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렵니다.

4.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족구는 운동을 할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데, 사정이 썩 좋지 못하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해 강서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대관을 목표로했지만, 코로나로 대관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장수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있어 위험합니다. 더구나, 아이들도 함께 있다 보니 신경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위해 참여자들이 발벗고 나선 끝에 지양산 양천중학교 부근에 있는 족구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족구장 주위로 펜스도 설치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게 족구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같은 모임에서는 ‘공간’ 확보가 참 중요한데, 그 점을 해결할 수가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용도 부담 없는 곳이라 좋습니다.

5. 평소 족구는 어떻게 즐기나요?

모이는 시간들이 달라서 회원들이 나오는 대로 경기 요건이 되면 운동을 시작합니다. 보통 15점 내기 혹은 21점 내기로 3세트 경기를 하죠. 그런데, 같이 따라 나온 아이들이 응원만 하다가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족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아이들끼리 경기도 하게끔 해줍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한 편이 돼서 할 때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회원들이 모이면 아빠들끼리 주로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도 함께 합니다. 아빠들끼리는 나이에 따라 형, 동생하면서 지냅니다.

6.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마을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집 신발이 몇 개고, 수저가 몇 개고 다들 알고 지내던 그런 모습을. 당시 식사도 함께 자주 하시고, 왕래도 하시면서, 깊이 있게 알고 지내시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그런지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밤에 다녀도 안전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마을, 그런 마을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모임을 확대하면서 큰 모임을 만들어 알고 지내는 사이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이 일조하고자 합니다.

족구공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축구공이나 배구공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족

구공이 따로 있더군요. 더구나, 계절에 따라 재질이 다른 족구공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족구에서 족구공은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족구장은 족구공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을 활동에서 공간이 중요한 것은 족구공이 족구장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내년도 마을 활동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모임의 성격대로 족구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고자 합니다. 운동 자체가 모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인 만큼, 유니폼도 맞추고,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연습도 많이 하렵니다. 참여자들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해서 코로나 그 이후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임 수가 없었습니다. 한 2달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월4동에서도 모임 자체 요청을 많이 했고, 심지어 자율 방법대 같은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마을공동체 활동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하던 일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족구로 만들어진 관계를 통해 마을을 위한 특별한 활동도 하고자 합니다.

'신4족' 참여자는 적어도 20명 선까지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보통 4인이 한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하는데, 5팀 정도 유지한다면 자체 시합도 자주 하면서 실력도 향상시키고,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를 앞두고, 제대로 된 족구 룰도 익혀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특별한 룰 없이 해온 족구에서 규정에 입각한 제대로 된 족구를 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해나가고자 합니다.

8. 마을공동체로 5행시를 지어 주세요.

- 마:**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마
- 을:** 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 공:** 공감과 이해를 통해
- 동:** 동네 사람들끼리 가까워지는
- 체:** 체육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이웃과 함께!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해오름놀이마당
주요활동	1.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 전시 및 체험 2. 뜨개, 바느질 소품 만들기 전시 및 체험
활동지역	신월5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의 활동을 통해 새롭게 관심 갖기 시작하는 주민들과의 소통 증진과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 위주의 활동을 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이웃과 소통하는 좋은 관계를 맺은 것 같다. 보다 나은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고민해본다.

우리의 이웃만들기 <새로운 이웃과 함께> 일정을 마무리한다.

도움을 주신 센터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활동명
재활용 공예

일시
2020년 8월 14(금)
14:00~16:00

장소
신월5동 해오름마을주민
공동이용센터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신월5동 해오름마을주민공동이용센터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주민모임인 <새로운 이웃과 함께!>팀의 재활용 공예 활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제안자인 한유영샘의 안내에 따라 깔끔하게 정돈된 해오름 카페와 건물 내 정원을 둘러보니, 신월5동 주민들은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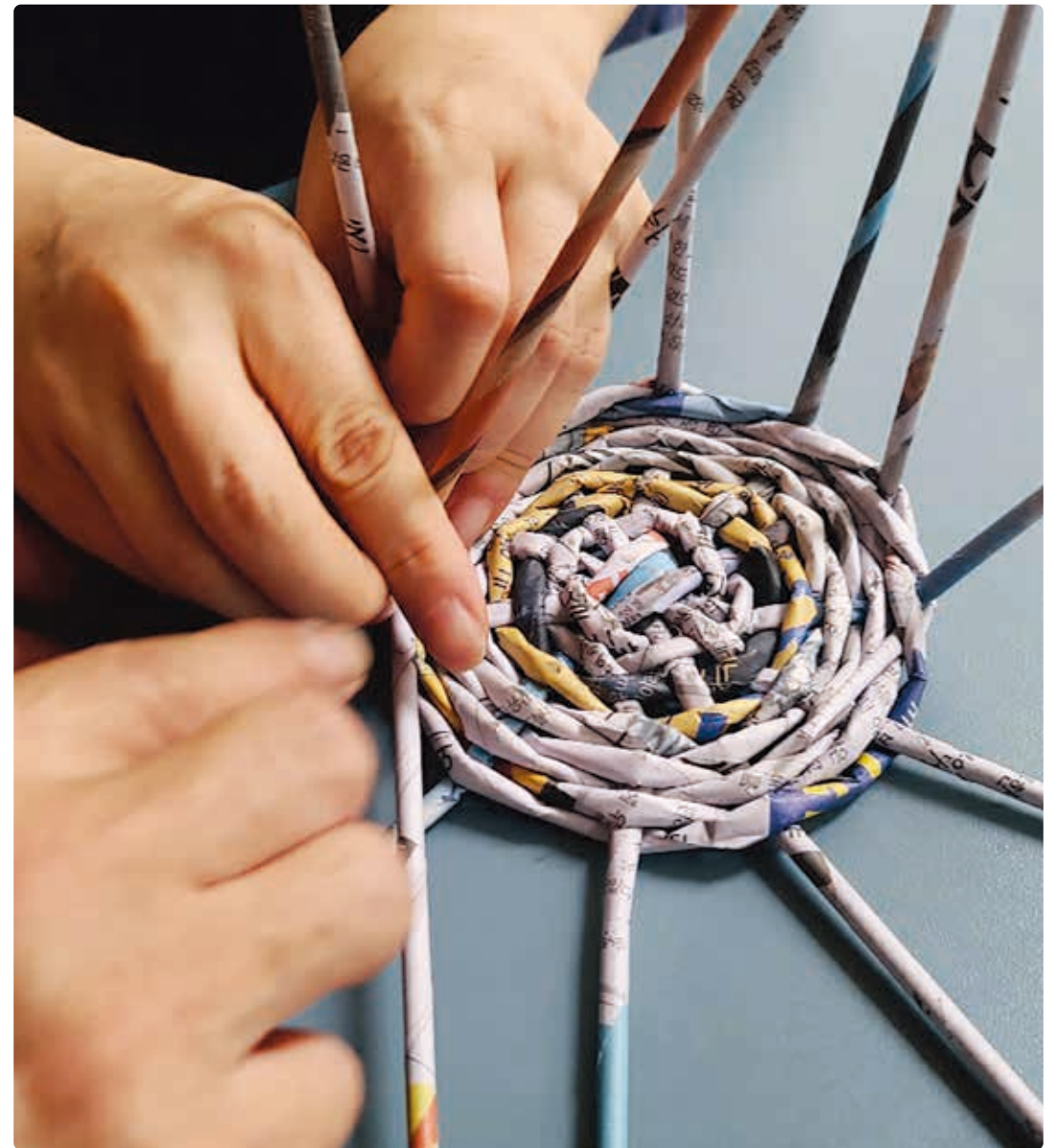
오늘 재활용 공예 활동은 안성환샘이 신문을 재활용하여 '재활용 그릇 만들기'를 지도해주셨습니다. 샘의 설명이 자세하고 친절하 덕분에 처음 하는 분들도 모두 다 잘 따라 하시네요. 주재료인 신문지도 전부 미리 말아오셨네요. 6개의 말아놓은 신문을 3개씩 교차시켜서 기본이 되는 밑바닥 면을 만든 뒤에 위로 꼬아 올리고 나니 그럴듯한 모양의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일링 기법을 응용한 재활용 그릇 만드는 방법인데, 의외로 간단하네요.

'위아래, 위아래' 리듬에 맞춰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만들어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서 금세 재미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방법을 익힌 뒤에는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작업하다 보니 어느새 그릇이 10cm 이상 높아졌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원하는 높이에서 마무리를 지어 예쁜 그릇을 완성했습니다. 만들어진 그릇을 보며 예쁘고 튼튼하다며 좋아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

나 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족했습니다.

안성환샘은 환경재활용창작품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구회에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나만의 창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고 어린이의 체험학습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하고 계신답니다.

물가가 높은 요즘 시기에 재활용 교육으로 절약하는 방법도 배우고 창의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새로운 이웃과 함께!>팀의 이웃만들기 활동에 신월5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신월5동 친구와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친구친구
주요활동	1. 모이기 친해지기 2. 친해지기 뛰어놀기 3. 마을공동체 한마당(마스크 목걸이&차량용 디퓨저 만들기)
활동지역	신월5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이사 온 지 3년이 넘었지만, 지난번 동네와 다르게 친구를 만들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 벚꽃축제에서 알게 된 친구를 통해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설명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우리처럼 누군가도 아이들의 친구도 만들어주고 엄마들도 친한 이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이기 친해지기’ 활동으로 방아다리어린이공원에 모여 아이들은 물총 싸움을, 어른들은 티타임을 가지며 서로 알아가며 친해져 갔다.

‘친해지기 뛰어놀기’ 활동으로 공원에 모여 아이들은 발목줄넘기, 풍선놀이를 통해 함께 뛰어놀며 더욱 친해지며 서로 모임을 통해 원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내내 지내기 힘들었던 엄마들과 추석맞이 한복 방향제 만들기, 마을공동체 한마당 마을주간에는 마스크 목걸이와 차량용 방향제, 섬유탈취제를 만들었다. 기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뿌듯했다. 마지막으로는 할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사탕 나눔도 했다.

무엇보다 우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점과 얼굴도 몰랐던 이웃들(엄마들)이 서로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차츰 동네를 오가며 서로 안녕,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이웃이 생기게 되었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물총놀이

일시
2020년 7월 4일(토)
12:00~15:00

장소
신월5동
방아다리어린이공원

화창하면서도 더위가 느껴지는 날씨에 아이들은 신월5동 버거킹에 모여 다 같이 햄버거를 먹고 룰루랄라~ 방아다리어린이공원으로 향합니다.

신나는 발걸음으로 도착한 방아다리어린이공원에서 <신월5동 친구와 이웃만들기>팀은 ‘친구친구’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12명의 아이들과 7-8명의 부모들이 들락날락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줍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물총 상자가 도착했네요~.

공용 수도가 없어서 아빠들이 물총에 넣을 물을 공수하고 나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물총놀이를 한껏 즐기기 위해 아예 수영복을 입고 온 친구도 있네요.

새로 사온 물총을 먼저 가지려고 욕심내기보다는 동생들을 챙겨주는 형들의 마음이 참으로 대견합니다.

처음엔 아빠들이 아이들의 물총에 물을 넣어주지만, 두세 번 아빠들의 도움을 받고 나서는 스스로 자기 물총과 동생들의 물총에 물을 넣어주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네요.

아이들이 물총놀이를 하면서 장난스레 작전을 짜기도 하는데요~.

남자 친구들끼리 “우리 여자 친구들만 쏘자.”라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막상 어린 여동생은 쏘려다 말고 봐주는 모습이 보이자 “재네들 좀 봐~. ㅎㅎ”라며 엄마들이 웃기도 합니다.

피하려다 넘어진 아이도 서로 원망하고 울기보다는 ‘괜찮아~.’ 하면서 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른들도 민감하게 행동하지 않고 물로 씻기고 밴드를 붙여준 후에 다시 놀게 합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물총놀이를 하고 곁에서 지켜보던 부모들은 정자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아마도 모임이 횡수를 더해갈수록 이웃과 행복한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서로 함께 챙기는 <신월 5동 친구와 이웃만들기>팀의 모습이 훈훈합니다.

이번 물총놀이에 참여한 아이들은 모두가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통해, 또는 원래 알던 엄마들을 통해 알음알음 모여 서로 인사도 나누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친구를 만들고 이웃이 되어가는 <신월 5동 친구와 이웃만들기>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9일(목)
15:00

장소
신월동 버거킹

참여자
정수정(대표제안자)

진행자
이정화(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월 5동으로 이사 온 지 3년이 되도록 우리 아이는 친구가 없었고 저도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을 보게 되었고 관심 있던 차에 설명회에 참여하였고 용기 내어 신청하였습니다.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신월5동 이웃만들기 메신저 방을 만들고 알음알음 초대하여 함께하였고 우리 활동이 주로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니 동네에 놀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응도 나름 뜨거워서 여름에 진행했던 물총놀이는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출석부 기재를 깜박 잊을 정도였습니다.

매번 놀이터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헤어지는 것을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저희 사업은 총 6회로 코로나로 방콕생활을 하는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놀이터에서 여름에는 마스크로 무장은 했지만 잠시나마 시원하게 물총놀이를 2회 하였고 한발출넘기 1회, 코로나 2.5단계로 사업이 멈춤이 걱정되던 차에 아이들과 24시간 함께함으로써 너무 힘들었던 엄마들과 추석맞이 한복 방향제 만들기를 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마스크 스트링과 차량 방향제, 섬유탈취제를 만들어 기부도 같이하여 뿌듯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사탕 나눔 활동도 하였습니다.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저희는 주로 놀이터에서 사업을 하였고 야외활동이라서 그나마 여건이 나았지만 코로나 2.5단계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모임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때 대표 3인 중 한 분이 엄마들에게 힐링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코로나 육아로 지친 맘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했는지요?

특히 저희는 대표제안자들과의 생각 차이는 없었고 다만 참여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 잘 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금 곤란했지만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용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는 무엇인가요?

저희 사업을 하면서 제일 보람되었을 때는 놀이터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즐거워하는 점과 서로 얼굴도 몰랐던 이웃들(엄마)들이 몇 번의 모임을 통해 소소한 아이들에 대한 정보와 동네 맛집 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였고 동네를 오가며 아이들은 안녕, 엄마들은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얼굴들이 있다는 점이 나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저희 활동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니 만큼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되었고 야외 놀이터라는 장소 때문에 계획했던 인원들 외에 다른 이웃들이 즉석에서 참여하여 준비했던 소모품이나 간식 등이 부족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을 활동을 하기 전엔 코로나로 집에만 있었던 매일 놀고 싶었던 딸아이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약속을 잡고 놀이터로 나갑니다. 마을 활동을 하기 전 같은 동네 친구가 꼭 필요했던 엄마는 아이 학교 숙제 등을 물어볼 수 있는 메신저 방이 생겼습니다.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 공동체 온라인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시골에서 고구마가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 봉지, 봉지 나누는 이웃들이 있는 마을, 비 오는 날 재료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부침개 한 장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선뜻 나누어주는 그런 이웃들 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10. 내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웃만들기 사업은 보람 있게 끝냈지만 그 위 단계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반면 과연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선은 이웃만들기로 만들어진 참여자들과 놀이터에서 주기적으로 만날 계획입니다.

11. 마을공동체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마: 마음 있는 이웃들이 만나면
을: 을시고(감탄을 자아내는 종결 의미)
공: 공통의 분모가 만들어지고
동: 동네동네 나누는 소리로
체: 체(체)워져가네

해오름 마을공방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바느질공방
주요활동	1. 마스크, 때수건 만들기로 이웃과 소통, 나눔 활동 2. 코바늘로 가방을 만들며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이웃들과의 친밀도를 높임
활동지역	신월5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해오름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나와 취미나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카페나 동호회에서 만남보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월 청소년센터에서 '이웃만들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듣지 못했다면 이번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손으로 만드는 작업을 매우 좋아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마스크 만들기와 때수건 만들기, 코바늘로 가방 만들기를 진행했다.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새로운 이웃과 친해지는 과정은 즐거운 일이었다. 완성품을 서로 자랑하고 다음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행복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소소한 취미의 즐거움을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또 같이 배우며 작업하는 이번 사업이 내게 매우 행복한 여정이었다. 새로운 이웃들과 만나게 되면서 동네를 다니며 나는 참 인사를 많이 하게 되었다. 활동 한 가지를 하는 것뿐인데 이상하게 많은 분을 알게 되고 동네에 대해 더 관심과 애착이 생겼다. 아마 참여하신 이웃분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활동을 하며 새로운 카페를 알게 되어 자주 방문하는 단골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다.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서류며 정산으로 힘든 적도 있었다. 다시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많았다. 하지만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참여해주신 이웃분들이 따로 모여서 더 하고 싶고 계속 모임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신다. 함께 활동하며 설렘을 느낀다고 얘기해주셔서 너무 뿌듯했다. 힘든 일들은 다 사라지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한 해였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바느질 활동- 때밀이 수건 만들기

일시

2020년 8월 11일(화)
10:30~12:30

장소

신월5동 이디야 커피숍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신월5동 이디야 커피숍에서 <해오름 마을공방>팀의 마을공동체 활동 '때밀이 수건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오름 마을공방>팀은 2020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에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팀인데요.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센터에서 바느질 공예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마을 주민들과 많이 교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을 만들고자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새롭게 만난 이웃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 종류의 핸드 메이드 작품도 만들고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모임 구성원들이 행복한 활동뿐 아니라 함께 만든 작품으로 마을공동체에서 나눔과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네요.

오늘은 '때밀이 수건'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침 10시 30분 전부터 대표제안자 장태경 샘이 어린 딸과 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임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이웃을 넘어서 친인

니, 동생과 같은 모습인데요.

지난주에는 ‘마스크 만들기’를 했다고 하며 자랑스럽게 펼쳐서 보여 주는 데 쓰기에 아까울 정도로 예쁜 마스크들이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네요.

‘때밀이 수건’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장태경샘이 같이 모인 엄마들에게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자세히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뿐만 아니라 같이 온 어린아이들에게도 선생님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양증맞은 손으로 바늘을 쥐고 열심히 때밀이 수건을 만드는 아이들에게 “손 찢리니까 조심해~ 천천히 해. 이모가 해줄게.”라며 걱정해주고 가르쳐주는 모습이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친언니나 엄마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네요.

때밀이 수건은 아이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사각형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접어서 핀으로 고정시키고 홈질을 해준 후 그 부분을 박음질해줍니다. 이렇게 접힌 부분이 때밀이 수건의 손을 집어넣는 입구가 됩니다. 그다음 이것을 둘로 접어서 밑면과 옆면을 박음질해주면 사각형 주머니 모양의 때밀이 수건이 완성됩니다. 천의 재질은 인견인데, 인견으로 만들면 사용할 때 아프지 않고 때도 잘 밀린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엄마들도 함께 모여 바느질을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임 장소는 어느덧 사랑방이 되어갑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도 서로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에서부터 자식 사랑, 며느리 이야기, “그때는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 대접 많이 했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이라고 말하는 그때 그 시절 이야기까지 무엇이든 대화거리가 되었고, 세대 차이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주 보고 앉아 서툰 바느질을 하면서 재잘거리고 장난치며 같이 놀다 보니 친형제처럼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당차게 혼자서 바느질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엄마, 나 신경 안 써도 돼.”라며 혼자 해보겠다고 했던 아이가 나중에는 “아니야, 엄마가 도와주는 게 낫겠어. 엄마가 설명을 잘 해주니까.” 라면서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같이 바느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예쁜 주머니처럼 생긴 때밀이 수건이 하나둘씩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만들어보는 때밀이 수건을 보여주며 어떤 게 더 예쁜지 비교해보기도 하고 때를 밀어주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엄마들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에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해오름 마을공방>팀은 마을공방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이웃과 만나고 여러 가지 핸드 메이드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마음의 즐거움, 행복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나눔과 봉사로 이어지고, 소소한 행복을 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큰 결실을 맺기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파이팅!’을 크게 외치면서 다음 모임을 기약합니다.

달맞이체조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줌마 달맞이
주요활동	1. 함께 운동하기 2. 함께 나누고 만들기
활동지역	신월6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2020년 4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밸런스워킹 지도자인 대표제안자의 제안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단지 내 놀이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도 챙기고 이웃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함께 운동하기’ 활동으로 매월 2회 밸런스워킹 PT 운동을 통해 새로운 이웃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을 때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장소 사용도 힘들었다. 그때는 ‘함께 만들고 나누기’ 활동으로 운동 대신 샌드위치 함께 만들기, 화분 만들기, PET병 만들기, 에코백에 그림 그리기 등 소규모로 활동을 이어가며 즐겁게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음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려울수록 움츠리지 않고, 함께 위로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다. 처음에는 밸런스워킹이라는 운동이 매개가 되었지만, 앞으로 소통도 더 자주 하며 체력을 키우기 위해 둘레길 걷기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언니, 동생 하면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



활동명
여름용 마스크 만들기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17:00~19:00

장소
신월6동주민센터

7월 16일 오후 5시, 신월6동 주민센터 4층 사랑방 공간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선정 모임인 <달맞이체조>팀에서 ‘여름용 마스크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달맞이체조>팀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놀이터에서 주기적으로 밸런스워킹을 하면서, 서로 건강도 챙기고 이웃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또한 재활용 소재로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웃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웃 주민들과 ‘여름용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면 마스크를 만드는 거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마스크 안감 두 장, 겹감 두 장을 각각 겹쳐 그 위에 준비한 마스크 패턴을 대고 그립니다.

시점을 조금 남기고 자른 후 겹면과 안쪽 면을 핀으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손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돌레를 한 바퀴 박음질한 후 뒤집어서 다시 상침질을 하고 마지막에 귀 끈을 달아주면 됩니다.

대표제안자인 유재경샘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친절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참여자들은 테이블 위에 있는 예쁜 천을 손에 쥐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합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고 바느질을 하다 보니 목도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지요. 그래도 쉴 새 없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깔깔거리고 웃다 보니 어느새 마스크가 하나둘씩 완성되어갑니다.

마스크가 완성되자 “아! 뿌듯해!”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귀 끈이 너무 짝 조이는 것 같아 끈의 매듭을 다시 조절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것보다 더 예쁘다.”라며 서로 비교도 하면서 직접 만든 마스크를 얼굴에 써봅니다.

능숙하지 않은 바느질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소중한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만들기를 통해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더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을 가질 것을 기약하면서 모두 얼굴에 꼭 맞는 마스크를 쓰고 ‘파이팅!’ 힘차게 외쳤습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0일(금)
09:10

장소

양천공원 놀이터 키지트

참여자

유재경(대표제안자)

진행자

이호중(마을기록지원단)

1. 밸런스워킹이 매개체가 되어 마을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연한 기회에 ‘밸런스워킹’을 알게 됐어요. 저 자신이 목 디스크, 알레르기 등으로 고생할 때인데, 병원만 의지하다가 밸런스워킹을 통해 고쳤어요. 하지만, 병을 고쳤다고 해서 운동을 그만두면 안 되겠기에 계속 운동을 하면서, 나도 이 운동을 통해 행복했지만, 다른 분에게도 행복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친김에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5년 전부터 계남공원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했는데 참여도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주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릴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이웃과도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위 켜 두!’ 캠페인을 통해 마을 활동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2. 참여자들은 어떻게 모았나요? 마을 활동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나요?

원래 살던 곳이 신월2동이었는데 신월6동으로 이사를 오기 전 신월6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활동을 준비하러니 제가 아는 분도 없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죠.

지인의 도움으로 신월6동에 사시는 두 분을 소개받았고, 그분들이 알음알음 소개해서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여를 꺼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나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입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분들이 처음에는 많아서, 기본 체조 중심으로 진행을 했어요. 함께 다과와 식사도 하면서 일상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참여자들과 생각의 차이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고, 제안자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주 1회 이상 전화 통화나 음식 나눔을 통해 열린 시간도 자주 갖고요. 소통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톡방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4. 2020년 한 해 어떤 활동을 주로 했나요?

코로나 사태가 2단계로 격상된 적도 있고, 그때는 어떤 활동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주민센터 내 장소는 사용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몇몇이 모여서 밸런스워킹 운동 대신에 샌드위치 함께 만들기, 화분 만들기, PET병 만들기, 에코백에 그림 그리기 등 활동을 소규모로 조금씩 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야외활동으로 운동을 하게 됐죠. 주로 공원을 이용해서 저녁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주 1회 정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 중에 직장인들도 있어 그분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저녁 시간을 택했죠. 이웃만들기 사업이 ‘달맞이체조’인 것은 저녁에 하는 활동의 의미도 있고, 신월동의 동 이름 유래에서 오는 <달>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밸런스워킹의 주요 프로그램은 제자리 걸으며 4방돌기인데요,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번갈아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5. 밸런스워킹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면요?

밸런스워킹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크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네 방향을 돌면서 하는 운동인데 같은 것을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다른 것을 섞어도 좋습니다. 크게 보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에 중점을 둔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고,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조합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 <줌마 달맞이>팀은 틈틈이 쉬면서 운동을 했는데 50분 정도 했습니다. 연령층이 50대 위주여서 함께한 아이들은 없었구요, 모두 여성분들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이웃만들기 활동을 통해 어떤 보람을 느꼈나요?

2020년 봄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된 아파트이기에, 새로운 이웃을 만나 친분도 쌓게 됐고, 이러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사 가기 전에 이미 동네 분들을 알게 됐고, 그분들과 함께 마을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워킹'이라는 운동이 매개체가 됐어요.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갱년기 전후 운동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싫어하는 편인데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는 것이 싫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인해 어느 모임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없었던 점이 많이 아쉬워요.

운동을 하면서 기초체력이 약해서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이 어떠한 규정과 원칙하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이 오히려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와 틀이 조금만 느슨할 수 있다면 보다 역동적인 활동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8. 마을 활동 전후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나요?

저를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마음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움츠리지 않고, 함께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작게나마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만들기 시간을 통해 건강한 이웃도 생기고,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운동을 하니 힘도 안 들고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달맞이체조'의 유재경 마을사업지기는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위 캔 두!', '힘내라! 마을 바캉스' 등의 마을응원 캠페인과 '마을주간' 행사 등에서도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하면서 이웃 만들기 활성화와 촉진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9. 바람직한 마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은 풍요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빈곤하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을,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서로가 배려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저 하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나부터 먼저 인사하고 모임을 통해 친밀한 이웃을 만들어가는 일에 한 몫을 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모두 가족 같은 관계로 지냈는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너무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10. 2021년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상관없이 이웃만들기로 만나게 된 주민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물론 밸런스워킹이라는 운동이 매개체가 되겠죠. 현재 단톡방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 둘레길 걷기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끼리는 언제부터인가 언니, 동생 하면서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지도자도 양성하면서 밸런스워킹을 통한 마을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재능 기부도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따송이(따뜻한 송편으로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신월6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요활동	1. 홀몸 어르신과 일촌 만들기 2. 자매결연지와 문화 교류 3. 벽화 사업
활동지역	신월6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신월6동은 3년 전부터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동네 전체 인구 감소로 모든 활동 영역이 저조하였던 동네였다. 먼지와 소음으로 사람들은 모두 지친 상태로 지난 3년 세월을 보냈다. 올해 3월부터 3천 세대가 입주 시작하면서 마을에서 이웃과 서로 재미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신월 6동 자치회관 자치위원회에서 마을 사업 '따송이'를 신청하게 되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려니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마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수업으로 가정에서만 지내는 와중에 '따송이'의 활동으로 자치회관에서 공기정화식물을 심어 거실에 두고 보면서 숨통을 뚫었다는 주민들의 말 한 마디에 의욕이 다시 생겨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두 모여 밥 한 번 먹기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기에 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이어지고 제한된 인원으로 활동을 할 때마다 몇 번씩 나누어서 활동을 해야 했다.

애초의 계획은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활동하고 싶었으나, 코로나가 발목을 잡아 마을 활동 자체가 침체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꽃향기 나는 마을친구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방과후 엄마대란
주요활동	1. 힘이 되는 엄마친구: 심포 힐링시간 2. 아이 마을친구: 아이들의 바깥놀이
활동지역	신월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작년에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에 보내놓고 나니, 엄마들도 친구를 사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를 보며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던 마음들을 마을 친구들을 사귀며 마음을 나누고 방과 후에는 어떻게 아이를 잘 교육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들 교육은 부모들만의 몫이 아닌 마을 안에서 함께 상생하면서 공동체적 시점에서 생활 속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마을 안에서 엄마 친구, 아이들 친구를 사귀는 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

‘힘이 되는 엄마친구’ 활동은 마을의 교육, 환경, 여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이웃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음식 만들기, 수다 떨기, 홈 파티를 진행했다.

‘플러스 원 이웃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인근의 이웃을 초대하여 향 비누, 친환경세제, 모기퇴치제, 다양한 반찬 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엄마에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 마을친구’ 활동은 코로나로 소외된 아이들도 마을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집이나 공원에서 놀면서 친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엄마 친구가 아이 친구도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쿠키 만들기, 토끼 밥 주기, 보드게임 등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활동 후기: 참여자의 시

내가 만난 마을 친구

매일 매일 평범하게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아이를 위해 공부를 가르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한다.

그러다가 문득
가족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화가 버럭 난다.
잔소리 폭탄을 쏟아붓는다.
왜 내 시간은 없냐고!
나를 위한 건 언제나 할 수 있냐고!

다정한 남편과 귀여운 아이가 있는 행복한 내 삶이
한순간에 스트레스성 분노와 우울이 있는 히스테리 여성으로 변한다.

모임에서 만난 연서네 엄마도 그렇게 산다 한다.
상윤 엄마도 그렇게 행복과 분노를 왔다 갔다 한단다.
우리 엄마도 예전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난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

참여자 후기

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웃 친구는 없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숫기 없는 저이지만, 건강에 좋은 수제 비누를 만든다고 해서 열심히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참여하다 보니 조금씩 이웃 친구를 만들게 되었다.

정말 좋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보고 또 그걸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었다. 또한 아이들도 코로나로 학교에 못 가서 소속된 집단도 없고 친구도 없이 게임과 TV만 봤는데, 아이들 모임이 있다 보니 공원에서 뛰놀며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이 사업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마을에 이렇게 비슷한 또래 엄마들도 많고 좋은 마을이란 걸 알게 되었다.



활동명
바깥놀이

일시
2020년 8월 17일(월)
13:00~16:00

장소
신월7동 오솔길공원

장마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했던 8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 신월7동 오솔길공원 숲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꽃향기 나는 마을친구>팀의 야외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꽃향기 나는 마을친구>는 신월7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학교와 마을에서 친구를 사귀며 마음을 나누고,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것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마을에서 친구를 사귀면서 일상에서 소소한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을 안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삶의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에게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친구 따라 마실 나온 엄마들은 시원한 숲속 그늘에 아이들을 위한 대형 텐트도 준비하고 야외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점검하느라 분주합니다.

아이들은 답답한 집을 벗어나 오랜만에 맑게 개인 하늘과 함께 바깥놀이를 하고, 엄마들은 초록이 가득한 숲속에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힐링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실내에 갇혀 지냈던 답답함을 훌훌 털어버리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텐트에 잠시 관심을 보이다가 이내 공원으로 달려갑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에도 아이들은 "뭐하고 놀까?"라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

누더니 술래잡기를 시작합니다.

한바탕 술래잡기를 하고 다시 모여 어떤 놀이로 바꿀지 의논을 합니다. 이때는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도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다음 놀이는 얼음땀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결정할 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 마을공동체 활동과 다르지 않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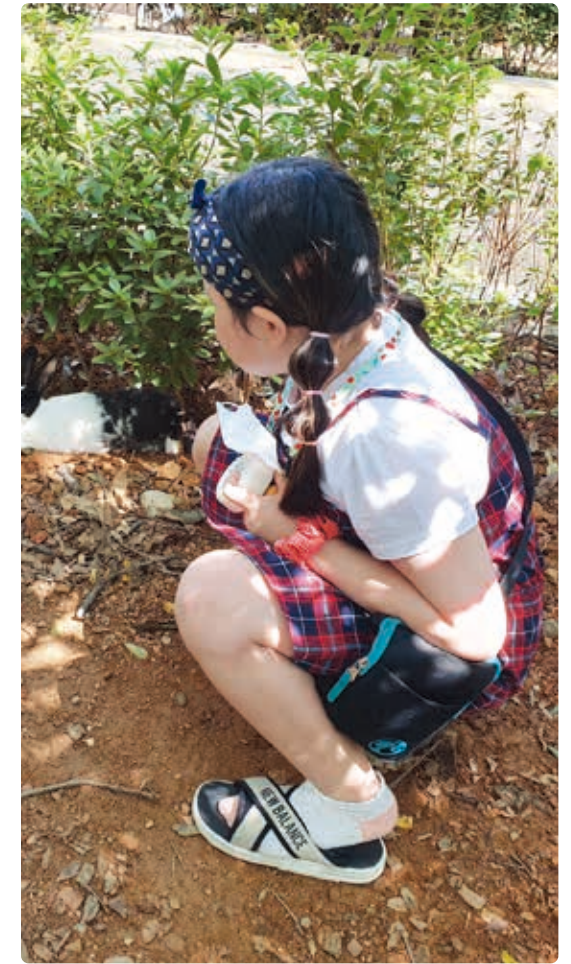
그 시간 엄마들은 텅 빈 텐트 옆 평상에서 수영, 발레 등 아이들이 배우는 활동 이야기로 기분 좋은 수다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속 공원이라서 그런지 지나가던 어르신이 자연스레 평상수다 모임에 합류하여 물고기 분양, 어항 이야기로 주제가 전환되기도 합니다. 어항 관리 방법을 시작으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코바늘뜨기로 넘어갑니다.

한바탕 뛰어논 아이들은 오솔길공원에서 낮잠자는 토끼를 살펴봅니다. 토끼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도망가지도 않네요. 그런 토끼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관찰합니다.

아이들은 텐트 안에서 자신만의 미니 에코백을 색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친구네 엄마를

'이모'라고 부르며 그림 그리기 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색칠하는 도구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아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짜증 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규칙을 배워갑니다. 텐트 밖에 있던 친구는 목말라 물을 마시던 중 엄마가 가볍게 던진 "너 그림 안 그려?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해?"라는 말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엄마는 나에 대해 아는 게 없지."라고 말하고는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엄마들도 자신의 아이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이라며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잠시 후 햇빛이 숲속 깊이 들어와서 엄마들이 급하게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뽀! 스트링 끈이 없어요. 엄마들은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즉석에서 끈 대용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쇼핑백 손잡이 끈, 비품을 담은 비닐 팩, 메고 온 에코백, 핸드백 체인줄, 뜨개질한 미니 핸드폰 등 누구라 할 것 없이 각자 가지고 온 물건에서 소용이 될 만한 것을 내어주네요. 그래도 끈이 부족하자 한 엄마는 스스로 본인 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겠다고 합니다. 모두의 협동 작업으로 드디어 시원한 그늘막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



는 것을 보니, 그 자체가 마을공동체 활동인 듯합니다. 오늘 헤프닝이 나중에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엄마들의 협동 작업으로 완성된 시원한 그늘에서 맛있는 간식을 즐깁니다. 아이들은 피자를 상자에 고정하는 작은 플라스틱 부품으로 즉석놀이를 하다가 다시 공원으로 하나둘씩 흩어집니다.

아이들도 관심사가 비슷한 작은 공동체 모임 같네요.

휴대폰 케이스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실험해보자는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운동을 하기도 하고, 텐트 가까이에서 낮잠 자는 토끼를 살피기도 하고, 텐트 속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직은 서먹해서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지면 엄마가 지원을 나섭니다. “몇 년생이예요?”라고 질문 하고는 아이들 말에 귀 기울여주며, 어린이집 이야기 등 아이들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줍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양함을 존중해주는 생활 속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 노는지 살펴보고 엄마들은 그제야 시원한 그늘에 앉아 편안하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엄마들 이야기의 주제는 역시 아이들이네요. 마을 공원에서 건강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교외로 캠핑을 온 것처럼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야외활동을 기획하고 물품 준비, 간식 준비, 아이들 챙기는 역할도 나누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한 발씩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꽃향기 나는 마을친구> 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에세이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신정글동네
주요활동	1. 나를 발견하기, 나를 추억하기, 키워드 글쓰기 2. '나를 위로하는 한 마디' 부채 만들기 3. 한지 공책 만들기, 글쓰기, 크리스마스카드 쓰기
활동지역	신정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들의 일상은 약간의 변주가 있을지언정 대체로 반복이다. 어느 날은 잘 풀려나가다가도 어느 날은 무언가에 묶여 한없이 맴도는 듯한 느낌에 갇히기도 한다. 이러한 지리멸렬함 속에서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난감하면서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글쓰기가 아닐까 하는 데 생각을 모은 이웃들이 모여 동아리를 만들었다.

모임을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건네준 글감을 받아들고 한 달 동안 그 글감을 친구삼아 비어있는 시간에 그 글감에 말을 건네고 생각을 보태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모임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감에 쫓기는 작가인 양 동동거리며 마무리 지었지만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다.

나의 글을 내 육성으로 읽어나갈 때의 그 발가벗겨진 순간이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하면서도 더없는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다. 서로의 글을 듣는 모임의 시간은 말로는 미처 다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내밀한 소리와 섬세한 기분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시간이었다. 글과 글이 만나는 색다른 경험들은 우리 자신이 글을 쓰기 전보다 더 좋은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느 학자가 글쓰기는 '독립하되 고립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생산적인 일이라고 했다. 우리는 각자 독립해서 쓰지만, 그렇게 쓴 글을 고이 들고 타인 앞에서 나눌 때 느끼는 애정과 연대감으로 코로나에 갇힌 2020년을 지나면서도 더 이상 고립되지 않을 수 있었다.



활동명
글로 '나'를 표현해보기와
원고지 쓰는 방법을 배워보기

일시
2020년 7월 23일(목)
10:00~12:00

장소
신정3동 열방교회 카페

7월 23일 오전 10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방교회 카페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신정3동 이웃만들기 <나를 찾아가는 에세이>팀의 두 번째 모임이 있었는데요.

<나를 찾아가는 에세이>팀은 양천구 내일그림 진로직업체험지원 센터의 진로교육지원단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던 중에 잊고 있었던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임 장소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집중해서 글쓰기 좋은 공간이네요.

먼저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글로 '나'를 표현해보기와 원고지 쓰는 방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알록달록



여러 색깔들처럼 글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듯 테이블 위에는 앙증맞게 색연필이 놓여 있습니다. 오고가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들이 나옵니다.

글쓰기를 가르치던 입장에서 직접 글을 쓰는 상황이 되니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쉽게 글을 쓰라고 강요했구나.”라고 자기성찰도 하게 되네요.

서로 '나'를 찾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도 권해 주었습니다. 각자 읽고 있는 책, 권하고 싶은 책 등을 가져왔는데, 특히 오나리 유코 작가의 '행복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을 읽고 소소한 물음과 대답을 나눠봅니다. 글은 간결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모임 이후에 각자 매일 한두 줄씩 써보기로 한 작문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글, 나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글로 다양한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연필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하고, 초록에 대한 미묘한 관찰로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 싫어했던 숙제를 대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최근에 회사 후배를 만나 응원 꽃다발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후배의 열정 가득한 모습이 부럽기도 했던 나의 감정을 담백하게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한 회원은 자신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성장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자신의 글로 연결하며 진지하게 이어갔습니다. 회원 중에 한 분은 글을 잘 쓰려면 계속 써야 하고, 특정 소재를 포인트로 하여 흐름을 엮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페이지라도 기승전결로 완성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서로 발표하는 글에 귀 기울여주고 감정을 이해하려 하고 칭찬하며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바로 이웃을 알아가는 마을공동체 활동 그 자체입니다.

이어진 순서는 200자 원고지에 각자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원고지 작성 글을 교정도 하며 주의해야 할 점도 나누었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동시에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학창 시절 소소한 일들 특히, 여행 이야기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여행을 가기 어려



왔던 시절 엄격하신 부모님이 허락한 배낭여행,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나, 내가 모르던 나의 성향을 만나게 되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기보단 그 시절을 자녀들에게 투영해보면서 앞으로 더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작은 분수가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었는데 마치 주민모임을 응원이라도 하는 것 같네요.

마무리 시간에는 주민모임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각자 인생 그래프도 그려보자고 했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통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한 달에 1개의 주제로 글을 쓰기로 하고 모임 소통방에 바로 공지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두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세 번째로 마음에 담았던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써 보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 써보며 나를 찾아가는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 날짜는 8월 20일 목요일로 정합니다. 이 모임의 특이하고 재미있었던 점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회계 정산 역할을 한 사람이 고정으로 하지 않고 회원들이 두 달씩 돌아가며 역할 분담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글과 마음을 나눌 뿐 아니라 역할까지 자발적으로 아름답게 나누며 함께하는 <나를 찾아가는 에세이> 팀의 멋진 글쓰기 여정을 응원합니다.



사진으로 소통하기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매일사진
주요활동	1. 사진으로 일상을 담아 공유하기 2. 스마트폰 사진 촬영 배우기 3. 스마트폰 속 사진을 출력하여 나만의 포토북 만들기
활동지역	신정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2019년 10월 양천문화재단 달달라떼 사업에서 '사진을 활용한 네트워킹 방법' 강의 후 매일 사진 3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함께 카톡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포토북을 만들어 전시도 하면서 모임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회원분들이 있었다.

2020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매일사진 프로젝트를 이어나갔다.

'오후 3시에 내가 있는 곳의 풍경 나누기/내가 좋아하는 컬러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고 소통하였다. 장마가 길었던 그 여름 날 쌍무지개가 뜬 것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였고, 코로나로 특별해진 일상을 기록하여 소통하기에는 사진만 한 도구가 없었다.

10월 13일 사진 전시 행사는 회원들에게 다른 의미가 있었다. 혼자서만 간직하고 회원들하고만 나누었던 나만의 사진을 작품 전시회를 통해 신정3동 주민들과 나눌 수 있었다.

매일 찍었던 사진들을 나만의 포토북에 붙이고, 일상을 기록하는 글쓰기를 하여 포토북을 완성하였다. 좀 더 많은 분이 포토북을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2020년 기억하는 각자의 기록물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또한 신정3동 주민들의 일상도 사진인화 활동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다.

사진이라는 매개는 나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20년 일상이 특별해진 그 순간의 기록을 사진으로 소통하기 팀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활동명
우리모임 뽀뽀뽀:
사진 전시 & 사진 인화 체험

일시
2020년 10월 13일(화)
11:00~13:00

장소
연의생태공원 힐링텃밭

한 철학자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은 자연을 모방하지 않고 그대로 담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진처럼, 이웃끼리 서로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른바 ‘소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사업에 선정된 <사진으로 소통하기>입니다.

마을주간을 맞아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연의생태공원 힐링텃밭에서 <사진으로 소통하기>팀은 작은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찍은 사진도 전시하고, 이웃들과 함께 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위축되면서 외부 출사 또한 상당히 제약을 받았는데요. 올해 4월 벚꽃 모습을 담고자 안양천 출사도 기획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변 공간에 있는 대상을 위주로 사진에 담는 것이 주요 활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은 한 달 내내 작자가 매일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요.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하나둘 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일정한 주제를 주고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좋아하는 색이 들어 있는 대상 찍기, 오늘 오후 3시 현재 나의 모습 찍기 등 입니다.

<사진으로 소통하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조직된 마을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사진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고가의 사진 장비를 갖추고 있는 모임도 아니고요. 조직된 마을사업지는 사진을 전공했고 심리학도 공부해서, 회원들에게 이른바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배운 내용과 접목하여 사진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잘 진행되면 조만간 사진을 통한 마을 활동의 발전된 사례를 남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제약을 받게 되자 조직된 마을사업지는 화상회의로 대신했는데요. 3차례에 걸친 화상회의를 통해 회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해 평가도 하고, 평가 내용은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날 전시된 사진들은 9월에 찍은 사진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전시된 사진 작품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작품 사진들입니다. 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모임이 추구하고 있는 ‘사진으로 소통하기’도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주민들도 오며 가며 전시된 작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격려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날 이웃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스마트폰 사진의 현장 인화 체험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와이파이로 연결된 인화기로 전송한 후, 간단한 조작으로 금세 사진이 인화되어 출력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합니다.

평소에 찍어놓은 자신의 반려동물 모습을 인화지에 출력하여 사진으로 받은 주민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회원들이 출력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케이스에 넣어 제공해줌으로써, 주민들은 이웃의 정을 느끼며 상당히 고마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변 직장의 직원들 몇몇이 찾아와 사진 전시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시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임에 동참하고자 가입 의사를 밝힌 주민들도 있습니다. 사진에 취미가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회원이 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머지않아 분명히 회원이 늘어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으로 소통하기>팀은 사진의 대상을 찾아 움직입니다. 회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겪은 코로나 극복 사례를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삶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사진 촬영은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언가 생산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해주었다.’

사진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모임의 이번 체험 행사는 주민들에게 작은 소리만 전해준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회원들은 그 작은 소리가 큰 울림으로 돌아와 더 많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비록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상 나누기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동그라미
주요활동	1. 치킨 커리 만들기로 인도 문화 배우기 2. 건강 빵 함께 만들기 3. 마스크 줄 만들기
활동지역	신정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웃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고 지냈는데 지인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소개받고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함께 의논하고 행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분들과 만남,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직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마을 사람을 알게 되었다.

소통하면서 웃을 일도 많이 생겨서 신이 난다.

인도에서 8년을 살고 한국에 들어오신 이웃분께서 치킨 커리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였다.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인도의 문화와 다양한 에피소드 등 너무 재미있게 들었다.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다른 인도 음식도 만들어보고 인도에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국, 우리, 나밖에 몰랐는데, 함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활동명
만들어서 나눠요:
인도커리 만들기

일시
2020년 9월 19일(토)
11:30~13:30

장소
신정3동 신정이펜하우스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청량하게 느껴진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신정3동 신정이펜하우스에서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소소한 일상 나누기>팀의 '만들어서 나눠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소소한 일상 나누기>팀은 신정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모임으로 이웃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밥을 함께 해먹으면서 이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지인들과 마음을 모아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이웃과 서로 어색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도 부모님과 유대관계를 가질 만한 활동을 안 하고 지내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웃끼리 정을 나눌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사업명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으며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동네 아이로 함께 일상을 나누며 이웃의 정을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엄마들과 청소년 자녀들은 동네 마실 나와 이웃집 거실에 내 집처럼 편하게 놀러와 있습니다. 엄마와 동행한 6개월이 안 된 어린아이부터 5살 유아에 중학생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어울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시간이 없다고 청소년 자녀만 보낸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동네 엄마들이 편하게 대해주는가 봅니다.

오늘은 '만들어서 나눠요' 활동 중 인도 치킨 커리와 로띠를 만들어서 함께 먹으며 일상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리는 인도 하이데라바에서 7년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이웃 주민이 주도해서 진행하는데요, 활동 부제도 달아줍니다.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카레와 커리는 완전히 다른 요리라고 하네요.

거실에 놀던 아이들도 카레? 커리? 하며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사이 주방의 엄마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는 인도 커리가 일본 스타일로 변형된 인스턴트 요리이고 인도 커리는 우리나라 찜닭 같은 요리라고 합니다. 인도 커리의 기본 재료는 적색 양파와 토마토라고 하네요. 매운맛은 고추로 조절하고요. 우리나라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요리 준비를 하는 엄마들은 역할 분담을 하는데요. 야채를 썰고 다음 재료를 준비해주고 다 쓴 재료와 그릇들을 치우는 3인의 움직임은 거의 어벤져스 같습니다. 요리와 뒷정리, 인도 요리 설명까지 동시에 진행합니다.

거실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보다 어린아이를 돌보는데요.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를 정성껏 안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요리하는 엄마에게 같이 가보기도 합니다. 귀여운 꼬마 아기도 언니들과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5살 오빠는 거실에서 동네 누나들의 귀여움을 한껏 받으며 이리저리 장난치고 이야기하네요.

주방은 이미 동네 주방으로 변해 북적북적, 보글보글 요리를 합니다.

인도 요리의 90% 이상에 강황이 들어가고 강황은 간이 전혀 안 되어 다양한 요리에 뿌려 먹기에 좋다고 합니다. '맛살라'라는 향신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 향이 강하게 나고요. 인도 커리는 점성이 있지 않고 집집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감자, 당근이 안 들어가니 신기하다."라고 하면서도 요리에 기대감이 큰 듯합니다.

또 다른 요리 '로띠'는 '짜빠띠'라고도 하는데요. 통밀가루를 반죽하여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일상적인 인도 요리입니다. '난'과 유사하지만 '난'은 화덕에 구워야 하지만 짜빠띠는 화덕 없이도 요리가 가능하여 인도에서는 아침 식사로도 자주 먹는 요리라고 합니다. 커리를 싸 먹기도 하고 잼을 발라 먹기도 한답니다.

반죽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해보며



“우리 수제비 반죽이랑 같네.”라며 생각보다 쉽다고 하네요. 비슷한 요리 또띠야 이야기까지 토요일 정오의 주방은 맛난 향이 나는 요리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누나들과 놀던 5살 꼬마 친구는 주방에 들락날락하며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엄마들의 요리도 보고 언제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네요. 시장한가 봅니다.

서둘러 상을 차리는데요, 아이들이 편하게 식사하라고 거실에 별도로 상을 차려주네요. 아이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를 외치고 마치고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듯 동네 엄마들과 둘러앉아 인도 이야기, 커리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하하 호호 토요일 점심을 함께합니다.

인도 커리 향도 좋고 인도 스타일로 손으로 먹어보자고 하고서는 그래도 김치가 제일 맛나다고 마음이 모아지자 그럴 줄 알았다고 한바탕 웃네요. 인도 커리와 로띠가 묘한 매력이 있다고 요리해준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도 표시합니다.

따뜻한 집밥이 그리운 건 그 식탁에 함께하는 사람과의 이야기와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내 집의 부엌을 정겹고 즐거운 동네 식탁, 동네 부엌으로 내주고 이웃과 이웃의 자녀들까지 기분 좋은 끼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나누기>팀의 다음 활동도 응원합니다.



시니어들의 건강한 행보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행복한 보드
주요활동	1. 보드게임 키트 나눔 2. 보드게임 만남 3. 이웃과 음식 나누기
활동지역	신정6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신정6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월드 보드게임을 배웠던 수강생들 중에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나아가 신정6동 주민들과 어우러지기 위해 마을 잔치에서 보드게임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모임이 원활하지 못하여 걱정이 많이 되었다.

7월부터 모임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던 분들이 코로나19로 모임에 나오는 것을 걱정스러워하기도 했다. 신정6동 주민자치센터도 올해만큼은 장소 제공이 되지 못해서 놀이터나 야외에서 보드게임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실내에서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놀이터에서 아이가 아닌 어른들이 보드게임을 하는 것은 누구도 싫어하는 상황이라 더 난감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14단지 경로당과 관리사무실 회의실에서 모임을 하거나, 사슴놀이터에서 작은 모임을 하기도 했다. 나오시는 참여자분이 주변분들을 모시고 와서 힘든 상황에도 이웃이 참여해주셔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보드게임 키트 제작 준비를 하면서 가장 적은 재료로 어린 친구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였다. 말과 말판, 플레이 카드를 준비하면서 함께 보드게임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행복한 보드모임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활동명
첫 만남

일시
2020년 7월 15일(수)
10:00~12:00

장소
목동아파트 14단지
사슴어린이공원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목동아파트 14단지 내에 있는 작은 놀이터 ‘사슴어린이공원’에서 신정6동 이웃만들기 사업인 <시니어들의 건강한 행보>팀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의 건강한 행보>팀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50대 이상의 이웃 주민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특히 보드게임을 통해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수리력, 이해력, 사고력을 키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가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임 시간이 가까워지자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오시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놀이터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눕니다.

오늘은 첫 만남이라 보드게임보다는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다른 회원이 놀이터에 들어섰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모두들 얼굴에 함박 웃음을 띄며 좀 늦게 도착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웃이 참 예쁘네요!”

칭찬 세례도 이어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깔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들뜬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천진난만한 소녀들 같습니다.

‘시니어’ 모임이라고 하지만 시니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고 활기찬 모습이어서 마치 ‘젊음의 향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지 말고 이리로 와서 앉아요.”

첫 모임이라 조금 서먹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정답게 다가서는 말 한 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얘기 좀 나누다가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오늘은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야외활동 때는 저기 나무 그늘에서 고구마 같은 간식을 싸와서 먹어도 좋겠어.”

별써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는지 만나서 무엇을 할까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네요. 그리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파이팅!”



공감대를 통한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행복한 이웃~ 행복한 바느질
주요활동	1. 바느질 참여자 확대 2. 바느질로 소품 만들기 3. 마을공동체 한마당(찜질팩 만들기 체험)
활동지역	신정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행복한 이웃~ 행복한 바느질>, 이 모임명 참 맘에 들어요. ‘행복하다’는 일상의 단어들 이 멀 게 느껴지는 지금이잖아요.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우울하던 차에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모임명만큼이나 행복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해봤던 바느질, 프랑스 자수를 했어요. 집에만 있었음 ‘확진자’되어 뒹굴거리고 있었을 시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덤으로 예쁜 찻잔 받침, 꼬꼬닭 액세서리함, 예쁜 가방도 만들었네요. 꼬꼬닭 액세서리함에는 예쁘게 자수도 수 놓았고요. 40년 만에 해보는 자수가 서툴렀지만, 지금은 일 취월장하는 언니들 보면서 저도 욕심이 생겨 자투리천에 이런저런 수를 놓아가며 작은 소품들 을 만들어보았답니다.

10월에는 ‘행복한 바느질’이라는 공방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바느질 수업도 했어요. 따뜻한 겨울,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배움이 찜질팩과 눈 찜질팩을 만들었는데 호응 이 참 좋았답니다. 예쁜 꽃이 수놓아진 찜질팩을 40여 개 만들어 기증도 해봤고요.

같이 수다도 떨고 고민도 나누며 찻잔을 기울이는 이웃들이 생겨서 참 좋아요.

이런 게 행복이겠지요?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이런 시간 아니면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싶으니 함께하자 권유했던 그 지인이 참 고마워지네요.

마을동신원



활동명

우리모임 뽀뽀뽀:
찜질팩 만들기

일시

2020년 10월 13일(화)
16:00~18:00

장소

신정4동
올리브의 바느질이야기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4시, 올리브의 바느질이야기에서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우리모임 뽀뽀뽀 프 로그램으로 <공감대를 통한 이웃만들기>팀의 ‘찜질팩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공감대를 통한 이웃만들기>팀은 2020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었고 바느질을 매개로 마음을 치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주민모임입니다.

오늘은 대표제안자 세 분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찜질팩을 만드는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벌써 대표제안자분들과 주민 몇 분, 그리고 공간지기 김영경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 찜 질팩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찜질팩은 두 가지 종류를 만드는데 하나는 눈 찜질을 위한 것으로 천에 안대와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 었고 이것을 모양대로 박음질한 후 안에 팔을 넣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 찜질팩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 안에 현미를 넣는 것인데 이것은 어깨나 허리, 배 등 몸의 어떤 부위에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서 창구멍을 남기고 모양대로 박음질한 후 용도에 따라 팔이나 현미를 넣고 창구멍 을 공구르거나 감침질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입구 쪽에 완성품이 놓여 있어서 벌써 이렇게 많이 만드셨나 했는데 이번 마을주간에 주민모임들이 만

든 물품을 모아서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증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팀원들이 만든 것은 기증하고 주민들이 만드는 것은 기념으로 가져가도록 한다고 하는데 바느질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간지기 김영경샘도 일손을 돕기 위해 재봉틀로 박음질을 하기도 하고 체험하러 온 분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대표 제안자분들도 한편으로는 찜질팩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등 바쁘게 움직입니다.

“박음질하고 뒤집을 때 안쪽의 사각 모서리를 자르지 말고 그냥 뒤집으면 두께가 있어서 더 좋아요.”

“현미를 조금 더 넣으세요. 많이 적어요.”

“속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네요. 좀 빼세요.”

주민이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세세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마을공동체 한마당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흥미를 나타냈습니다. 즐겁게 대화하면서 만들다 보니 어느새 한 개 두 개 찜질팩이 완성되고 너도나도 완성된 찜질팩을 안대처럼 눈에 대보고 시원하다며 뿌듯한 미소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찜질팩은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찜질팩이라서 만드는 재미와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을 배운다는 생각에 모두 좋아했습니다. 체험을 함께하면서 이웃도 사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웃고 즐기면서 바느질을 하다 보니 예정된 2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대표제안자분들은 조금만 더 만들고 가겠다고 자리를 뜨지 않으려 했습니다. 완성된 찜질팩을 비닐봉지에 모으면서 15개만 더 만들고 가겠다고 합니다. 좋은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 좀 더 성의를 다해서 좀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와 닿네요. 이러한 마음이 오늘 활동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풀고 잇고 품고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기워짓다
주요활동	1. 마을공동체-가족 네임 태그 만들기 2. 샌드위치 만들기 3. 텀블러 가방 만들기
활동지역	신정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올해는 코로나19와 어쩔 수 없이 함께한 한 해였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또 남편은 재택근무를 하고...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언택트,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단어와 강제로 친숙해져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외롭던 와중에 이웃을 위한 마스크 만들기를 하게 되어 함께하고 나누는 즐거움에 중독되고 있었다. 봉사는 중독성이 있었다.

마스크 만들기가 끝날 때 즈음 ‘이웃만들기’ 사업을 알게 되었고, 같이 마스크 만들던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동네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겁 없는 도전이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인 가족 네임 태그 만들기는 키트를 만드는 것부터 중노동이었고 대량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코로나는 더욱더 기승을 부려 참가 신청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도 큰 부담이었다. 공원 한 곳에 테이블을 펴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서 인원을 채우고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가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웃들과 작품을 만든다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완성 작품을 보며 뿌듯해하시는 분들을 보며 기분이 좋았고,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바자회 상품으로 나온 네임 태그를 보니 너무 흐뭇했다.

만약 올해 ‘이웃만들기’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아마도 코로나라는 두려운 상대 때문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다. 물론 활동을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또 활동을 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 사실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 친해지기란 쉽지 않다. 10년을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옆집도 잘 모른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웃과 시간을 보내고 또 자녀나 내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이웃을 만나게 된 것 같아 의미 있는 한 해가 된 듯하다. 속상한 일이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눌 이웃들이 많이 생겼다. 덕분에 진짜 이웃을 만났다.



활동명
우리모임 뽐뽐뽐:
가족 네임 태그 만들기

일시
2020년 10월 12일(월)
16:00~18:00

장소
신정4동 은행정어린이공원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올리브의 바느질 이야기에서 <풀고 잇고 품고>팀의 ‘가족 네임 태그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풀고 잇고 품고>팀은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었고, 바느질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면서 자녀를 키울 때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고민을 서로 풀어주는 취지에서 모임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활동은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나눔과 배려라는 행사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들과 가족 네임 태그를 만들어 기증할 예정입니다.

행사 장소는 원래 실내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고 지나는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근처 공원으로 테이블을 옮겨 진행하였습니다.

공원에 자리를 잡으니 오고 가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러오셨는데요. 공원에서 아이들 노는 것을 지켜보던 엄마도 한 번 해보겠다고 자리에 앉고 길을 지나던 젊은 여자분도 동참하였습니다. 테이블 세팅하는 것을 도와주신 박진갑 센터장님도 자리에 앉아 함께 바느질을 합니다.

네임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 모임의 대표제안자인 김세영샘과 신혜영샘이 가르쳐주었는데요. 두 분이 실 꿰는 방법부터 매듭짓고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주어 가족 바느질을 처음 해

보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네임 태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다양한 색상의 네임 태그 재료와 실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임 태그는 바느질하기 쉽도록 사전에 바느질 구멍을 뚫어 준비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증할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전 준비에 애를 쓴 대표제안자분들의 정성과 노고가 엿보입니다.

가족 바느질은 일반 바느질과는 달리 실에 왁스 칠을 해준다는 것이 특이하였습니다. 왁스 칠을 해주면 실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양손 바느질을 하는데 초보자들은 양손으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어렵기에 한 손으로 바느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우선 가족 네임 태그와 끈에 에치코트라는 마감재를 발랐습니다. 에치코트는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인데 한 번 바르고 말린 후 다시 한번 바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색깔의 실을 골라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맞춰 홈질하듯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모두 멋진 네임태그를 만들기 위해 색을 고르는 것도 신중합니다.

“무슨 색이 좋을까?”

“노랑이나 빨간색도 괜찮을 것 같아.”

“핑크에는 이 색이 예뻐요.”

이렇게 네임 태그를 고르고 이것에 연결될 끈 색깔, 실 색깔을 맞춰보면서 서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신혜영샘이 어울리는 색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마주 앉아 바느질하니 지금까지 몰랐던 이웃도 알게 되고 말을 트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집안일, 자녀 키우는 일, 어릴 적 추억 등 등 끊임없이 대화가 오고 가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작업하니 바느질도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네임 태그에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신혜영샘에게 이거 구멍이 없다고 말하자 샘이 “구멍이 없어졌네! 제가 어제 자면서 했나 봐요.”라며 당황해하니 모두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인 분들은 즐겁게 웃고 얘기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하고 김샘과 신샘은 좀 더 예쁜 바느질이 되도록 부분 부분 고쳐주면서 “바늘을 사선으로 밀어줘야 예쁘게 되요.”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다들 손이 빠르고 또 열심히 작업한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네임 태그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느질을 마치고 실의 튀어나온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자른 단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후 완성된 네임 태그를 들고 모두들 기



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종이에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등 사용하실 분에게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 네임 태그에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정성들여 만들어진 네임 태그를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증하여 그 판매 수익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행사를 마칠 시간이 되자 테이블 위에는 완성된 네임 태그가 예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눔과 배려라는 행사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네임 태그를 받는 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의미 있는 활동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나눔을 통한 행복 전하기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옥상정원
주요활동	1. 옥상 텃밭 작물 키우기 2. 매월 1회 반찬 만들기 3. 작물, 반찬 나눔
활동지역	신정2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나눔을 통한 행복 전하기>팀은 4년 전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처음 만났다. 남편, 아들이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복지관 옥상의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매일매일 복지관 옥상에서 만나던 사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모이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이번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한 달에 2-3번은 꼭 만나게 되었다. 주마다 작물 관리를 하며 옥상에서 여러 텃밭 작물들을 가꿨다. 시금치로 시작해서 상추, 고추, 아욱, 부추, 콩, 깻잎, 쪽갓, 파, 무, 알타리무 등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 절기마다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이웃들에게 나눴다. 그리고 텃밭의 작물과 매월 특색 있는 반찬들을 만들었다. 여름에는 고추와 깻잎을 이용한 반찬을 하고, 8월에는 삼계탕, 추석에는 전, 11월에는 김장 이렇게 매월 모여서 반찬을 만들고 이웃들에게 직접 나눔까지 진행했다.

또 나들이를 한 번 같이 다녀오면서 구성원들이 더욱 돈독해졌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모임에 함께한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옥상에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숨이 트이고, 행복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차츰 모임의 구성원들은 가족이 되어간다.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힘이 되고, 또 다른 가족이 되었다.



활동명
삼계탕 만들기

일시
2020년 8월 14일(금)
13:00~15:00

장소
양천해누리복지관 1층

말복을 하루 앞둔 8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나눔을 통한 행복 전하기>팀의 삼계탕 만들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는 삼계탕 끓이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날은 중증장애인을 남편으로, 아들로 둔 분들이 삼계탕을 끓여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추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몸과 마음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복날 많이 먹는 제철 수박도 몇 통 잘라 복지관에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닭 10마리를 깨끗이 씻어놓고, 여러 가지 부재료들도 준비합니다. 해누리복지관 내에는 음식 취사를 할 수 있는 주방 시설들이 있어 이날 모임 장소로는 안성맞춤이랍니다. 한 끼 밥을 같이 먹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각자 맡은 바 일을 다시 확인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왜 이리 안 끓지? 가스가 다 됐나벼.”

“바뀌봐 얼른~ 봐! 대번에 끓잖여.”

오고 가는 대화가 정겹네요. 곁에서 들으니 한 집안 식구들 같네요.

“잡쌀 많이 넣으면 안 익어.”

“삼계탕은 그래도 더 넣어야 해.”

한 회원은 잡쌀을 연신 더 집어넣습니다. 살아온 삶이 다르듯이 삼계탕을 만드는 방법도 제각각이겠지요. 그래도 오늘은 호흡이 잘 맞는 편입니다.

<나눔을 통한 행복 전하기>팀은 4년 전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 아들이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복지관 옥상의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족을 두었다는 동병상련으로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6명의 회원은 대표제안자인 민병순샘을 비롯해 모두 70대 중반으로, 중증장애인 가족을 돌보면서 기력도 많이 떨어졌고 몸이 많이 부대졌지만 얼굴 표정만은 모두 밝습니다. 늘 같이하는 회원들이 이제는 가족 같은 이웃으로,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드는 삼계탕은 말복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마을의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나누고자 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직접 가져다주면 더 정겹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나 아들이 겪는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주변의 장애인들도 남이 아닌 가족으로, 이웃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초복과 중복 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말복까지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삼계탕용 닭 10마리를 준비했고, 부재료로 대추, 황기, 쑥나물, 인삼, 마늘, 밤, 은행, 잡쌀 등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준비했습니다. 가족 같은 이웃이 먹는 음식이라 더 신경 쓰는 듯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어렵기에 오늘은 한 끼 식사를 직접 전달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삼계탕이 끓고 있는 동안 잠시 쉬고 있으려니, 옛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지나온 시절을 제각기 회상도 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도 회원들의 마음은 끓고 있는 삼계탕 쪽에 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끓이면 닭이 몽그러져서 맛이 없어.”

결국 교대로 불을 살피보면서 삼계탕이 적당히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니 맛있는 삼계탕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나눔을 통한 행복 전하기’라는 말 그대로 주변의 다른 장애인들과도 함께하며 행복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만드는 삼계탕은 한 끼의 삼계탕을 통해 소통의 장도 넓혀보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질 삼계탕은 분명히 행복도 함께 전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 텃밭에서 가꾼 고추, 가지, 깻잎, 부추, 방울토마토 등 수확물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옥상 텃밭을 가꾸면서 피곤함도, 삶의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옥상을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확물을 가져갈 수도 있는 ‘이웃의 공간’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13:00

장소
양천해누리복지관 1층

참여자
민병순(대표제안자)

진행자
이호중(마을기록지원단)

1. 어떻게 마을 활동을 하게 됐나요?

양천해누리복지관에 나오시는 분 중에 가족이 장애인인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장애인인 남편, 아들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무언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옥상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이때 서로 알게 된 분들끼리 마침 '이웃만들기'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만이 아닌 다른 장애인 가족들까지 참여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2.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중증장애인 가족을 두었다는 동병상련으로 수년 전에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임 이름도 처음 같이 만났던 장소였던 옥상 텃밭을 생각해서 <옥상 정원>으로 정했습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로 서로 다가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알리고 참여시킨다는 것은 어렵지만, 복지관을 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분들과 얘기를 꺼내기가 비교적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의 <옥상정원>에 함께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주변분들에게 동참을 권유했고, 지금은 8가족으로 확대됐는데, 모두 20명 가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3. 복지관 옥상의 텃밭이 마을 활동 공간으로서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가 있었군요?

옥상 텃밭이 당시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는데, 그곳을 우리가 잘 가꾸어 정원처럼 꾸미고, 작물도 재배해보겠다고 협의를 하게 됐지요. 복지관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정성을 들였습니다. 많은 종류의 채소를 가꿔서 수확도 하고 그것으로 반찬도 만들어 장애인 가족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상추, 쪽, 고추, 가지, 파 등을, 가을에는 알타리무 같은 채소를, 겨울엔 내년 봄 수확을 목표로 시금치도 심었습니다. 올해는 김장도 이곳 옥상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옥상 텃밭에서 함께하면서 작물도 수확하고, 소통도 하고, 우리에게 이곳 옥상 텃밭은 마을 활동의 공간으로서 남다른 의미를 갖게 합니다.

4. 마을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을 활동을 할 때도 항상 장애인 남편, 아들과 함께 움직여야 하고, 또 사정이 모두 같을 수가 없어서 함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치료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모여서 사람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지내고 싶지만 아쉬울 때도 있어요.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 자체가 제약이 많이 받았고, 다른 활동을 생각해보려 해도 여건이 충족되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복지관 측에서 저희 활동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을 지원해주는 복지사님도 한 분 계세요. 외부와의 소통, 정보 교환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복지사님이 중간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순 대표 등 참여자들의 가정은 대부분 '중도 장애인 가정'입니다. 남편 혹은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움직임도 많이 불편한 그런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장애인인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민 대표도 장애인 아들이 30세에 쓰러진 후 올해 51세가 됐으니 벌써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마을 활동을 하는 이웃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서 굳이 불편한 면을 내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 활동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 올해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7월부터 매달 1회씩 ‘반찬 만들어 나누기’를 했어요. 고추멸치볶음, 깻잎, 버섯, 잡채, 제육볶음 등, 여름에는 삼계탕도 같이 끓였어요. 옥상 텃밭의 작물이 많을 때면 그 수확물을 활용해서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함께한 우리만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서 나들이가 어려운 이른바 <재가 장애인 가족>들에게 나눠 드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이 조금 나아진 10월에는 모처럼 멀리 나들이도 해봤습니다.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8가족이 함께 다녀왔어요. 복지관에서 차량도 지원해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남편, 아들들만이 아니라 우리 참여자 모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6. 마을 활동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보는다면 어떤가요?

지금처럼 서로 만나서 알고 지내면서 활동하기 전에는 사실 동네에서 하는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 남들처럼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감정표현도 자제하면서 살아 오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저 자신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의 심정에서 시작한 마을 활동이지만, 이제는 세상에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적극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마을 활동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마을 활동을 하려면 본인들도 건강해야 할 텐데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나요?

매년 느낌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힘이 들어도 내 아들과 함께하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하는 일하기에 재미도 느끼면서 보람도 키웁니다.

건강을 위해 이른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계남공원 근처 야산으로 등산을 다닙니다. 그곳에서 매일 체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체조도 하고, 걷고, 대략 2시간 정도 합니다. 저 자신도 건강해야 우리 아들도 잘 지켜줄 수 있고, 우리 모임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웃만들기 마을 활동 ‘나눔을 통한 행복 전하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민 대표를 비롯, 대부분 70대 중·후반의 연령대입니다. 마을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고령층입니다. 비록 나이는 있지만 장애인 가족을 돌보면서 이웃도 알게 되었고, 그 이웃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입니다.

8. 바람직한 마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서로 인사하면서 알고 지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이야기만 아니라, 보다 더 속 깊은 얘기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스스로 다가가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아무 문제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9. 2021년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년에도 마을 활동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사귀게 된 이웃들이 계속 함께하면서 같이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관과 협의해서 옥상의 텃밭을 더 확대했으면 합니다.

옥상 한쪽에 텃밭으로 가꿀 만한 공간이 있어 잘만 가꾼다면 꽃밭 가꾸기 등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텃밭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닌 만큼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공생 공영의 삶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해바라기 엄마들
주요활동	1. 아기자기 만들자 2. 오순도순 가보자 3. 다문화 동화책 읽기
활동지역	목2동, 목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결혼이민자로서 목동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서 옆집, 옆동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목동 지역의 주민 구성원으로서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 가정들과 잘 교류하면서 정착하여 살고 싶다. '아기자기 만들자' 활동으로 건강 팔찌, 도자기, 달고나 커피도 함께 만들고, 김장을 담그기도 했다. '오순도순 가보자' 활동으로 용왕산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정목어린이공원에서 주민들과 상추 모종 나누기를 했다.

마을주관을 통해 다문화 동화책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국분들과 같이 진행했다. 여러 가지 활동이 수단이자 매개체로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장이 생겼다.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여러 가지 활동도 모두 재밌었고, 운영할 때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활동이 끝나서 아쉬웠고, 또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간담회

일시
2020년 7월 10일(금)
17:00~19:00

장소
목4동 애플당당스튜디오

7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목4동 애플당당스튜디오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공생 공영의 삶>팀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다문화가정과 함께 공생 공영의 삶>팀은 올해 처음 신설된 구단위 이웃만들기에 선정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마을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다문화'라는 틀을 넘어서 제대로 가까운 이웃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 앞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며 서로 열심히 하자며 마음을 다져봅니다.

그리고 함께한 마을지원활동가샘을 통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회의록도 꼼꼼히 작성합니다.

먼저 7월과 8월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해봅니다. 모임 현수막 만드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를 받아 다음 모임 전에 만들어보려 합니다.



우선 7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애플당당스튜디오에서 도자기 만들기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둘째 주에는 '건강 팔찌 만들기'도 하려 합니다.

모임 참여자들은 결혼이민자로서 목동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공동체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만들려는 마음이 옆집, 옆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어울려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아닌 우리 동네 이웃으로 교류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더욱 애착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끼리 마음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3일(목)
10:00

장소
목4동 애플당당스튜디오

참여자
구와하라 아끼꼬(대표제안자)

진행자
이정화(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25년 이상을 목동 지역에 살면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이 아닌 언니 동생 하는 친한 사람들이 안 생겼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 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 해서 신청해보았어요.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나요?

일단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도 있고, 근처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있고, 같은 건물에 계시는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 같이해주신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일단 여러 작품을 함께 만들어보기로 했는데, 도자기 만들기, 건강 팔찌 만들기를 했습

니다. 또 상추 나누기, 김장해서 김치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만들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활동했어요.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요?

워낙 회원들이 많지 않아서 10명 정도인데, 모이자고 하면 모이는데 그래도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같이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어요. 영상통화나 카톡, 라인으로 그룹을 묶어서 회의할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해 보았습니다.

5.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조율하였나요?

처음에 혼자 열심히 뛰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할 분담을 하자고 부탁해서 같이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눠서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고 중간 단계입니다.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같은 동네에 같은 외국인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던 사이가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과의 친한 만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역시 외국인들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한국분들과 함께하는 활동의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한국분들이 50%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어요.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후회도 있었지만, 혼자서 너무 힘들었지만 “다음에 뭐 하나요~”라는 기대감 있는 물음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 동네에서 단단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데면데면 만나고 헤어졌는데 모임 횟수가 갈수록 가족 이야기도 나오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제 결혼이민자들도 많아져서 경계선 없이 잘 어울려서, 벽이 없이 스며들어서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선배같이 한국분들과 가운데 다리가 되고 싶어요.

10. 내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일본, 중국, 한국분들이 함께 활동했는데,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좀 더 넓게 다른 나라분들을 알고 싶어요. 태국, 몽골, 베트남, 소개시켜 주시면 그런 그룹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11.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마: 마음을 열고

을: 을(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공: 공감하며

동: 동행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으시면

체: 체험을 해보세요.

모이고! 나누고! 친해지고!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새로운 나눔
주요활동	1.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2. 한끼 밥상 - 음식 나눔 및 담소 3. 마을 속 나눔 - 친환경 에센스, 수제청 만들기
활동지역	양천구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서로에게 공감하는 이웃이 되었어요.
 처음 장애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던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되었죠.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거나, 이야기를 하면 왠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생활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꺼려지고 성격이 예민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던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나눔>팀을 결성하게 된 거예요.
 처음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더 친해지고 쉽게 할 수 있는 활동 중이요.
 그러던 중 한 분이 “우리 그럼 단순하게 요리를 만들어봐요. 서로 만들면서 친해지고, 밥도 함께 먹고! 배부르게 헤어지고~ 일석이조 아닐까요?”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집에 모여 밥을 만들었어요. 항상 6명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메뉴로 정했지요. 식사를 통해 만나면서 친해지니 점점 우리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매일 모이는 집은 우리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그동안 이웃과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나눔>팀으로 변화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함께 할까요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모임명	어울림
주요활동	1. 함께 걸어요-걷기 활동 2. 함께 들어요-인권 강의 같이 듣기
활동지역	양천구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시각장애인들은 혼자서는 야외활동이 어렵고 같은 장애를 지닌 장애인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인 안내인들이 공원과 둘레길을 산책하며 건강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이웃과 관계가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함께 걸어요’ 활동으로 양천구의 공원과 둘레길을 함께 걷고, ‘함께 걸어요’ 활동으로 장애 인권 바로 알기, 인권은 돌아오는 거야라는 주제로 2회 차에 걸쳐 인권 강의를 같이 들었다. 신정산 둘레길을 걸었을 때, 여든이 넘으신 남성 참여자 한 분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보조를 맞추느라 다른 분들이 중간에 계속 기다렸다. 다음 모임에 오실 때 과자를 여러 개 가져오셔서 다른 참여자들에게 주시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셨다. 코로나19로 복지관도 문을 닫은 상황이라 갈 곳이 없어서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 힘들었는데, 같은 장애를 지닌 이웃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셨다.

새로운 이웃들과 걷기 활동을 통해, 친밀해지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자조 모임이 생겨서 좋았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장애 인권 교육 전문강사에게 강의를 들으며,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어울림 걷기

일시

2020년 7월 8일(수)
10:00~12:00

장소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신정1동)~장수공원

7월 8일 수요일 10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구단위 이웃만들기에 선정된 <우리 함께 할까요>팀의 ‘어울림’ 걷기 활동이 있었는데요.

신정1동에 위치한 파란(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에서 장수공원까지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함께 걸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10시, 오늘 활동을 위해 회원들이 하나둘씩 출발 장소에 모였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편한 옷차림과 함께 모두들 한껏 밝은 표정입니다.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 출발 전부터 이야기꽃이 만발합니다.

여름날의 더운 열기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하늘도 화창하고 장수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건널목을 건너 신정네거리를 거쳐 장수공원까지 그리 가깝지 않은 길을 회원들은 경쾌하게 걸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학생의 팔을 잡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서로 손을 꼭 잡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면서 도란도란 재미난 이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눈이 불편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서로 배려하며 걷는 동안 드디어 장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차도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공원을 한 바퀴 쭉 돌고 나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목도 마릅니다.
 의자에 앉아 한숨 돌리며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부채질도 하는 회원들 표정에서 긴 코스를 즐거운 마음으로 완주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야외활동이 쉽지 않은데요.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양천구 내의 공원과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건강도 함께 챙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돈독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정한 의미의 '어울림'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신트리공원, 계남공원, 안양천 둘레길 등을 함께 걸어볼 계획이라고 하네요~.
 더욱 뜻깊고 즐거운 다음 만남을 기대하면서 모두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할까요>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15:00

장소
 파란(신정1동)

참여자
 김영민(대표제안자)

진행자
 임재현(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홍보를 접하고 우리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마을 사업 전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분들과 친목 모임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3. 마을 사업명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그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혼자 다니기도 힘들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뭔가를 할 때 비장애인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갈 때 비장애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함께 하는 사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할까요’라고 지었습니다.

4. 회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구성원들은 대표제안자 3명과 다른 시각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들이구요. 제가 아는 분이 다른 분을 소개하는 식으로 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음알음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구요.

5. 주민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났는지요?

참여하는 분들이 초반에는 많았는데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해서 인원을 줄여서 했습니다. 참여자 중에는 강연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다가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6. 공동체 사업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주변에 이런 걷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걸으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걷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너도나도 참여하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했죠. 특별한 방법 없이 단순한 홍보를 통해서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7. 올해 어떤 활동을 했나요? 올해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요?

프로그램이 ‘함께 걸어요’가 있고 ‘함께 들어요’가 있거든요. ‘함께 들어요’는 인권 강사를 초빙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평소 생각지 못했던 점을 들으면서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어요. ‘함께 걸어요’는 양천구의 여러 공원들, 신트리공원, 신정산 둘레길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걸었는데 공기도 좋고 일단 운동을 하니깐 마음에 활력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집 안에만 있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활력을 찾았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일 수 있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는 점, 걸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인권 강의는 장애인에게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인권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계단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경사로로 바꾸어준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꾼 것인데 그렇게 하니깐 우리도 편하지만 다른 노인분들이나 아이들도 계단보다 경사로가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편하면 일반인들에게도 편하고 인권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은 15명 이상 더 모일 수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원을 제한해야 했던 것, 그게 아쉬웠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모였는데 활동지원사가 없는 분이 계셨어요. 혼자 오셨는데 걸을 때 1대1 매치가 안 돼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잡고 가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지원사가 없는 분을 우리가 지원사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서 한 사람이 두 분을 데리고 가야 했는데 그게 아쉬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8.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에피소드라면 신정산 둘레길을 걸을 때였는데 일행 중에 나이 드신 분이 계셨어요. 신정산 둘레길이 좀 기복이 심하고 험한 편인데 그분이 연세가 있어서 잘 걷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탓하지 않고 그분에 맞춰서 천천히 걸으면서 가다가 쉬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고맙다고 과자를 사서 돌리기도 하셨죠.

9. 올해 진행한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혹은 보람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요?

‘우리 함께 할까요’라는 사업명처럼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의미가 있었죠. 모든 활동이 다 의미 있고 보람 있었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함께 걷기’가 제일 의미 있고 보람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각장애인의 한계가 혼자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런 모임, 기회가 있어서 함께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일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10.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애로 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축소되어서 1대1 매치가 안 되었을 때 어려웠습니다. 정산하는 것도 좀 어려웠는데 이것은 마을지원활동가가 도와줘서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식비 지출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어려움이었는데 마을공동체 활동 중에 센터에 교육이나 모임 때문에 가야 할 때가 자주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눈이 불편하니까 혼자서는 갈 수 없고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같이 가야 하는데 그 분이 시간이 안 되면 힘들고 저 혼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모임을 제 입장에서는 좀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로 배려를 잘했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갈등 같은 문제점도 없었고 좋았습니다.

11.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의 지원은 만족스러웠나요?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쉬운 점은 특별히 없고요, 잘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2. 공동체 활동 경험으로 내가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람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장점도 있구나, 이런 성향도 있구나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고 전엔 사교적이지 못했는데 활동하면서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사교적이 된 것 같아요.

13. 내가 바라고 만들어가고 싶은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각장애인이 양천구에 약 1,8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많은 장애인들이 좀 더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집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생각도 같이하고 앞일에 대해 대화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함께 할까요’라는 사업명처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란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장애인 혼자서는 무언가를 하기 어렵고 비장애인이 함께 있어줘야 활동할 수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함으로써 양천구 마을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가와줄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안마나 침을 놓는 것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비장애인에게 해주고 비장애인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즉 어디를 갈 때 함께한다든지 하면서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모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걷기 프로그램의 답사 등을 했는데 제가 했던 이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14.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에도 하고 싶습니다. 모였던 분들이 걷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함께 걷는 행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또 요리나 떡 만들기 체험 등 손으로 하는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눈은 불편하지만 손으로 하는 것은 잘하니까 그런 쪽도 해보고 싶습니다.

15.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요.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데 밖으로 나오게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꼭 한 번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드림틴

“꿈꾸는 10대들의 마을 탐험”

공모사업 유형	시시콜콜 마을탐험대
주요활동	1. 영상 기획, 촬영, 제작 2. 나무와숲지역아동센터 영상동아리 아동들에게 영상 제작 교육 진행
활동지역	목2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드림틴 “꿈꾸는 10대들의 마을 탐험”팀은 시시콜콜마을탐험대 활동을 통해 기린청소년지역아동센터 영상동아리 청소년들이 배웠던 영상 기획, 촬영, 제작 기술을 나무와숲지역아동센터 동생들에게 교육하기로 했다. 그래서 동아리의 활성화와 목2동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년 is 뭔들’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 기린청소년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목2동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건전한 놀이공간은 어떤 곳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9월부터 2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곡을 정하고, 가사를 쓰고, 녹음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많았다. 그러나 하나하나 끝내갈 때마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가지고 교육할 때 끝까지 잘해보자며 그동안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교육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이끌어주는 색다른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시시콜콜 마을탐험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보이즈(The Boys)



공모사업 유형	시시콜콜 마을탐험대
주요활동	1. 재봉틀을 배우고 소품을 만들었어요. 2. 마을공동체 한마당 축제에 참가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했어요.
활동지역	신월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시시콜콜 마을탐험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마을 속에 있었으나 우리는 알지 못했던 소잉공방을 친구들과 함께 탐험하기로 하였다.

범블비쏘잉스튜디오에서 첫째 날은 재봉틀 사용법을 배웠고, 두 번째 날부터는 원단을 자르고 재봉틀로 박음질하며 에코백, 원핸들백, 스트링파우치 등을 하나씩 만들었다.

또 마을공동체 한마당 마을주간에 참여하여 지역 내 초등학교 동생들에게 양말목으로 티 매트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도 운영하였다.

처음 재봉틀을 배웠을 때는 살짝 긴장되기도 했다. 뽀족한 바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 대니 혹시나 손가락이라도 찢리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점점 기계가 주는 속도감에 끌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빠져들기도 했다. 마을 속에서 컴퓨터 게임보다 더 흥미진진한 재미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가방을 사용하고, 엄마에게 선물도 해주고, 또 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배우는 즐거움, 만드는 기쁨, 나누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고, 코로나로 학교 등교가 제한되면서 친구들도 못 만났는데 마을탐험대를 계기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다.

6주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굉장히 아쉬웠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줘야겠다.



활동명
업사이클링 양말목 공예

일시
2020년 10월 14일(수)
15:00~17:00

장소
범블비쏘잉스튜디오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 신월동 범블비쏘잉스튜디오에서 <보이즈>팀의 양말목 업사이클링 컵받침 만들기 진행되었습니다. <보이즈>팀은 2020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시시콜콜 마을탐험대에 선정된 팀으로 구성원이 남자 중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남학생들이 공예 등을 배우면서 모여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배운 것을 초등학교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활동과 연계하여 <보이즈> 회원들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양말목을 이용해 컵받침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가니 <보이즈> 회원 2명이 일찌감치 와서 벌써 아이들에게 컵받침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행복한 수작(手作)>의 마을사업지기이자 공간지기인 김창숙샘이 진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여자 아이 두 명이 앉아서 <보이즈> 오빠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각형 틀에 색색의 양말목을 걸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모르는 것을 오빠들에게 물어보고 오빠들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며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주었습니다. 또 동생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양말목 색깔을 같은 색끼리 모아주기도 합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더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공방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모두 양말목 체험을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김창숙샘은 어린 친구들이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동영상 틀어 공장에서 양말목이 어떻게 잘려나가고 버려지는지를 보여주며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말목을 이용해서 컵받침을 만드는 것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아 양말목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만드는 법은 이번에도 오빠들이 사각형 틀을 보여주며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가락으로 사각 틀에 박힌 열두 개의 못에 양말목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텐데 재미가 있는지 손가락이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모두 집중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 보는 것이라 역시 중간에 양말목 거는 것을 빼먹기도 하는 등 아무래도 손놀림이 서툴렀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도 하고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면서 잘 이끌어주었습니다. 양말목을 가로 세로 12개씩 교차로 못에 거는 작업이 끝난 후에는 “제일 어려운 것 가르쳐줄게.” 하면서 못에 걸렸던 고리를 빼서 왼쪽 것을 오른쪽 고리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매듭을 지어나가면 사각형 컵받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빠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차근차근 컵받침을 완성해나갔습니다.

같이 온 엄마들은 아이들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잘되고 있어? 손가락 안 아파?” 하고 걱정이 돼서 몇 번을 물어보지만 아이들은 “안 힘들어.” 하면서 킁킁하게 만들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드디어 컵받침다운 사각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리본 모양으로 매듭을 묶어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것은 오빠들이 대신 해줍니다. 컵받침을 완성하자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들고 좋아서 엄마에게 자랑하는데요. 재미가 붙었는지 또 만들겠다고 사각틀을 손에 잡습니다. 엄마들은 옆에서 색깔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아이들은 알록달록 양말목을 못에 걸며 두 번째 작품에 돌입하네요. <보이즈> 오빠들도 같이 양말목으로 컵받침을 만들며 아이들을 잘 돌봐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아이들이 만든 컵받침이 늘어나고 완성된 것들을 테이블 위에 놓아보니 한결같이 모두 예쁘고 멋집니다.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이런 멋진 컵받침을 만들 수 있다니 한편으론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오늘 좋은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말목 업사이클링으로 재미난 체험도 하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보이즈>팀의 좋은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1일(토)
10:00

장소

신월7동 범블비 쏘잉스튜디오

참여자

이찬희, 서성민,
윤성빈(대표제안자)

진행자

원은실(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강신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자중학생 3인 모임으로 친구의 추천으로 시시콜콜 마을탐험대를 알게 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함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시시콜콜 탐험대는 뭘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그냥 한 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지요.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재봉틀 사용법을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재봉틀을 이용하여 에코백도 만들고 양말목으로 티 매트도 만들어 나눔 활동을 했다.
10월 마을주간에는 마을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여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티 매트 만

드는 법을 알려주는 우리모임 뽐뽐뽐을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잘 따라주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받았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조금 영향을 받았지만 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았어요. 코로나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어느새 일상이 되어 익숙해졌습니다.

5.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 생각 차이는 없었나요?

구성원이 또래친구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경우는 없었고, 갈등도 없었어요. 이야기 하면 바로 쿨하게 진행했답니다.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가 있다면요?

(윤성빈) 컴퓨터 게임만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재봉틀이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다 손을 다쳤지만 재미있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서성민) 직접 만든 백을 엄마에게 선물했는데 받은 백을 엄마가 서랍 속에 간직하는 걸 봤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 아쉬운 점은 시시콜콜 마을탐험대 활동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재봉틀을 배우는 시간이 재미있었어요.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다면요?

활동기간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재봉틀을 배우면서 게임 말고 재미있는 일을 발견한 것이요. 시시콜콜 마을탐험대 활동을 통해 재봉틀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어 뿌듯합니다.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 (윤성빈) 아무 사고 없는 평화로운 동네면 좋겠습니다.
- (서성민) 나도 성빈이처럼 아무 사고 없는 평화로운 동네를 꿈꿉니다.
- (이찬희) 조용한 동네, 자연과 가까운 마을이면 좋겠습니다.

10. 내년 계획은요?

시시콜콜 마을탐험대의 <보이즈>로 한 번 더 활동해 보고 싶어요. 재봉틀로 만드는 작업을 함께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11.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 마: 마을에서
- 을: 을(얼)굴이
- 공: 공처럼
- 동: 동글동글한
- 체: 체육샘을 만났다 하하하

보라그림

공모사업 유형	마을나들이
주요활동	우리동네 그림잔치
활동지역	목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친구한테서 ‘마을공동체’ 활동 이야기를 듣고, 다문화 가정도 할 수 있고 동네 주민들도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시작하였다.
 마을에 있는 곳곳의 공원 풍경을 함께 그리는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두 명의 주민을 새롭게 사귀고 함께 활동하였다.
 다음에 또 같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다음에는 수채화 펜을 사용하여 그림그리기를 함께하고 싶다.





활동명
그림그리기

일시
2020년 9월 20일(일)
14:00~16:00

장소
달마을 근린공원

9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달마을 근린공원에서 다문화 주민모임 <보라그림>팀의 그림그리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보라그림>팀은 한국에 오신 지 20년이 넘는 대표제안자 하라요우꼬샘을 중심으로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마을나들이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2시가 되자 한 분 두 분 도착하시고요, 인증샷~ 찰카~ 사진 먼저 찍은 다음 안부인사를 나눕니다. 한참을 이야기 나누는 후 준비된 미술재료를 나누어 가지고 스케치를 하시네요. 참여자 야노샘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오늘을 위해 사모님과 함께 미리 풍경답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 포스로 물씬 풍기는데요. 하지만 야노샘의 그림보다 사모님과 함께 다니시는 풍경, 그 자체가 더욱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달마을 근린공원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비밀의 숲이라고 불리는 양천구의 숨은 명소라고 하네요. 깊은 밤 달맞이하기 딱 좋은 달맞이공원이라는데, 낮에도 싱그런 초록의 그림 스케치도 잘 어울립니다.

대표제안자 하라요우꼬샘을 중심으로 모여 소소한 인연을 맺으며 그림이라는 같은 취미로 서로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자며 즐

거운 웃음을 나누며 그림그리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모이자 전래놀이

공모사업 유형	마을나들이
주요활동	1. 한국과 일본 전통놀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한다. 2. 코로나로 집안에서만 지내던 엄마와 아이들이 야외에 모여 놀이를 통해 소통한다. 3. 이웃과 함께 놀고 다과회를 통해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날려 보낸다.
활동지역	신정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다문화 가정을 꾸려가면서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수다 모임을 자주 갖던 중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원을 받아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만났으니 아이들도 부모님 나라의 놀이를 통해 문화도 알게 해주었으면 했다. 코로나로 집 안에만 갇혀 있으면서 핸드폰, 컴퓨터, 게임에만 몰입하다가 야외에서 온몸으로 움직이며 친구들과 엄마와 함께 모처럼 즐기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아빠들도 같이해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활동 모임이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공기놀이

일시
2020년 9월 13일(일)
14:00~16:00

장소
신트리아파트 406동 옆 공터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청량감을 주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신정3동 신트리아파트 406동 옆 공터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마을나들이에 선정된 <모이자 전래놀이>팀의 공기놀이 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모이자 전래놀이>팀은 신정3동에 거주하는 일본인 다문화 주민들이 인근 놀이터 등에서 전래놀이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려는 주민모임입니다. 대표제안자 유선희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언니가 지인에게서 마을공동체 활동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양천구 마을공동체 하반기 공모사업 현수막을 보고 '우리도 한 번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유선희샘은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께했는데, 준비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원활한 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도 함께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일찍 도착한 주민들과 현수막부터 잘 보이도록 설치하는데요. 첫 모임이라 현수막을 어느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서로 의논하며 멋지게 설치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첫걸음이 참으로 따뜻하고 보기 좋습니다.



주말 오후, 아이들과 함께 바깥나들이를 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이기
에 서로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은 기본, 손 소독도 꼼꼼히 하고
체온 측정까지 한 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민들과 공기놀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
으로 시작하기 전에 남매가 사이좋게 공기놀이를 해보
는데요. 동생이 열심히 해보지만 아무래도 누나가 한 수
위인 듯하네요.

첫 순서로 서로를 알아가는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각자
활동지를 한 장씩 받아 자기가 좋아하는 색연필, 사인펜
으로 이름을 쓰고 잘 보이도록 본인 앞에 세워놓자 갑자기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만 모여요?”

“우리는 왜 모였어요?”

유선희샘이 “음. 오늘은 첫날이라 우리만 모였지만, 다음 번에는 신정3동에 사는 친구를 데리고 오
자!”라고 하며, 마을공동체 활동 취지를 설명합니다.

옛날에는 내 아이뿐 아니라 옆집 아이까지 모두 다함께 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하니
한 친구가 “지금은 경쟁 시대.”라고 설명을 보냅니다. 아이들도 체감하는 경쟁사회라니 씁쓸하네요.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야외에서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알아가는 활동을 하는 모습은 경쟁과는
떨어보입니다.

두 번째 순서로 내가 생각하는 마을에 대해 글로 써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유선희샘은 한
국말 쓰기가 어려우면 일본말로 쓰고 한국말로 간단히 발표도 가능하다고 배려해 주시네요. 사소한
것부터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 마을공동체의 시작이지요! 엄마랑 함께 참여한 대성이가 꿈꾸는 마을
은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엄마들이 생각하는 마을은 ‘양념이 떨어져도 편하게 빌릴 수 있는 마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을’, ‘마음도 환경도 아름다운 마을’, ‘재밌게 놀면서 옛날 생각도 하는 마을’, ‘서로 관심을 가지
고 도울 수 있는 마을, 힐링 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 꼭 한 번 살고 싶은 마을입니다.

세 번째 순서로 공기놀이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 다섯 알씩 공깃돌을 나눠서 만져보는데요. 일본인
엄마는 놀이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규칙을 듣고 엄마팀과 아이들팀으로 나눠 진행해보자고 합니
다. 공기놀이가 익숙하지 않은 엄마들은 어렵다고 하며 연습을 하는데요. 마음처럼 잘되지 않지만 진
지합니다. 일본에도 공기놀이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공기놀이와 똑같은 놀이는 없지만 비슷한
놀이로 오재미 이야기도 하고요. 어릴 때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와 같은 놀이라서 다들 반가워합니다. 아이들도 공기놀이 연습을 하는데요. 엄마들과 달리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 아이들이 잘하네요. 1단부터 4단까지는 물론 꺾기도 부드럽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과 실력이 많
이 차이 난다고 하며, 오히려 아이들에게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기놀이하는 모습에
엄마들은 연신 ‘잘한다.’, ‘상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놀이에 열중하는 자녀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기놀이를 잘하는 줄 오늘 알았다면서 기분 좋은 웃음도 나눕니다.

마음처럼 공기놀이가 되지 않는 엄마들은 집에 가서 숙제로 해야겠다고 합니다. 현란한 아이들의 손놀
림을 바라보는 엄마들의 표정에는 흐뭇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열정 가득한 엄마는 아들에게 일대일 코
치를 받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손목을 엄마 앞으로 감는다고 생각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예쁘네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마을 놀이터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공기놀이는 새
로운 추억이 되어갑니다. 공기놀이에 푹 빠져 연습하는 도중에 유래도 검색해봅니다.

첫 모임을 기념하는 케이크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유선희샘은 오늘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 모두가 좋아하는 음료까지 알게 되어 다음 모임 준비할 때 반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마을
에서 하나씩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시작입니다.

참여자 중 한 분은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 답답하고, 엄마들은 하루 세 번 식사에 간식까지 챙
기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라도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합니다. 마을공동체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모이자 전래놀이>팀은 일본인 다문화가정의 엄마들과 아이들
의 모임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보 나눔도 하고자 합
니다.

<모이자 전래놀이>팀의 다음 활동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13:30

장소

신정3동 신트리아파트 4단지
406동 어린이놀이터

참여자

유선희(대표제안자)

진행자

원은실(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다문화 가정도 한국 엄마들처럼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합니다. 그중 한 분이 지인을 통해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듣고 공모사업을 접수 준비를 하면서 한글로 공모 서류를 작성하기에 힘들다고 한국 사람이 대표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도움을 요청해서 나중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일본 엄마들이 주변 친구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동참시키면서 규모를 넓혔어요. 또한 전혀 모르는 이웃들도 초대하며 친해지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낯선 사람과 대면을 안 하려고 했고 일본 엄마들도 낯가림이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한국과 일본의 가장 기본적인 전래놀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전래놀이는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팀을 이루면 승부욕이 생기는 놀이로 재밌게 즐겼습니다.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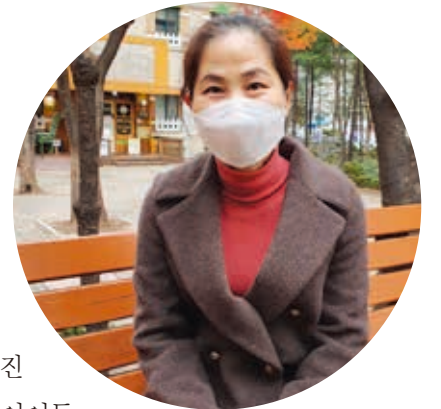
전래놀이는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접촉해서 게임을 하는 거라서 야외에서 활동했지만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썼고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코로나로 계속 집에만 머물다 보니 답답해했는데 모임 활동을 통해 야외에 나와 친구들과 엄마와 함께 게임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오히려 아이들의 참여도가 더 좋았습니다.

5.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했는지요?

처음에 마을나들이 주제를 결정할 때 의견이 달랐는데, 함께 노는 게 제일 편하고 재밌다고 하면서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래놀이를 제안했고 그 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어요. 만장일치로 6차 모임 스케줄, 진행내용 등 의견이 모아져 불만 없이 잘 진행했고, 가끔 시간, 장소, 놀이 내용을 바꿔야 할 상황에는 카톡으로 다수결 의견을 모아 정하고 모임을 이어나갔습니다.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가 있다면요?

일본 엄마들끼리만 모이다가 모임 활동 주제가 전래놀이라 아이들을 각자 데려오니 서로가 친구가 되어 놀며 수다 떨고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남편, 살림 이야기 등을 주고받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어요. 가끔 삶의 지혜가 담긴 전래놀이의 진행 방법을 보고 감탄이 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핸드폰과 컴퓨터 게임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간을 가졌던 점이 큰 보람이었고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코로나로 혹시 방역에 이상이 생길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며 활동하느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웃을 참여시킬 수가 없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활동하기를 바랬지만 아빠들의 참여가 없었던 부분도 살짝 아쉽습니다.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다면요?

일본 엄마들의 가정사를 서로가 더 깊게 알게 되면서 감정의 아나. 바.다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으로 함께 먹고 전래놀이 활동을 하면서 성향도 알게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알게 된 깊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내 가족이 확대되면 마을이 되고 사회, 국가, 세계로 확장되는데 내 가족처럼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이면 좋겠어요. 고향처럼 친근하고 서로 돕고 웃고 걱정해주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품은 마을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주장보다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나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자주 만나고 인사 나누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0. 내년 계획은요?

내년 마을공동체 활동 주제를 정할 때는 무엇인가를 함께 만들거나 아니면 만든 것을 이웃에게 나눔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11.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 마:** 마음과 마음이 모여야 짝
- 을:** 을 퇴출 수 있어요
- 공:** 공생 공영 공존의 마을공동체 예쁜 짝이에요
- 동:** 동참해주세요
- 체:** 체험해보세요, 얼마나 좋게요 ~

신나는 업다운

공모사업 유형	제자리마을운동회
주요활동	1. 스포츠스태킹(킵타) 2. 밸런스워킹, 라인댄스 3. 레크레이션
활동지역	신월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코로나19로 힘들고 우울해진 주민들의 기분을 ‘업’시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노래와 함께 신나는 ‘킵타’와 손으로 하는 육상!!

12개의 컵을 이용한 스포츠스태킹과 사면을 이용하는 라인댄스, 밸런스워킹 등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 활동과 신체활동을 많이 하였다.

공원에 어르신들께서 휴식을 취하실 때 “신나게 운동 함께해요.”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호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는 시끄러워서 안 해.”라고 말씀하시던 분도 어느 순간 어린 아이 마냥 즐겁게 웃으시며 함께하셨다. 어르신들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도 나고 함께 행복해졌다.

지나가다 함께 참여한 어느 어르신께서 요즘 사람도 못 만나고 대화도 없이 생활하다 이렇게 아이들과도 함께해서 “나는 복 받았다.”라며 무척 고맙다는 말씀에 감동하기도 했다.

신월1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주민분의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홍보와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이끌고 협력해서 남녀노소 많은 주민이 즐거움 속에 참여하고 처음 시작할 때의 낯섦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숙하고 익숙해짐으로 변해갔다. 서로 얼굴 보며 편하게 웃는 모습에서, 신월1동에 산다는 생각에서 신월1동의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더 많이 느꼈다. 마치 예전 시골에서의 마실 가는 느낌으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0일(금)
11:00

장소

곰달래 꿈마을 카페

참여자

박인순(참여자)

진행자

임재현(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청소년 수련관이나 초등학교 등 여러 곳에서 스포츠 강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70퍼센트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달리 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힘내라! 마을 바캉스 '제자리마을운동회'에서 저의 전문 분야인 '킵타'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활체조, 댄스 등을 가르쳐왔고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 심판이기도 한데 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마을 사업 전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마을공동체 활동은 아니었지만 이곳 신월동 곰달래 꿈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킵타, 체조 등을 가르쳐드리기도 했는데 어르신들이 매년 발표회를 하기도 합니다.

3. <신나는 업다운>이란 모임명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그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동이라는 것이 원래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스포츠스태킹은 특히 민첩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활동하고 딱 어울리는 이름이라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4. 회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대표제안자 3명이 있고요, 제가 대한스포츠스태킹 홍보 이사이기도 한데 스포츠 스타킹을 알리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 동아리에 주민들도 오고 학생들도 왔는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이 분들이 대부분 이번 마을공동체 활동에 팀원으로 참여했습니다.

5. 주민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각 연령대에 맞춰서 놀이 체육, 레크리에이션,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죠. 어르신들의 경우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테이블을 직접 갖고 와서 펴드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다양한 운동을 같이했죠.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이들과 엄마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할머니와 손녀, 엄마와 아이 이렇게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하기도 하고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6. 공동체 사업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한데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요?

특별한 홍보활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저희가 활동 공간으로 이용했던 놀이터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이잖아요. 우연히 활동하는 것을 본 아이들이 재미있더라, 같이 가서 해보자고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보고 우리도 운동하고 가자고 주변 분들에게 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활동을 접하고 좋아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외에 곰달래 꿈마을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을 알려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7. 올해 활동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올해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요?

놀이터를 돌면서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가벼운 운동, 레크리에이션, 컵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연령대에 맞춰서 다양한 변화를 줘서 했어요. 어르신들의 경우엔 그에 맞게 생활체조, 컵타 등을 했고 아이들 대상으로는 체조, 율동, 컵타, 도구를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등을 했는데 동작도 다양하게 하고 아이들의 경우엔 배경 음악도 그에 맞춰서 틀고 어르신들의 경우엔 어르신들에 맞는 노래를 틀었죠.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라인댄스를 하기도 하고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을 때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을 때도 있는데 각각 상황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성과는 컸다고 생각해요. 보람 있었어요.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 시작이 늦어져서 9월 중순경에 시작했는데 날씨가 바로 추워져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들도 건강 때문에 참여가 줄고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라 참여율이 줄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면서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공간 사용에도 도움을 주시고 카톡을 통해서 주민 참여도 독려해주시고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매트나 테이블, 컵, 의자 등을 가지고 다녀야 할 짐들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매번 잔치를 하는 분위기로 즐겁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일을 접고 발 벗고 나서주신 것이니 정말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8.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고구마, 계란 등을 찌가지고 와서 운동이 끝나고 주민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나눠먹기도 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동네 잔치처럼 말이죠. 요즘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죠. 처음 보는 분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아, 이런 게 서울에서도 가능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 전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운동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니 스스럼없이 대화도 하게 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9. 올해 활동을 진행하면서 의미 있었던 혹은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놀이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간병인과 함께 놀이터를 지나다가 운동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 어르신이 처음에는 멀찍이 앉아서 보시다가 점점 다가

와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 하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나도 안 가시고요. 나중에 저에게 와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좋은 일 한다는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에게 의미가 컸었나 봐요.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10.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애로 사항이 있다면요?

어려웠던 점은 주민과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신대어린이공원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엄마들이 종종 아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해요. 하루는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근처에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부근에 점보 컵을 쌓아놨는데 그 아이가 컵을 발로 차서 무너뜨린 거예요. 아이 엄마가 그걸 보고 아이를 큰 소리로 야단쳤는데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 주변 아이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며 컵을 쌓아올렸죠.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나중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이죠. 또 공동체 행사 때문에 본인들이 놀이터에서 놀지를 못한다고요. 공원은 본래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후에 저는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원 안의 일부 장소를 지정해서 그 장소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래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공원은 원래 모두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행사 특성상 갖고 다녀야 할 짐이 많아서 이 부분도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매번 그러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 차로 직접 나르다가 결국 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죠. 테이블을 줄인다든지 테이블이 없어도 진행할 수는 있으니까요.

11.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의 지원은 만족스러웠나요?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원분들이 늦게 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열심히 해주셨어요.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이 자주 오셔서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짐 나르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신대어린이공원에서 지난번 송편 만들기를 했을 때도 센터장님이 일찍 오셔서 필요한 물건도 갖다주시고 준비를 도와주셨죠. 최근에는 신대어린이공원에서 회의를 하면서 만두도 같이 만들어주셨어요.

12. 공동체 활동 경험으로 내가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는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전에는 제 일만 하고 있었으니까 이웃 주민들은 잘 몰랐어요. 신월1동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하다 보니 주민들도 알게 되고 신월1동의 역사도 알게 되었죠.

활동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하니 어느 순간 길을 지나다가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인사도 하고 엄마들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의 주민이라는 소속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주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작은 의견들이 모여서 큰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작은 힘이 만나서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서로 만나 회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큰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이번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생각하는 세계가 커졌어요.

13. 내가 바라고 만들어가고 싶은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밥 먹고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주민활동가로 참여하면서 ‘마실 간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마실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남아도 줄 사람이 없어서 버리곤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시골에서 뭘 가져왔는데 그것이 남으면 평소에는 버렸을 것을 가져가서 주민들과 같이 나눠 먹게 되더라고요. 무언가가 생기면 주민들이 생각나고 같이 나누게 되고요. 누가 김장을 하면 김치도 나누고 고구마를 삶아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누구는 시집, 장가갔다더라,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어떻더라 하며 소소한 일상으로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처럼 서로 잘 알게 돼요.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마을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하는 일을 연장해서 재능기부 등으로 주민들에게 스포츠스태킹 등의 교육을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활동을 통해서 일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요즘 학교와 마을을 연계해서 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10명 정도 교육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마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위축되었는데 내년에는 몇 분 더 추가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더 크게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5.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보람이나 성취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 말고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곤란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는데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경우 이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발판 삼아 능력을 키우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욕심 없이 이것만 해도 된다면 괜찮은데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성취감이나 보람으로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스마트하게

공모사업 유형	제자리마을운동회
주요활동	밸런스워킹
활동지역	신월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한국에 시집을 와서 아이들 낳고 키우고 매일 바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이웃집과도 제대로 관계 맺지도 못하고 인사만 하는 사이였다. 코로나19가 퍼져서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웃 주민들과 가족처럼 생각하고 챙기고 돌봐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자리마을운동회’를 하면서 주변의 또래 엄마들이나 이웃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다. 밸런스워킹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을 예방하는 운동이다.

공원에서 활동하다 보니 직접 참가는 안 했지만,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도 따라서 하고 계셨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아동센터 선생님께서도 우연히 오셔서 함께한 적도 있었다. 좋은 만남이 되었다.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모이기가 어려워져서 힘들었지만, 야외로 나가서 자연 속에서 웃으며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제자리마을운동회’를 통해서 알게 된 소중한 인연을 감사하며, 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 양천은 마을로, 마을은 양천으로 ◆

우리마을지원사업

음식나누기! 이웃만들기
너 나들이 행복찾기
마을스케치
I들과 아버지의 E유 있는 U쾌한 놀이체험
마음모아 뜨개나눔
행복한 수작(手作)
나와 너, 우리의 힘
날개를 활짝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한마음 놀이마당
달콤한 이웃, 달콤애(愛)
아빠들의 커피 수다
음쓰 담은 화초
정(情)이든 푸른마을
스트레스 날려봐2
좋은 남편(파파)되기 프로젝트!



음식나누기!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음식나누기! 이웃만들기!
주요활동	1. 머시 중헌디(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함께 걷기) 2. 청춘을 돌려다오(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음식 만들기) 3. 젊은 태양 (지역 청년들과 함께 음식 만들기)
활동지역	목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동네 주부9단들이 모여서, 주부들의 주특기인 음식 만들기로 회원 간의 친목은 물론,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머시 중헌디’ 활동으로 모임 구성원들이 안양천 걷기와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청춘을 돌려다오’ 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과 음식 만들기 및 이웃과 나눔 활동, ‘젊은 태양’ 활동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공공기관의 공간이 폐쇄되어 활동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만 수차례 반복하다가 결국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주부들의 모임이지만, 올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공동체로 이어지는 관심을 실천해나가고자 했다. 우리의 활동이 마을에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나에게 되돌아와서 가정의 화목까지 더욱 강화되리라 믿는다.

‘열린마을강좌’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함께 이해하며, 더 가까운 관계형성과 우리가 추구하는 마을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서 우리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많은 일을 다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설레고 즐거웠다. 그리고 이전보다 자주 만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이 많은 힘이 되고, 생활의 활력이 되었음을 느꼈다. 봉사와 나눔이 있고,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열린 마을강좌

일시

2020년 7월 9일(목)
15:00~16:30

장소

해누리타운 5층 나눔실

여름을 알리는 햇빛이 강렬한 7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 해누리타운 5층 나눔실에서 <음식나누기! 이웃만들기>팀의 열린 마을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서둘러 마을공동체 활동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며 행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열린 마을강좌에 참여한 <음식나누기! 이웃만들기>팀은 목1동 주민모임으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강의는 관악구에서 도시농업과 나눔이웃 활동을 하는 여용옥 강사의 진행으로 총 세 개의 구성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는 마을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의지할 곳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임을 강조하고 함께하는 모임회원 서로에게 귀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행복지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가

요?라고 반문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을 되짚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눔이웃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한 20년간의 활동 속에서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반찬가게 운영과 한 끼 밥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만 있는 주민들끼리 공동체활동 이전부터 동네에서 나눔을 해보고자 뜻을 모으고 동네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후원물품을 받기도 했고 떡집, 정육점과 관계맺기를 하면서 인연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몇 명이 운영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월세 등 운영비는 어떤지, 실제 이익이 나고 있는지 등등 질문과 이어지는 답변을 많은 분들이 꼼꼼히 메모하기도 했습니다. 반찬가게, 밥집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 믿고 맡기는 관계가 되고 서로 주인이 되었다고 강사는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①우리 단체에서 가장 재미있는 활동 ②왜 재미 있는지 ③더 재미있게 하고 싶은 것 ④함께 해야 할 일 ⑤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해 각자 포스트잇에 적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누는 이야기는 참으로 훈훈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하자면, 우리 단체에서 제일 재미나는 일은 언니들을 만나서 좋고, 왜 재미있냐면 마음이 통해서 재미있고, 더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건 여행을 함께 가고 싶고, 함께 해야 할 일로 서로 마음을 이해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술선수범 등이 있었다. 여용옥 강사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임회원이 즐거워야 지속될 수 있기에 앞으로는 모임 시작하기 전 10분 수다로 생활 나눔 시간을 가질 것도 권하며,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강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마을에 살고 싶습니까?’,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너 나들이 행복찾기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파리공원 행복지킴이
주요활동	1. 자연 속에서 체험학습 2. 마을 둘레길 걷기 3.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
활동지역	목5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삭막한 아파트 문화에서 이웃끼리 서로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소해 보고 싶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계획한 활동들을 실행하면서 이웃끼리 소통하고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파리공원에서 나비 체험은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했던 송편빚기는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 여름 동안 공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음악회를 못하게 되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정말 아쉽고 안타까웠다.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한 어른들의 둘레길 걷기 활동을 매일 진행하게 되어 이웃간에 좋은 관계망이 만들어졌다.



마을스케치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아리아리
주요활동	1. 신문 제작 강의 (마을신문 제작을 위한 기초 교육진행) 2. 주민 인터뷰와 마을 골목 조사 (주민들과 함께 수다모임, 마을 옛 추억 수집하기, 마을 골목탐방, 마을주민 인터뷰하기, 마을상상화) 3. 신문 제작과 전시회
활동지역	신월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신월1동은 저층 주거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낙후된 곳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동네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행기 소음이 끊이지 않는 주민의 골칫거리를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자 다함께 노력한다면 마을주민 누구나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마을에 대하여 귀동냥으로 들던 것과 그 시대를 겪으신 분께 직접 듣고 발로 뛰면서 구석 구석 취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동네 모습이랄까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리는 계기가 되어 정말 행복하고 뿌듯했다.

우리가 취재하고 인터뷰한 신문이 만들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니 성취감에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만든 마을신문 《고운달 마을 스케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저장되고 기억될 것이다.



활동명
간담회

일시
2020년 7월 2일(목)
15:30~16:30

장소
신월1동 도시재생지원센터

7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신월1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한 신월1동 <마을스케치>팀은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우리마을지원 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입니다. 간담회가 진행된 신월1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동네 사랑방으로 발길이 머무는 곳이라는 공간안내 배너가 인상적입니다.

사무를 보는 공간과 주민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나뉘져 있었으며,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까지 목요일 프로그램인 '돌다리 건너 소통하는 캘리그래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동네사랑방으로 주민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며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동시에 성격이 다른 모임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조금은 어수선했지만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는 센터장님과의 간담회에 집중했습니다.



대표제안자 1번 김영샘, 2번 서선옥샘, 실무책임자 이현옥샘과 센터장님은 이번이 두 번째 만남으로 가벼운 인사를 건네며 활동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제안자 회의를 지난 6월 1일 단 1회만 진행한 상태이고 향후에는 마을강좌 및 마을신문 제작 관련 강좌를 먼저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했

습니다.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는 각자 생업이 있고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기에 마을공동체 활동에 별도 시간을 내고 활동하기엔 많이 힘들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센터 공간활동가 정여빈 선생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마을스케치>팀의 상황에 대하여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도시재생활동 연계하면서 주민들 간의 관계망을 넓히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마을공동체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에 각자 개인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활동해보길 권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표제안자들이 직접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을 하면서도 고유의 활동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월1동의 주민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각각의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부탁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소소한 활동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목4동 <거기서 만나요>팀 '우리마을그림잔치' 행사 등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활동에 어려움 또는 궁금한 사항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또는 담당 마을지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껏 하고 싶은 활동을 펼쳐보길 권하고 독려했습니다.

센터장님과 간담회 이후 대표제안자들은 우리마을지원사업에 대하여 "직접 스스로 진행해보자", "보고, 느끼고, 뛰고"라는 마음으로 활동해보겠다고 서로에게 응원하며 활기찬 다짐을 했습니다.



I들과 아버지의 E유 있는 U쾌한 놀이체험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IEU아버지회
주요활동	1. 패밀리가 떴다! 산행 편 2. 우리동네 워터파크 3. 현장학습
활동지역	신월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아빠들이 모여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줄 수 있는 체험을 고민하다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다.

산행을 하며 땀 흘리고 좋은 공기 마시며 인근의 산속에 있는 토끼나 강아지, 잠자리, 개미 같은 동물 체험을 하였다.

또한 마을에 있는 놀이터에서 처음 보는 친구든지,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든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아버지들과 물총놀이를 하며 유대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다.

우리 동네 산에서 동물 먹이 주기 및 곤충채집을 한 후에 아이들이 집에 와서도 계속 가자고 하여 힘들었다는 아빠들의 고민이 너무 듣기 좋았다.

마지막 활동으로 고구마 캐기 체험활동을 하였는데, 그 외에도 아이들에게 유익한 여러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아쉬웠다. 코로나로 인해 생각했던 여러 계획들을 모두 실현하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마을통신원



활동명
물총놀이

일시
2020년 7월 11일(토)
11:00 ~13:00

장소
양천구 신월4동 422-1
태양어린이공원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태양어린이공원에 가면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어린이는 몸으로 시를 쓰고, 몸짓으로 그림을 그리며 마음껏 논다.’

7월 11일, 이곳에서 물총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물총놀이를 하면서 정말이지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총에 맞아 옷이 젖어도 그냥 즐겁기만 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아빠들도 흐뭇하기만 합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물은 총알이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물총놀이를 위해 집에서 갖고 나온 물총도 다양했는데요. 아빠들이 준비해 준 것도 있지만, 성능이 더 우수하고 사정거리가 길다는 나름의 개인화기로 무장도 했습니다. 갖고 온 물총이 제일 커 보이는 아이가 더 많이 젖었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무기를 갖고 있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빠들에게 물에 흠뻑 젖은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 줍니다.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 이웃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웃은 그동안 집-회사-집밖에 몰랐던 아빠들에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우쳐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서 이웃이 좋은 이유와 나에게 주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총놀이는 아이와 아빠 둘만이 할 수도 있지만, 이웃과 함께하니 더 좋았습니다.

아빠들도 아이들과 같이 해보고 싶지만, 오늘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뒤에서 돌봐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위험해, 내려와. 신발 벗지 말고.” 아빠들끼리는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도 마음은 모두 아이들에게 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물총놀이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주의사항을 수시로 알려주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작전 지시도 내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절대 쏘지 말 것. 얼굴은 위험하니 쏘지 말 것. 어린아이에게는 쏘지 말 것.’ 등.

그런데 아빠는 분명히 작전지시를 내렸지만 아이들이 물총으로 그려내는 시와 그림의 세계에서는 아빠의 지시가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이들 간에 사소한 갈등도 생깁니다. 다른 오빠한테 물총을 맞고 분해서 우는 여자아기도 있습니다. 한 남자애가 물통에 조금 남은 물을 통째로 다른 아이에게 쏟아부자 물벼락에 맞은 아이는 아빠한테 가서 이르기도 합니다.

아빠들도 솔직히 해보고 싶은 표정입니다. 내심 아빠들이 더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아빠들이 놀았던

그 놀이를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을 떠올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몰래 슬쩍슬쩍 물총도 쏘 봅니다. 그 옛날 한 번은 해본 듯한 숨씨입니다.

그런데 아빠들끼리는 편 짜서 물총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전쟁놀이로 번질까 우려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놀이터 미끄럼틀이 유원지 워터슬라이드로 변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미끄럼틀을 아이들은 슈퍼 워터슬라이드라고 불렀습니다. 슈퍼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다고 호기 있게 올라갔던 아이들이 어느새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무서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간식시간이 되자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아이들은 줄을 서고 있습



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아빠들이 따로 지정해놓은 곳에 버립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자 놀던 곳을 아빠와 함께 물로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아빠가 솔선수범합니다. 산교육의 현장을 보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당연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빠와 함께한 물총놀이 재미있었어?”

“-----!!!”

이미 대답을 알고 묻는 질문에 아이들은 해맑게 웃는 것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오늘 아이들은 특별한 선물까지 하나씩 받았습니다. 한 아빠가 아이들 주려고 예쁜 인형들을 갖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즐겁게 물총놀이도 하고, 예쁜 선물도 받은 아이들은 밤에 잠도 잘 잘 것입니다.

아빠들에게는 아이들과 함께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빠들끼리 서로 생각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동굴 견학 등 체험학습도 할 생각입니다. 오늘 같은 물총놀이는 7, 8월 여름철에 격주에 한 번씩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천천히 이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음모아 뜨개나눔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손길
주요활동	1. 양말목 뜨개로 놀이터 나무 겨울 옷 입히기 2. 양말목 뜨개(냄비받침, 컵받침 등) 재능 나눔 3. 직접 뜬 수세미 판매 수익금으로 우리 동네 청소년 후원하기
활동지역	신월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처음에는 가볍게 신월3동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모여 뜨개질을 시작했다.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뜨개를 뜨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오가는 언니 동생이 되어간다. 모임을 하다 보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 2019년에 놀이터 나무들에게 병충해 방지를 위해 뜨개 옷을 입혀주는 활동으로 '이웃만들기'에 도전하였다.

2020년 올해는 나무 옷을 입혔던 활동을 '우리마을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마을에 있는 다양한 주민들과 같이 뜨개를 하며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을 갖기가 어려웠다.(TTT)

그래도 삼삼오오 모여 뜨개를 하고, 코로나가 심하면 집에 가지고 가서 뜨개를 하기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나무 뜨개옷을 완성하였다. 작년처럼 시끌벅적한 잔치 없이 사업을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알록달록 옷을 입은 나무들을 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생하셨어요~", "마을을 위해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응원해주는 소리에 마을 활동할 맛이 난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맘껏 사람들을 만나고 손을 잡으며, 마음 나눔 활동을 하고 싶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우리모임 뽀뽀뽀 양말목 뜨개: 컵받침, 냄비받침 만들기

일시

2020년 10월 13일(화)
14:00~16:00

장소

엄마의 작업실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신월3동 엄마의 작업실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중 '우리모임 뽀뽀뽀'으로 신월3동에서 우리마을지원사업을 하는 <마음모아 뜨개나눔>팀의 양말목뜨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음모아 뜨개나눔>팀은 신월3동 주민모임으로 적극적인 노년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조적인 노인공동체인 신월노인참여나눔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웃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여 추운 겨울 동네 공원과 놀이터 나무에 겨울옷을 입혀주는 활동을 진행한 팀입니다.

같은 사업명으로 작년에 이어 공원의 나무에 양말목 겨울옷을 입히는 활동을 준비하는 2년차 활동팀인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구성원 대부분의 연령층이 70~80대로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던 어르신들이 마을공동체 한마당 '우리모임 뽀뽀뽀'을 위해 신



월3동 엄마의 작업실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알록달록 색깔의 양말목을 이용해서 티 매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한 체험활동으로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과 배려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딱 어울리네요. 먼저 원하는 색상을 고르고 티 매트, 양말목을 이용한 썩발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티 매트는 나무틀을 이용하여 두 가지 색깔의 양말목을 교차로 걸어가며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처음 해보는 참여자는 조금 힘들어합니다. 두 분의 양말목 뜨개샘은 초보자에게 친절한 설명과 함께 뜨개질보다 쉽다고 잘할 수 있다는 격려도 아끼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다고, 익숙해지면 속도가 나고 시간 보내기 좋다’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늘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을에서 만나 더 푸근하고 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느리지만 조금씩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손으로는 양말목을 연결하면서 마을공동체 한마당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갑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수록 티 매트는 모양을 갖춰갑니다. 오랫동안 외출도 반갑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만들기 활동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씀에 코로나 상황이 주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여자 중 초보임에도 단번에 설명을 이해하는 분은 다른 분들의 부러움까지 받아가며 즐겁게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같은 신원권에서 만나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오늘처럼 소박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동거리가 가깝고 조용해서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를 완성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에 양말목 뜨개 방법을 알려주시는 샘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2020 양천구마을공동체 한마당 취지를 설명드리자 하나는 나를 위해, 나머지 하나는 기부하는 1+1 만들기 참여자들은 도전해보겠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도 “같은 걸 반복해서 만들어도 혼자서는 무리.”라고 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주 보고 서로 돕고 배우는 과정에 웃음까지 있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듯합니다.

티 매트를 완성한 분들은 다음 단계로 냄비받침에도 도전을 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선택적으

로 진행을 했는데, 냄비받침은 도구가 없이 만들 수 있어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한참을 만들어도 참여 인원이 적어 기부해야 하는 수량이 적다고 하자 양말목 뜨개샘과 참여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티 매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하기 위해 즐거운 담소를 뒤로 하고 만들기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에 놀랍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한마당에 기부할 품목으로 신월3동 어르신들이 미리 미리 만들어 준비해주신 수세미도 있다는 말씀에 한 번 더 감동합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고 함께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어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 있는 일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마음모아 뜨개나눔>팀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0일(금)
13:30

장소

신월3동 신월노인참여나눔터

참여자

노정자, 서명석, 권정순,
박경미

진행자

원은실(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신월3동 이웃에 사는 할머니들이 ‘꽃할매합창단’을 하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합창단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합창 활동을 하면서 마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남남으로 모여 형님, 동생 하며 나눔터로 모였습니다.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운데 같이 모여서 고추장도 만들고 뜨개질도 하니까 삶의 활력이 생겨요. 서로 모이면 반겨주고 애써주기 때문에 모임 활동을 명심하고 시간도 잘

지키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활동하는 점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들 보기 좋다, 굵다, 예쁘다’ 등의 응원을 많이 받습니다.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코로나19로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추장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나누고 2019년에 이어서 경인어린이공원과 남부어린이공원 놀이터의 나무에 양말목으로 만든 옷을 입히는 활동을 했습니다.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받았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코로나19로 합창공연도 하지 못했고, 합창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뜨개질도 이웃과 같이해야 하는 건데, 이웃과 모임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구성원들이 모임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름에 한 번 소규모로 모였는데, 다만 기존과 다른 점은 한 번에 진행하는 행사를 2~3일에 걸쳐 진행하거나 오전반, 오후반 등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눔터를 방문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 소독 잘하고, 열 체크하고 방역을 잘 지키며 조심조심 활동했습니다. 외부인 추가를 지양하고 고령이기에 실내 활동에 집중했고 커피나 차를 마실 때는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벽을 보는 등 서로를 위해 규칙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5. 대표제안자 또한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했는지요?

신월노인참여나눔터에는 활동 수칙이 있어 모든 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대표제안자의 의견을 대부분 잘 따라줍니다. 우리 모임의 장점이 단합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식구라고 부르고 형님, 아우 하기 때문입니다.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가 있었다면요?

2020년 올해도 양말목 옷 이름표를 단 나무를 보니 뿌듯합니다. 놀이터를 지나다니는

이웃 주민이 어르신 대단하다며 좋은 말을 해줄 때마다 기분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코로나19로 자주 모이기 어려워서, 보다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는 무엇이었나요?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마을에서 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덜 외롭습니다. 활동이 많아지면서 모임도 더 활기차고, 회원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참여할수록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동하기도 하고, 서로 물어주고 챙겨줍니다. 합창이라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 마음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노정자)형편이 있는 마을: 외관도 보기 좋은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명석)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덮어주는 마을이었으면 합니다.

(권정순)환경을 생각하는 마을: 내 집 주변 청소는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경미)세대공감이 잘되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과 같이 활동할 때가 정말 즐거운데,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양말목 뜨개도 알려주고, 고추장 만들기도 같이하고 싶습니다.

10. 내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2021년 계획은 합창 공연으로 무대도 경험해보고, 고추장 담그기와 양말목 뜨개로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11. 마을공동체로 행사를 지어주세요.

마: 마음모아 뜨개나눔이

을: 을미년에(※을미년: 2015년)

공: 공동체로 모여

동: 동생 언니하면서 마을공동체

체: 체험을 재미나게 합니다.

12.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나요?

대표제안자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덜 힘들고 젊은 회원(80대 초반)들이 언니들을 배려해 몸을 쓰는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마을주간에도 나눔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어르신이 품을 내어주었습니다.

13. 2년차를 진행해 보니까 개인과 모임은 얼마나 성장했다고 느끼시나요?

모임은 성장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신체적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수작(手作)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행복한 수작
주요활동	1. 손바느질로 소품을 만들며 수다로 소통하며 관계를 이어가요 2. 초등, 중등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체험을 통해 소통해요 3. 자기계발을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가져요
활동지역	신월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에서 만나 모임을 만든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마을지원사업'에 2년차 참여하고 있다.

매주 공방에서 모여 새로운 소품들을 만들면서 아이들 이야기,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며 아내, 엄마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마을 내 문화센터가 되어 생활문화, 예술의 매개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더 폭넓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맺으려 계획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당초 계획을 수정,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매우 컸다.

그러나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우울감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 시대에 모임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보듬어가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점은 삶의 위안이었다.

또 마을공동체 한마당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마을사업지기들과 만남을 갖고,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마을의 거점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점이 큰 보람이었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오리너구리 퀼트 만들기

일시

13:00~15:00

장소

양천구 오목로 22 뉴스타빌딩 5층 아이키즈카페

7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 양천구 오목로에 있는 아이키즈카페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선정된 <행복한 수작>팀의 퀼트 작품 만들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수작>팀이 결성된 것은 아이들 학교에서 수공예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동아리 활동이 끝나면서 모임도 해체되는 듯했으나, 함께했던 7개월 동안 정도 들고, 아쉽기도 해서 이 모임을 계속하자는데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모임의 명칭이 시사하는 것처럼 <행복한 수작>팀은 손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 만들어보기를 주요활동으로 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손으로 직접 친환경 수세미도 만들어보고, 파우치, 미니백 등 퀼트 제품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오리너구리 퀼트를 만들어보기로 한 날입니다. 김창숙 대표가 제작에 필요한 패턴을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회원들은 오리너구리 샘플을 보면서 “날개는 무슨 색으로 할까? 몸통은 몇 개로 하지?” 등 제작에 앞서 나름 원칙들을 정하고, 일도 분담하면서 작업에 몰두합니다. 패턴에 따라 원단을 가위로 자르고,



자른 원단은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이어가며 오리너구리의 날개, 몸통, 등, 배 부위 등을 만들어갑니다. 원단 색깔도 각자 선호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서로 간의 사이가 이제 언니, 동생, 친구가 되고 보니 작품을 만들어가는 동안 그야말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이 부분은 볼록하게 나와야 하니 밀리지 않게 핀을 미리 꽂아주고, 바늘이 두꺼우면 원단에 구멍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고.”

“나는 엄지를 쓰는 게 편리한데, 검지도 괜찮아. 이 부분에는 숨구멍을 내주고 공구르기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애.”

퀼트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겪었던 각자의 경험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따라 배우면서 회원들끼리는 누가 더 잘하고 못

하고 할 것도 없이 모두 손놀림들이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바느질은 각자 하고들 있지만 혼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쉽 없이 얘기하면서 남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실수로 바늘에 찔리는 회원도 생깁니다. 원단을 잘못 잘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나눠가며 소통하는 장면을 보면 누가 보아도 훈훈한 이웃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리너구리의 날개도 만들어지고, 몸통도 만들어지고, 자신이 맡은 오리너구리 부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완성품은 다음에 다시 모여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모이면 이날 만들어진 부품들이 조립되면서 완전한 형태의 오리너구리가 생깁니다. <행복한 수작>팀의 손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모임 때 만들었던 퀼트 지갑도 이날 마무리했습니다. 지갑을 열고 닫을 때 닿는 부분을 감침질 바느질로 처리하고, 일부는 버튼식으로 마감처리 하면서 예쁜 지갑들이 탄생했습니다.

<행복한 수작팀>이 퀼트 작품을 만들면서 하는 대화는 비단 퀼트 제품 얘기만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 아이들 공부 및 성적 관련 이야기, 집안 이야기, 남자아이 키우기와 여자아이 키우기가 같지만은 않다는 등등.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습니다. 지역주민들로서 마을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웃들 간의 대화도 오갑니다.

<행복한 수작>팀은 함께하는 이웃을 점점 넓혀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배우고 나누면서 마을이 북적북적대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행복한 수작>팀의 행복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을 해볼 요량입니다. 또한 엄마들이 마을강사가 되어 함께하는 이웃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될 날도 기대합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이 쌓여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행복한 수작>팀 회원들의 노력이 머지않아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
13:30

장소

범블비 쏘잉스튜디오
(신월7동)

참여자

김창숙, 한희정(대표제안자)

진행자

원은실(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참여한 동아리 활동(바느질모임)을 계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나니 아쉬움이 커서 계속 모임을 이어가자며 <행복한 수작>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학부모 공예동아리에서 출발하여 말 그대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임으로 서로에게 으쌰으쌰 격려하면서 모였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작품이 완성되면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하고 재능 발견도 하고

성취감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오리너구리 퀼트 만들기도 하고 소소하게 굵창밴드 만들기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하고 스트링파우치도 만들어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받았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코로나로 모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바느질 활동 키트를 제작하여 일대일로 키트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설명을 해주며 각자 집에서 만들기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5.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했는지요?

공모사업 3년차 주민모임으로 큰 견해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집콕이 아닌 활동 방법을 궁리할 때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진행했습니다.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가 있다면요?

온라인설명서라는 형식으로 주민모임 활동을 시도한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 제한을 두지 않고 활동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마을주간에는 범블비쏘잉스튜디오가 공동체공간으로 활용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월7동의 소규모 주민모임들이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시콜콜 마을탐험대 재봉틀 선생님께서 재능기부를 했는데 아이들이 수업 끝나면서 예의를 갖추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인사할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농담 삼아 나라님도 어렵다고 하는 중학교 2학년, 그것도 뭉뚱뚱한 남학생들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따듯하고 진정성 있는 감사의 인사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주민센터에서 모임을 할 예정이 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주민들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파리공원에서 부스 형태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체 험을 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이어가면서 회원들의 공감과 의지를 확인하고 3년차로 확 장하는 실험적인 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차분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주민모임 회원들과 함께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으로는 코 로나상황에서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잦은 모임 진행으로 주변에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다면요?

엄마들도 단순한 수다모임이 아닌 소소한 바깥 활동을 한다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혼 자보단 여럿이 다 함께 바느질하고 사브작사브작 만드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프 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방법도 경험하면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면요?

지역 내 생활공예 회원들이 경제적 독립까지 연결되는 마을이길 바랍니다. 주민모임을 넘어 마을강사로 역량강화를 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10. 내년 계획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임 회원들과 밀도 있는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11. 마을공동체로 행사를 지어주세요.

마: 마음과 생각

을: 을 많이

공: 공들여

동: 동네 친구들을 만드니 마음의

체: 체온이 1도씩 올라가요~



나와 너, 우리의 씬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신월시영아파트 주민모임
주요활동	1. 나와 너의 씬(손 소독제, 모기기피제, 수세미 만들기 및 나눔 활동) 2. 우리의 씬(어린이 체험활동) 3. 마을공동체 한마당(주민 체험활동)
활동지역	신월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나와 너, 우리의 씬>팀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었다. 한 가정의 엄마, 아빠이며 자녀인 평범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서로 소통하며 큰 힘을 내게 된다.

2019년 이웃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문제 해결만이 아닌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올해는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나눔으로 힘을 얻고자 하였다.

‘나와 너의 씬’ 활동은 나눔을 위한 물품 만들기로 손 소독제, 모기기피제, 수세미 등을 함께 만들어 이웃과 복지관에 나눔을 하였다. 또한 나눔 밥상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씬’ 활동으로 놀이터 축제를 기획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축제를 열지는 못했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여 어린이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통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축제를 열지 못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나눔으로 주변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과 복지관 등에 기부활동을 하여 마을공동체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을 키워갈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활동으로나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물병커버 뜨개

일시

2020년 7월 2일(목)
14:00~16:30

장소

신월시영아파트 내 신월공원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2일 오후, 더운 날씨지만 간간히 바람이 불고 그늘진 신월공원 숲속의 빈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너, 우리의 씬>팀의 작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모임의 목적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뜨개질을 하면서 ‘물병커버’를 만드는 일입니다. 모두 12분이 참석했습니다. 신월공원 내에는 지붕 있는 정자도 여럿 있어 오늘같이 더운 날 회원들끼리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정자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양보하고 평상에 돛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나와 너, 우리의 씬>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마을공동체 활동 2년차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뜨개질도 그 일부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뜨개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완성품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회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서로에게 조언도 하고 오늘 처음 온 회원에게는 먼저 참여한 회원들이 친절하게 뜨개질 방법 등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습니다. “한 코에 2개씩 한 번 더 돌려



주고, 묶으려면 짧은뜨기를 하시고, 이 부분 돌리지 말고.” 등 등. 뜨개질을 안 해본 사람들은 옆에서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분명 회원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물병커버 만들기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제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김영원 대표가 도

안을 제시하고, 모두 그 도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해하는 이른바 소통의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뜨개질은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든 ‘물병커버’는 역시 회원들이 함께 만들었던 손 소독제 등과 함께 이웃 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공동체 활동 2년차를 맞아 지난해에 이웃끼리 알고 친해지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나눔의 단계까지 한 발 더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회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주민들도 뜨개질하는 모습을 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같이했



을 것이라며 한참을 바라보고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들이 뜨개질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였는지 엄마 곁에 바짝 붙어서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거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아닌 이웃의 친구엄마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구면입니다. 엄마끼리는 언니, 동생으로 부릅니다. 자기 애가 아니라도 넘어지면 먼저 일어나 일으켜주고, 다친 데 없는지 자상하게 묻습니다. 같

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다 이런 관계가 될까요?

어느새 엄마들의 모임이 발전해서 아이들의 모임도 생겨나고,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가족들의 모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모두 3개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엄마 모임, 아이들 모임,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가족 모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뜨개질은 실들이 잘 연결되어야 결과물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결이 되면 좋은 관계가 생깁니다. 오늘은 뜨개질로 실들을 연결해서 ‘물병커버’라는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나와 너, 우리의 삶>을 오늘 또 만들어내면서 마을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뜨개질을 같이하는 엄마의 모습과 함께 곁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을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외연이 한 뼘쯤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10:00

장소

신월시영아파트 내 쉼터
정자

참여자

김영원(대표제안자)

진행자

이호중(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 간에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 여배우가 관계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과 같은 일이었어요. 난방비와 관련해서 우리 아파트 2,256세대 중 무려 1,000세대가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고, 나머지 세대들에게는 고액의 난방비가 청구된 거예요. 당연히 청구받은 세대와 받지 않은 세대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기도 했고,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분열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화합해보자는 생각을 몇몇이 해보게 됐습니다.

마침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마을 활동들을 장려하고 있었고, 하여 이웃만들기 사업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2년차를 맞아 마을 활동의 다음 단계인 우리마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것도 1년차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지속해보자는 참여자들의 제안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 중 몇몇과 올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2. 참여자들은 어떻게 모을 수 있었나요?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발단이 되어 자주 마주하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됐고 해서 자연스럽게 참여자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차는 기존의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알음알음 모임 소개도 하면서 참여자를 확대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같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단순 참여자들을 포함해서 주민 70여 분이 저희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제안자 외에도 그분들이 주변분들을 참여시켰고, 그리고 저희 활동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시구요. 올해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고, 저희 참여자들끼리 중심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많이 줄어 30명 선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올해 마을 활동을 통한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지난해는 주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활동의 주요 목표였다면 올해는 조금 발전된 단계로 '나눔'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손 소독제도 함께 만들어 나누기도 했고, 소규모이지만 공원 놀이터 축제도 했습니다. 물놀이 축제였는데 작년에는 아파트 내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규모를 줄여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투명한 우산에 스티커도 붙이고 그림도 그려서 아이들의 우산을 만들어보게 하는 모임도 가져왔고, 거품 나는 비누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진 바 있어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풍경'도 만들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엄마들끼리는 수세미 만들기, 물병커버 만들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등 무언가 만들어보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물건들은 대부분 양천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기부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점도 큰 보람입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분야(필요한 물건 만들어 나누기 등)에 대해 어느 참석자 한 분은 먼저 외부에서 만드는 방법 등을 배워 오셔서 저희에게 그대로 전수도 해주시고, 본인의 자택도 활동공간으로 제공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작년에는 단순 참여자로 활동하셨는데 올해 정말 적

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웃이 한 뼘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4. 아쉬웠던 점,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모두가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기였기에 가능한 한 많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행사를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1년차 경험도 있고 올해는 더 크게 양적으로도 확대해서 활동해보고 싶은 생각은 많았는데 많이 아쉬워요. 올해는 공원에서 벼룩시장도 해보려고 계획했는데, 시도도 못했다는 점도 큰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리고 '나눔'이라는 목표 하에 우리 참여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정작 함께한 참여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내부 사람 하나 챙겨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나와 너, 우리의 쉽>팀은 김영원 대표제안자를 비롯해서 참여자들이 코로나를 극복 하면서 가능한 모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원에서 돛자리를 깔고 모이기도 하고, 참여자가 제공해준 공간에서 모이기도 하고, 주 1회씩은 모였던 편입니다. 적어도 7월까지 는 그렇게 해오다가 8월에는 거의 활동을 못 했고, 9, 10월 들어 조금씩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 마을 활동 전·후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마을 활동 전에는 내 주변만 관심을 갖고, 알았는데, 마을 활동을 통해 관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얘기 상대도 많아지고, 힘이 들 때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생기구요. 활동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서도 같은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많이들 알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옆 집, 뒷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게 됐고, 아파트 내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도 더 커지고 알게 된 것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웃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참여자들 간에는 이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됐어요. 아이들도 자기네끼리 형, 누나, 언니, 동생 관계로 발전했구요. 그리고 작년 마을 활동 1년차 만해도 엄마들이 뜨개질을 기본 활동으로 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모임을 가졌다면, 올해는 조금 숙달된 기능을 갖고 나눔까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6. 마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때 보람을 느끼게 되나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마을 활동 하는 일에 공감하시고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모임은 바깥 공간에서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지나 가면서 많이들 보시고 묻기도 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음 모임에 동참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참 좋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친분이 생겨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도 보기 좋구요. 대부분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든든한 형이 있고, 보살펴주기도 하니까 안심도 되구요.

7. 마을 활동을 같이하시는 참여자들 간에 갈등은 없는지요?

2년차 마을 활동을 같이하면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건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위해 자주 참석 요청을 받게 되는데 이왕이면 제안자 모두를 함께 불러 주시거나 교대로 불러 주시면 좋겠어요. 마을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소위 <1번 모여라>처럼 특정인에게만 하는 것이 오히려 모임 내에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8. 2년째 마을 활동을 했는데, 다른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1년차인 작년에 이웃만들기를 시작할 때 처음이라 그랬는지 마을 활동을 상당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년차에 접어들니까 저 자신이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1년차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2년차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2년 동안 마을 활동을 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을 활동에 대해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크게 뻗어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즐겁게 활동하다 보면 주변이 즐거워지고, 주변이 즐거워지면 모두가 즐거워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 활동의 성과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커 가는 것이다.'라는 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9. 마을 활동과 관련해서 2021년도 계획이 있다면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지원을 받으면서 마을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겼고, 성과와 보람도 있었기에 마을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참여 형식은 이제는 꼭 지원을 받으면서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해볼 생각입니다. 2차례에 걸친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왜 필요하고, 왜 마을 활동을 하는지 얻은 바도 있고 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맺은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나눔'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마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주위에서 지켜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을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10.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 주세요.

마: 읍은

읍: 마나

공: 감 가는

동: 행인지

체: 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날개를 활짝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비타민
주요활동	1. 노래 배우기 2. 노인대학이나 파리공원에서 공연하기 3.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곳 도움 주기(노인주택 청소) 4. 마을 & 공원 청소하기 5. 등산하기 6. 운동하기(족구)
활동지역	신월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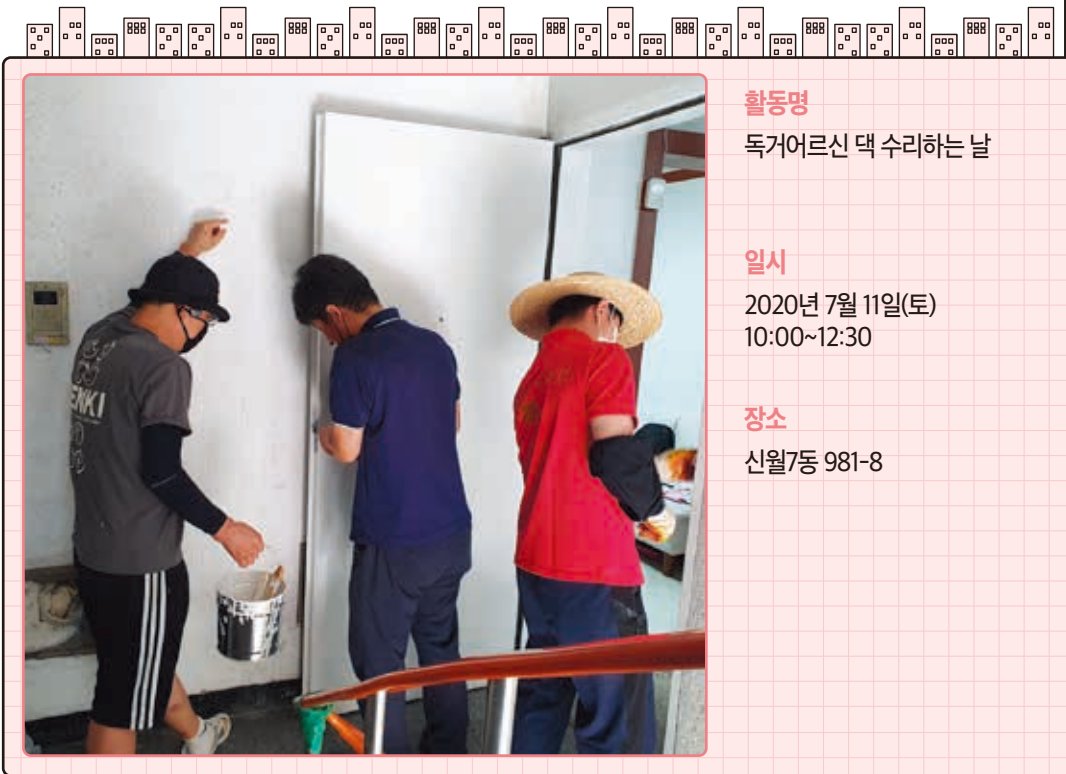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처음 시작은 혼자 지내는 독신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고 한 번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아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 생각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있는 분을 위해 상담가가 와서 좋은 말 듣는 시간이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모임을 하면서 노래도 배워서 불러야 했고, 무엇이든지 대답해야 했어요. 발표 한마디씩 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죠.

저 혼자였다면 노래 부를 일도 없고 배울 이유가 없었겠지요. 또 발표도 굳이 안 했을 거예요. 노래를 배우면서는 내가 음치, 박치, 몸치인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 후에도 마을에 공원 청소, 등산, 운동(족구) 등 모임을 통해 함께하면서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함께하니 내 부족한 것을 알지만 그 속에 빠지지 않고 같이해서 즐거운 것도 알고 안 해본 것을 해보면서 그 속에 어려움, 부담을 공감하면서 내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그대로 혼자였다면 이런 많은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지만, 이런 활동 속에 연습하라 발표하라 어디 다니라 함께하다 보니 한 해가 금방 갔어요. 시작이 어렵지요. 막상 주어진다면 함께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도 같이 가는 것 같았어요. 바쁘고 힘들지만 각자의 모임과 함께하면서 일상에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020 안녕~! 2021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활동명
독거어르신 댁 수리하는 날

일시
2020년 7월 11일(토)
10:00~12:30

장소
신월7동 981-8

7월 11일 토요일, 아침부터 폭폭 찌는 더위인데 신월7동 동우빌라 102호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거주하는 집인데 오늘은 남성분들이 현관부터 서서 테이프를 붙이고 집안 곳곳을 비닐테이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안을 깨끗하게 도색하는 작업이기에 기존 살림살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닐 테이핑을 하고 일부는 천을 씌우고 작업해야 하는 곳들을 확인하고 밀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팀의 회원들이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집 안 베란다의 낡은 천장과 현관 문, 각 방의 출입문 몰딩을 깨끗하게 도색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페인트는 주민모임 지인에게 기부를 받았고 회원들은 각자의 주말시간을 유쾌하게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베란다공간에서도 짝을 이룬 작업반장과 보조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했고 주고받는 이야기에는 서로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등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방과 화장실의 문, 현관문도 비닐테이핑 후 깔끔한 하얀색으로 정성스럽게 바르는 작업은 웃음과 함께 진지함까지 있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실내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며 땀을 흘리면서도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얀 색깔로 깨끗하게 집 안을 가꾸는 모습은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현관 밖의 입구 천장도 도색이 벗겨져 지저분한 부분을 다시 바르기 위해 밀처리하면서 옷에 먼지가 쌓이는 줄도 모르고 구부정한 자세로 손질하는 뒷모습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과 함께 몽클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간중간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는 모습은 아마추어 같지 않았고 거주하는 세대를 위한 세심한 배려까지 느껴졌습니다.

빌라 입구 천장 도색하는 작업은 힘들었지만 최강의 콤비(?)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여 천장은 어느새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거주하는 어르신은 작업 상황을 지켜보며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하시며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작업 진행 중 잠시 시원한 휴식시간을 가졌는데 자회사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는 회원분의 주문(?)으로 당 보충이 되는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이 준비가 되어 더위를 달래기도 했고 재미난 유머와 웃음이 넘쳐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에게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베란다의 천장과 현관 밖 천장이 깨끗해지고 각 방 문 몰딩도 점점 깨끗해졌고 현관문 안쪽은 새로운 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깔끔해진 모습에 감동하신 어르신이 깜짝 선물로 준비하신 간식을 맛나게 먹으며 다음 활동으로 산행을 준비했는데요.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산행도 기대가 됩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9일(목)
13:30

장소

힐링빈스(신월2동)

참여자

황계진(대표제안자)

진행자

원은실(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요?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 즐거움 등으로 고민할 때 아는 후배의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말 한마디를 듣고 공모사업 설명회를 참석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또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남편과 남편친구, 친구의 친구 등 연결이 되어 모이게 되었고 이 중 나비남 2명도 중년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내자는 뜻에 동참하면서 모였습니다.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센터장님과 동행한 관악산둘레길 산행은 마음을 촉발하는 활동으로 코로나19와 상관 없이 봉사 활동을 진행해보자는 마음으로 이후에도 클린 산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신월 7동 독거어르신 댁 낡은 집을 깔끔하게 보수하고 단장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신월 2동 한아름어린이공원에서 진행하는 <우리동네 빛내라>팀 대표제안자의 제안에 회원들이 흔쾌히 수락하여 공원 잡초제거, 방역활동뿐 아니라 공원 가꾸기, 타일 부착 활동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와 <우리동네 빛내라> 공모사업 두 팀이 합심하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공원 청소, 제초작업, 방역활동을 진행하니 인근 지역주민들도 주변이 깨끗해지니까 공원에 작으나마 관심도 생기게 되고 청소 활동에도 동참해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코로나로 난감한 상황에서 열린마을강좌를 양천구마을공동체센터장님과 함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전에 '코로나로 활동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열린 마을강좌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바뀌고 적극적인 의견이 모여지면서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5.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했는지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로 인해 모임 자체가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열린 마을강좌와 관악산 산행 이후 공동체사업 활동을 봉사 콘셉트로 정하면서 협력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활동 취지를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자 줌 화상회의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가 있다면요?

첫째, 독거어르신 집수리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진행이 아닌 주민 자발적 진행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전 답사하고 진행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수리 사항이 너무 많아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예: 천장 부식이 심하고 페인트 전체 진행 등) 막상 회원들이 지인들에게 활동 취지를 설명하고 물품 후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클린 산행이라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들고 산행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50리터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우고도 온 마음으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반대편으로 하산할 때 1주일에 한 번 클린 산행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여성분을 만나 서로의 활동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길이 다른 길보다 깨끗하다고 느꼈는데 어떤 손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길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가서 활동해보자고 회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활동할 때 다른 모임의 조끼를 입고 진행했는데 통일된 복장 고민도 했습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독거노인 집수리 활동을 1가구만 진행하여 더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좀 더 많은 집을 방문하여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내년 활동에 고민할 예정입니다. 우리마을지원사업 2년차로 어려운 점은 남성중심 모임이 되면서 남자들의 세계를 잘 몰라 어려웠습니다. 활동 일정을 안내하고 모임 참여에 답변을 요청해도 답이 없어 힘들었는데 남자,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고 그 암묵적인 서열 일인자의 의견이 있어야 활동 진행이 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만의 세계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이야기 나눔을 통해 모임 성격을 알고 나니 이후부터는 주민모임 활동이 쉬워졌답니다.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었나요?

2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확장된 것 같습니다. 마을 안에서 스스로 기획하는 힘든 봉사 활동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변화로는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1년차에는 회원 이면서도 서로 비교하고 고민도 잘 이야기 못했다면, 2년차인 올해는 회원들이 좀 더 가

까워지고 노래 연습을 하면서 자격지심, 열등감 등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고 도와주는 마을이었으면 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베풀이처럼 즐겁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10. 내년 계획은요?

노래연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모임 회비로 작곡도 진행했고 그 곡을 MR반주까지 만들 정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1년차에는 노래하면서 주민을 만나고 발표회를 진행했고, 2년차에는 주민을 만나고 봉사도 하고 노래연습으로 즐거움을 선사했고, 3년차에는 노래하고 봉사하는 모임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11.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 주세요.

- 마: 마음을 닦고 있으나
- 을: 을씨년스러운 마음이
- 공: 공유하니 행복하고
- 동: 동행하니 친구가 되어서
- 체: 체(채)색의 마을이 되었다

한마음놀이마당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비빔밥
주요활동	1. 다문화가정 내 갈등 해소와 연합 2. 다문화가정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연결 3. 다문화가정의 지역 소속감 발전
활동지역	신월2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다문화, 탈북민 가정이라서 지역 내 주민들과의 소통과 연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정들과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작년에 활동하면서 다문화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가족 내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라서 겪는 갈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는 다문화가정의 가족 내 갈등 해소와 연합에 대한 활동을 함께하였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패밀리 트롯대회’, ‘가족사랑 편지 쓰기’, ‘가족 레크레이션’ 등을 하며 즐겁게 하나가 되었다. 편지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소감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기 위해 ‘동네 한바퀴’를 돌며 한국문화퀴즈를 풀기도 했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압화 응원카드’를 모아 양천구 지도를 만들었던 활동은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지역 일반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다문화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 문화를 주민들이 풀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문화인들의 한국 적응의 어려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이 모여 다시 양천구 지역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모여 양천구가 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마을통신원



활동명

우리모임 뽕뽕뽕:
한국문화 알리기

일시

2020년 10월 13일(화)
15:00~17:00

장소

한아름어린이공원

신월2동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마주 보고 있는 ‘한아름어린이공원’. 이곳은 한때 거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이 뜻을 모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마을공동체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10월 13일 오후, 어린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국문화 알리기’마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올해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모임인 <한마음놀이마당>팀이 진행했습니다. <한마음놀이마당>팀은 행사를 통해 어른들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지만, 한국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내주고 아이들이 답을 적어내는 방식의 퀴즈 게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함께 놀이도 하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놀이마당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를 묻는 문제, 전통 갖의 모양을 찾는 문제 등 모두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공개된 문제를 보면서 혼자 힘으로, 혹은 친구들과, 어린 동생들은 어른들과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답을 하나씩 적어나가는데요.



오늘은 시험 보는 것처럼 필기구와 답안지를 나눠주었으나, 모르는 문제는 물어봐도 됩니다. 친구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답을 알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벌써 정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답을 맞힌 아이들에게는 선물도 주었습니다. 모두 다 맞춰서 아이들은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 만들기 키트와, '응원 압화 만들기' 세트 그리고 필통도 있었고, 머리띠 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마음놀이마당>팀은 '응원 압화'를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날 화상채팅(zoom)을 통해 자세한 만들기 방법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만든 압화를 파일로 받아, 양천구 지도 모양(해우리)으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양천구민 모두가 압화와 함께 적혀 있는 응원 메시지를 받고 힘내자는 뜻입니다. 응원 메시지는 대략 다음과 같았는데요. '일어나 Re:start', '당신은 최고', '사랑해요 여러분',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행복하다' 등. 평범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이웃이 전해주는 격려라서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이날 아이들은 '파라슈트'라는 재미있는 놀이도 했습니다. 커다란 낙하산 모양의 물건을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받쳐들고 그 위에 여러 개의 공을 담아 바깥으로 내보내는 놀이입니다. 서로의 협력이 절대 필요해 보이는 놀이입니다. 놀이 진행은 어울림 놀이문화를 이끄는 백정애 선생님이 맡았으며,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나서 어울려 놀았고 웃음소리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엄마들도 아이들과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음놀이마당>팀은 새터민과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과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어울리면서 엄마들이 그들의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마을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해소는 물론, 더불어 함께 살면서 상생하는 우리 마을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음놀이마당>팀의 '한국 문화 알리기' 행사는 아이들과 엄마들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끝났습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같이 준비했던 그 시간은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8일(수)
15:00

장소

사월 카페

참여자

최혜임(대표제안자)

진행자

이정화(마을기록지원단)

1.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나요?

다른 대표제안자 아이 친구가 다문화가정이어서 그 가족의 지인인 다문화가정들과 대표제안자들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나도 언니가 일본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빠른 적응을 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아는 다문화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준비하고 활동하는 것에 놀라는 참여자들이 많았고, 재미있었고 신선했다는 좋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2.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다문화가족 내의 갈등을 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패밀리 트롯대회, 가족에게 편지 쓰기 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에 빠른 적응과 다른 주민들과 연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이 아닌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문화퀴즈 동네 한바퀴 행사와 '응원 압화카드'로 양천구 지도를 함께 만든 행사가 기

억에 남습니다.

3.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영향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계획은 모두 대면 활동인데 주민들과 회원들이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활동으로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나갔습니다. 줌(zoom)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도 어려워하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우리 활동을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만들어 나가며 극복했습니다.

4. 대표제안자 또한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했는지요?

매번 의견을 내면 다른 대표제안자들이 듣고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응원해주며 함께 해주고 참여자들도 즐거웠다고 매번 소감을 밝혀줬어요.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아서 함께해 온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5. 보람 있었던 것과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빅토리아가 우리와 활동하며 한국어도 많이 늘고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다고 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주민들이 코로나로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고, 가족들 쑥스럽지 않게 사랑 표현도 하고 추억을 쌓게 됐다고 했어요. 함께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6.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라서 계획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 활동으로 바꾸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어요. 아쉬운 점은 지켜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뛰어들어는 레크리에이션이나 마음껏 이야기 나누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7.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다면요?

마을활동을 하기 전에는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언니가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에서는 다문화인이라 다문화에 관심은 많았지만 나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는 없었죠. 마을 활동을 알게 되고 시작하자 단지 주민일 뿐인데 모이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에 놀랍니다. 다문화뿐 아니라 지역에도 관심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존감과 개인 기량이 높아졌어요. 정말 다른 분들에게도 마을 활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8.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옛말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이웃들이 모인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어서 즐겁고, 어려울 때 서로가 힘이 되고, 더 나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 좋은 마을을 만들면서 더 돈독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을 거 같아요.

나는 누군가 뭔가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자! 내가 함께할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손을 잡고 걷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더 나은 마을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복잡하고 힘들 거 같은 생각에 누구나 고민이 될 텐데 함께하겠다는 이웃이 있으면 고민의 짐이 덜어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지요.

9. 내년 계획이 있다면요?

다문화인들이 활동하고 싶은 일들을 뒷받침해주려고 해요. 내년에는 야스미나(페루 다문화) 둘째가 더 자라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서 내년이 더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을살롱’을 진행하면서는 다른 마을사업지기들에게 배우고 싶은 마인드가 많아요. 너무 멋진 분들이 많아서 놀라워요.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인드를 배우고 싶어요.

10.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마: 마술 같아요

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공: 공공을 위하고

동: 동료와 나를 위한 일을

체: 체질적으로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11. 1년차와 비교해서 2년차의 고민은 어떤 것이 있나요?

1년차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는데 즐기면서 하자고 마음을 바꿨어요.

12.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나요?

대표제안자들이 전체 행사 준비와 진행을 하고, 참여자들은 홍보를 돕고 행사 피드백을 해줍니다.

13. 1년차 → 2년차 개인&모임의 성장은 어떠한가요?

1년차 때는 센터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활동하기 바빴지만, 2년차에는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을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이 생겼어요. 양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달콤한 이웃, 달콤애(愛)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달콤애
주요활동	1. 베이킹을 매개로 하여 이웃과 만나고 친밀해지기 2.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놀이터에서 다양한 활동하기 3. 대표제안자들이 만든 베이킹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친목 다지기
활동지역	신정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달콤애의 대표제안자 3인은 양천구 여성교실에서 진행되는 제과, 제빵 수업을 수강하면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양천구에서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베이킹'을 매개로 하여 이웃을 만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베이킹을 매개로 하여 이웃과 만나고 친밀해지며 관계를 확장해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취학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정1동 목동 10단지 아파트 주변 놀이터를 활동공간으로 선택하였다.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활동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 모임부터 새로운 이웃들이 흥미를 보이며 참여를 희망했고, 마지막 모임까지 관계와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며 다양한 이웃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들고 답답했던 2020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모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아이들과 참여자들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2020년은 의미 있고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하다. 마지막 모임에서 대표제안자들과 제법 친해진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다고 울기도 하였다. 참여자들 또한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 보다 날씨의 영향으로 계획했던 활동을 여러 차례 수정하고 회의하며 우리의 속을 여러 번 태웠지만, 고생하고 애쓴 만큼 이웃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지원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줄어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마무리 무렵에는 대표제안자들이 사비를 많이 들여가며 행사를 진행하였지만,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즐거움으로 기억되어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

마을통신원



활동명
미술활동으로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요

일시
2020년 8월 27일(목)
16:30~17:45

장소
신정1동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옆 놀이터

태풍 바비가 예상보다 조용히 지나간 8월 27일(목) 오후 16시 30분, 신정1동 해바라기어린이집 옆 놀이터에서 양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선정된 <달콤한 이웃, 달콤애>팀의 미술활동으로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달콤한 이웃, 달콤애(愛)>팀은 신정1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모임으로 대표제안자 3인은 양천구 여성교실 제과제빵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 이웃들과 베이킹, 일상을 나누며 깊이 있는 만남을 지속해보고자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져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놀이터로 나온 아이들은 활동 시작 전부터 신이 나서 뛰어다니고 엄마들은 함께할 활동 장소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돛자리를 깔아줍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조금 친해져서 그런가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미술활동과 보물찾기놀이를 하고 엄마들은 일상과 홈베이킹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활동 시작 전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오늘 활동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참여자들과 이름 기억하기 게임으로 즐겁게 활동을 시작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이름을 같이 기억하며 아이들, 엄마들이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 옆에 포비만화를 좋아하는 ###입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 할때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미술 활동은 초등, 중등, 대학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다문화 멘토링 등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풍부한 김미정샘이 재능을 기부하며 진행합니다. 참여자도 각자 색연필, 유아용 플라스틱 약병을 준비해왔더군요. 작은 약병에 물을 담고 원하는 물감을 조금씩 짜서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밑그림이 있는 종이를 받아서 화장 솜을 풀로 붙여주고 그 위에 원하는 색깔 물을 조금씩 뿌리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는 엄마들은 약병으로도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약병을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았는지, 아이가 많이 아팠는지, 항생제를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도 하면서 기분 좋은 수다를 이어갑니다.

놀이터에서 소소한 미술 활동을 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주민이 궁금한 듯 잠시 멈춰 현수막도 살펴보고 김미정샘의 설명도 들어봅니다. 많이 궁금하셨나 봅니다.

1단계 그림이 완성되자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입체적인 그림을 위해 키친타월과 화장지 심지어 재활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키친타월을 돌돌 말아서 종이에 붙이고 물감을 입히기도 하고 다 쓴 두루마리 화장지 심지를 활용하여 다섯 등분하면 꽃잎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집중



하고 색연필로 그림도 그리는 등 미술활동에 푹 빠집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좋은 날씨라서 엄마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멋진 그림을 완성한 친구에게는 박수도 보내주고 지난 모임에서 배운 칠교를 기억하기 위해 놀이터에서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숨어 있는 색깔 칠교 조각을 찾기 위해 놀이터 곳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해서일까요? 마냥 즐겁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물찾기를 하는 동안 엄마들은 베이킹 관련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베이킹 관련 진행은 송정현샘이 진행하는데, <달콤한 이웃, 달콤애(愛)>팀의 홍보 담당이자 제과제빵 능력자이고 작년 생생놀이터 사업 경력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홈베이킹 조리법과 직접 만든 크림치

즈 모닝빵을 나누며 아이들 먹거리에도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해보자고 하며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함께하는 참여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달콤한 이웃, 달콤애(愛)>팀 첫 활동에 참여한 후 이후 활동에도 꾸준히 함께하는 의리가 생겨가고 있는 이웃으로 발전하며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바탕 뛰면서 찾은 칠교 조각은 다음 야외활동에 사용할 물품으로 줄을 서서 교환합니다. 놀이하면서 자연스러운 생활교육이 되고 다음 활동은 뭘까 하는 기대감에 아이들은 신나서 놀이터를 뛰어다닙니다.

육아만으로도 힘든 엄마들이 코로나로 더 힘들고 지쳐가는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잠시 기대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는 <달콤한 이웃, 달콤애(愛)>팀의 다음 활동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15:00

장소

지소현 카페

참여자

육미라, 김미정(대표제안자)

진행자

이정화(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표제안자 3명은 모두 양천구 여성교실에서 진행하는 제과제빵 수업을 들으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함께 수업을 들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수업이 끝나고도 계속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천구에서 ‘이웃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사업인 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베이킹을 매개로 해서 활동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참여했다고 말씀 드리는 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업 설명회를 듣고 보니 함께하는 정현 언니(대표제안자 1인)가 작년에 이 사업을 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놀이터)

그래서 경력자도 있으니^^;; 내심 마음도 놓이고 더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베이킹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베이킹 이야기만 해도 하루 종일 수다 떨 수 있을 거예요. 하하하.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정리해보면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제일 큰 계기이자 이유입니다.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일단 작년에 공동체 활동을 하기도 했고 주변 이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정현 언니가 두 세 분의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첫날 현수막을 걸고 놀이터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을 때 두 가정이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며 자연스럽게 참여자들이 더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임이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활동하고 친해지며, 엄마들에게도 베이킹이나 요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즐기며 친해지자라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엄마들의 니즈를 잘 충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첫날부터 분위기도 좋고 다들 즐거워했고, 활동 주체인 대표제안자들이나 참여자들 모두 만족스럽고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교나 마을에서 음악교육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거나 많이 연기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은 했지만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너무 바빠서 이 사업도 숙제처럼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해요. 시작하고 보니 은근히 신경 쓰며 해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대표제안자들끼리 회의도 자주하게 되고 아이디어도 짜내고 하다 보니 어쨌든, 코로나 때문(?)인지 덕분에 즐거운 모임하면서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받았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달콤에 모임은 미취학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다 보니 아무래도 코로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모임 시작일이 미뤄지고 있었죠. 올 초에는 모임 자체를 많이 꺼리는 분위기라 모임에 대해 알리고, 함께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웠거든요. 항상 집에만 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조심

스러웠지만, 사실 모두들 한편으로는 ‘함께하고 싶다. 누군가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방역 철저!! 하며 진행해 보자! 하고 8월 첫 주부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모임은 코로나뿐 아니라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ㅠ

달콤애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맑다가도 목요일에 유독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하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모임을 시작하고도 몇 번 미뤄진 적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안전상 모임을 하기 어려웠고, 비가 조금 오는 날에는 실내 공간을 빌려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대부분 놀이터에서 활동을 진행했는데, 모임이 즐거웠기 때문인지 다들 달콤애 활동하는 목요일만 기다린다고 할 정도로 항상 즐겁게 참여하고 활동해서 특별히 극복 방법이랄 게 없네요.^^;; 다르게 표현해서 호응이 좋았던 이유라면, 대표제안자들의 숨막히는 아이디어 회의?랄까요??^^ㅎㅎ

5.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했는지요?

정말 이상하게도 생각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베이킹을 매개로 해서 아동과 그 엄마들과 함께 친해지자!라는 명확한 대상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을 하면 재미있을지 유익할지를 생각하면서 진행하다 보니 회의하는 과정도 즐거웠고, 정말 모두가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저는 음악교육과 아동학을 전공해서 현재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래의 조카도 있다 보니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면 즐거울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만들었고, 제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저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서 실행해준 미정 씨와 정현 언니가 정말 더욱더 훌륭한 능력자라서 셋의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맛있는 베이킹으로 참여자들에게 놀라움과 높은 만족도를 주었던 대표제안자들의 베이킹 실력도 한몫 했죠.^^ 이 자리를 빌어 능력자 미정 씨와 정현 언니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참여자와의 생각 차이 또한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 때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다음 모임은 어떤 활동을 할까?’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어 나중에는 살짝 부담이 되기도 했다는...^^;; 정말 끝없는 고뇌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ㅠㅠ

나중에는 참여자분들에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라 비슷할 의견이라 너무나 놀라웠다는 후문~~~~^^;;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교육이다 보니 직업병처럼 뭔가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마냥 의미 없이 즐겁지만 한 놀이가 아니라, 활동 속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나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 어머니들의 피드백 같은 부분들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제안자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계속 진행할수록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져 모임을 한 회 한 회 끝내면서 뿌듯하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항상 달콤한 목요일 달콤애 활동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아이들, 많은 칭찬과 감사를 표하는 어머니들의 반응에 더욱 힘이 나서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행사에서는 아이들이 대표제안자들을 꼭 안아주기도 하고, 마지막 모임이라고 하니 영영 우는 아이도 있었는데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마지막 모임에서 간단한 간담회 시간을 가지며 모임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한 마디씩 해주셨는데, 이후에도 계속 모임을 진행해줄 수 없겠느냐~ 돈을 내고서라도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 등을 해주셔서 정말정말 뿌듯했습니다.^^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계획하고 예정했던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자꾸 바뀌어서(날씨, 방역 등) 계획을 수정해야 했던 부분이 정말 어려웠고, 예산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계속 예산이 계획과 조금씩 어긋나게 되어 이 부분을 수정해야 했던 것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것은 저희가 사업 초기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깎여서 행사 진행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쉽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느라 정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진 것 같아요.ㅠㅠㅠ 그리고 모임 마지막 즈음에는 예산이 너무 모자라서 저희의 사비를 많이 쓰기도

했고, 아이들과 더 즐겁게 활동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비용 문제로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는 무엇이었나요?

개인적으로는 마을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곳, 주변에 무엇 무엇이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고 이웃(?)이라는 말이 생소하다 생각할 만큼 보통의 도시(?)사람이었는데, 마을 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마을에 대한 끈끈해진 뭔가가 생긴 것 같달까 주변도 더 살펴보고 이웃, 마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콤애(愛) 활동을 하면서 만난 이웃들이 하나같이 모두 모두 좋은 분들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의 소득은 달콤애(愛) 활동을 하며 만난 이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이웃들을 알게 되고, 함께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집 밖을 나가면 인사하기 바쁜 마을? ㅎㅎ 사실 아래윗집에 사는 사람들과도 잘 인사하고 지내지 않는 요즘이잖아요. 서로 안부를 물으며 나의 관심사나 즐거움도 공유하고, 축하하고 축하받고 위로받으며 함께 소통하며 사는 이웃과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넓게는 내가 이 양천구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HA HA HA...그리고 이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 내년 계획이 있다면요?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ㅏ 다른 대표제안자가 이사를 가기도 했고, 또 제가 일을 계속하다 보니 올해처럼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ㅠ ㅠ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제안받아 계획 중인 일도 있고, 베이킹 작업도 하면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육미라)

- 모임을 진행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며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고, 이를 토대로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김미정)

11.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육미라)

마: 마을에서 함께해요!!

을: 을지로!? 압구정?? 멀리 갈 것 없어요.

공: 공유합니다. 멋진 마을, 좋은 이웃^^

동: 동생, 언니, 오빠 모두 모여

체: 체험해보세요!! 마.을.공.동.체

(김미정)

마: 마을을 함께 만들어요. 너와 나 하나 되는 즐거운 마

을: 을을 함께 만들어봅시다.

공: 공들일 필요 없어요. 따뜻한 마음이면 돼요.

동: 동네 친구들 다 모여서 서로의

체: 체온만큼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요.

아빠들의 커피 수다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꾸미구미
주요활동	1. 서로의 불편하지 않은 어울림 2. 장애아이들의 진로를 같이 고민하며 의견 나누기 3. 커피 하나의 주제로 누구나와 어울리기
활동지역	신정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진로는 언제나 고민일 것이다. 그렇게 평소 갖고 있던 아이에 대한 진로 고민과 바리스타 진로 체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꿈을 꿀 시간이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만난 장애 아이들과의 진로 체험 수업은 정말 감동이었다. 천천히 즐기며 집중했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는 누구나 못하는 건 없다. 그저 보채고 서두르거나 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한 번의 진로 체험이 아닌 지속하여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게 해주고 싶었다.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만난 특수교사 선생님과 같은 학교 엄마와의 상담을 통해 아빠가 주체가 되면 더 아이들에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함께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아빠들의 바리스타 교육이 시작되었다.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생각에 설레고 두근거렸다. 올해는 코로나로 많은 마을 사람들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신정1동 소상공인분들께 응원 차 더치커피 원액을 준비하여 드렸을 때, 뭔가 우리가 좀 더 마을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웃으며 다가가고 맞이하는 게 불편하기만 해서 마을 안에서의 생활은 건조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딱딱해진 마음도 풀리고 좀 더 많이 웃는 그런 하루하루를 선물받아 너무 행복했다. 앞으로 마을을 어렵게만 바라보지 않고 좀 더 따스하게 안아줄 방법을 찾기 위해 행복한 고민 중이다! ‘아빠들의 커피 수다’ 늘 화이팅합니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장애 이해 교육과 에코백 만들기

일시
2020년 8월 22일(토)
15:00 ~ 17:00

장소
바느질하는 바리스타(신정1동)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신정 1동의 공동체공간인 바느질하는 바리스타에서 <아빠들의 커피 수다>팀의 ‘장애 이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빠들의 커피 수다>팀은 2020년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박건영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6명의 구성원이 주축이 되어 아빠들 및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장애 이해 교육, 바느질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아빠들의 커피 수다>팀은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특수 교사 선생님과 지적 장애 아이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큰 고민은 아이들의 진로였다고 하는데요. 비장애 아이들과의 통합의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발성 진로 체험보다는 지속적인 진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고 싶어 아빠들이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빠보다는 엄마와 보냅니다. 하지만 아빠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빠의 진한 정을 느끼며 자란 아이들은 그만큼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지요. 엄마에게서 부드러움을 배운다면 아빠에게서는 튼튼한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지난번 아빠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에 이어 구성원들이 모여서 ‘장애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 바느질하는 바리스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들로 꾸며진 아늑한 공간에 벌써 여섯 분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에코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아빠가 천을 쥐고 바느질을 하는 모습은 색다른면서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자리에 모인 분들은 바느질하는 바리스타답게 직접 내린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조용히 담소도 나누고 바느질에 열중하다가 잠시 후 바느질을 접고 이날 계획된 ‘장애 이해’ 공부를 위해 각자 프린트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에 적힌 내용을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첫 내용은 상호작용과 스킨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나 사이에 상호작용과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리에 계신 분 중 한 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고아들 양육 과정을 예로 들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시설에서 키워진 고아들은 생활에 별 불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높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킨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양육 과정에서



스킨십은 성장 발달과 연관되어 있고 건강과 생존율을 높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는 중에 개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회생활에서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모두들 공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놀이 치료를 통한 스킨십이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담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각 통합 놀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외부 활동을 장려하고 미끄럼 타기, 그네 타기, 고무줄놀이 등도 도움이 많이 되니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주변에 권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상호작용이란 어른과 아이가 소통하는 것으로 놀이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상호작용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호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내용을 숙직하고 머리에 새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는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건영샘은 아이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투의 표현을 쓰지 않고 ‘~해볼까, ~하면 어떨까’ 하는 개방형 표현으로 바뀌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함께 모여 ‘장애 이해’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는 이 자리가 하나의 원을 형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동체라는 둥근 원이 만들어지면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리에 모인 분들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내용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간간이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서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오고가는 대화에서 편안함과 정다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틱 장애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틱 장애의 원인, 약물 치료의 부작용, 치료 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내용을 공유한 후 각자의 성격 테스트를 하는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유형별로 성격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열심히 항목에 체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에 대한 해설은 박건영샘 옆에 앉은 여사분이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안정감 있고 현실주의자이면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성격 진단 결과를 재미나게 풀어서 설명해주면서도 따뜻한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을 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려 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재미삼아 해본 성격 진단 결과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또 한 번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격 테스트가 끝나자 모두 다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만들다 만 에코백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건영샘이 마지막 가방 끈 달기를 도와주면서 찬찬히 설명해주었다.

가방이 완성되자 좋아하면서 가방을 멘 사진을 서로 찍어주는 모습이 이웃을 넘어서 한 가족과도 같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바느질하며 커피를 마시니까 스트레스가 풀려.”

“만들어 놓으니까 성취감이 있네, 오늘은 더욱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즐거운 웃음, 정다운 웃음소리가 바느질하는 바리스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건영 대표제안자님은 앞으로 아빠들의 바리스타 교육과 연계해서 장애 아이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의 특징에 따라 다가가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바리스타 교육장과 다른 방법으로 천천히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아빠들이 모티브를 준비하고 아빠들의 바리스타 교육이 끝나면 복지관이나 학교, 각종 단체 특을 활용하여 아빠들의 커피 타임을 마련하고 사업 내용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향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아빠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튼튼한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활동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대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어울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들의 커피 수다>팀의 이러한 좋은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노력과 바람이 큰 결실을 맺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아빠들의 커피 수다>, 힘내세요!”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11:00

장소

바느질하는 바리스타(신정1동)

참여자

박건영(대표제안자)

진행자

임재현(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장애 아이들이 좀 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한데 이걸 고민 중에 마을 안에서 시작한다면 마을분들도 거리낌 없이 어우러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같이 마을 안에서 어우러졌으면 해서 시작했습니다.

2. 이번 마을 사업 전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마을공동체 활동은 아니지만 예술 단체나 소규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어머니들 모임이나 아이들 모임 등에 많지는 않았지만 소규모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3. 마을사업명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그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엄마들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활동에 관한 얘기를 아빠들에게 하니 아빠들이 더 좋아해서 그럼 엄마들은 좀 뒤로 물러나고 아빠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하게 되었죠. 아이들도 아빠와 같이하면 엄마와는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아빠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 명칭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원래 <아빠들의 커피 수다>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진행하는 행사명 즉 소재목이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이걸 사업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4. 회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세 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팀원 중 한 분은 특수 교사이신데 평소 이런 활동을 꿈꿔 오신 분이어서 이번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또 한 분은 막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형이신데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분이예요. 활동에 관한 얘기를 들은 후에 너무 괜찮다고 나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엄마들이 좋아도 아빠들이 싫어하면 진행이 안 됐을 텐데 엄마들보다 아빠들이 더 호응이 좋아서 일단 엄마와 아빠로 구성된 세 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올해는 세 팀이지만 내년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 주민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기가 어려웠어요. 사업이 끝나갈 즈음에 학부모님이 네 팀 정도 오셔서 아이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에게 이번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드리니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특수학교나 통합학교에 진로체험이 있긴 하지만 횟수도 적고 좀 한정적이라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니 그런 기회가 여기서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훈련원이나 학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속 연습시킨다 생각하고 진행하면 아이들도 집중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몸에 익어서 활

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공유하면서 함께하고 싶다면 아이들과 내년에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늦게 오셨고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내년에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활동을 하다보면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서 곤란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한쪽에 아이들을 있게 하고 엄마들과 아빠들이 같이 활동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첫 만남이라 서먹한 면도 있었지만 커피라는 것을 매개로 이야기를 진행하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에 관해 설명도 드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무조건 아이들 얘기부터 먼저 꺼내면 어색하기도 할 텐데 커피를 매개체로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섞일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직접 커피를 내려서 주변 소상공인 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행사도 진행했었어요. 세 팀이 나눠서 직접 다니면서 커피를 나눠드렸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낮이 익은 분들은 고맙다고 받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지?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천구 마을공동체 책자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양천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하는 행사라고 말이지요.

무언가를 받으면 낯설어하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양천구 마을공동체 책자를 활용하기도 했죠.

6.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기간에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 나눔도 하고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과자를 나누어 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올해는 주민분들과 서로 얼굴을 익히는 단계였지만 내년에는 좀 더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하겠죠. 하지만 갑자기 불쑥 손을 내미는 것도 어색한 일이고 골목 안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것이든 한 번에 되는 것은 없고 5, 6년 정도 되어야 사람들이 ‘아, 그래 여기 계속하네’ 하면서 다가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조금만 마음 갖지 않고 조금씩 하다보면 나중에는 다섯 명으로 늘고 그 다섯 명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15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다 보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올해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신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올해 활동은 아이들에게 바로 커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빠들 대상으로 커피 교육을 했었는데 커피만 하지 않고 다른 바느질도 하고 다양한 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 내는 게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아주 열심히 꾸준히 함께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빠들이 그렇게 배우고 나서 마을공동체 한마당 기간에 저녁 때 드립하는 것을 가르쳐드리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했었는데 잠깐 배우는 것이었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분들도 배우고 나서 뿌듯하고 저도 감사하고 그랬죠. 그런 시간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갖는다면 마을 분들과 소통할 때 중간 매개체로 커피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끝나고 나서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기뻐해서 좋았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으셨나 봐요. 커피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놀라워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동안 팀원들과 2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여기에 와서 팀원들도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한 아버님은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2시간 수업을 위해 오후 2, 3시 경에 모이면 저녁 때까지 일어나실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녁 때 모이면 밤 10시가 되어도 안 가시고, 그럴 정도로 좋아하셔서 사람들에게 이런 게 참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거창한 활동은 아니어도 사람들이 힐링을 할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성과였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하고는 싶는데 나가는 게 불안하고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는 사람이라면 공방에서 만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좀 거부감이라고나 할까, 모두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들의 커피 수다>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기만 오면 청정 공간처럼 느껴지셨는지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못 나눈 게 아쉬웠어요.

8.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이번 마을공동체 한마당 기간에 이 바느질하는 바리스타라는 활동 공간에서 행사를 하면서 공간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 뭔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붙이기도 했는데 참 재미있었고 스스로 즐기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재미있었던 일로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이 공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기간에 이 공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많았는데 그런 걸 조금씩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9. 올해 활동하면서 의미 있었던 혹은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업지기 선생님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같이 뭔가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전후해서 준비하느라고 다들 힘들었지만 모두들 힘을 내서 진행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좀 멀리해왔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들 따뜻하고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데 내가 그동안 너무 밀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준비하는 동안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했지만 저를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정말 보람 있고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마을에서 나눔을 하는 것도 나 혼자 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게 쿠키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이렇게 저 혼자서는 못하는 일들은 마을공동체의 힘을 빌어서 같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혼자 못하는 걸 같이하면 모든 활동이 다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0.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애로 사항은 없었나요?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었던 것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가을에 했던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많은 주민들과 함께 즐기고는 싶었는데 홍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분들이 함

게 즐길 수 없었다는 것도 참 안타까웠고요. 소수 인원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걸 좀 같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고요. 또 다른 공간에서도 참여자가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그거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때는 좀 더 홍보 기간을 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의 지원은 만족스러웠나요?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요?

마을 지원 활동가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센터 직원 분들도 여러모로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센터에서 '1번 모여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주로 오전 시간에 일정을 잡는데 그것을 저녁 시간으로 옮겨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활동에 많이 참여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마을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침 시간이 바쁠 수 있거든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녁 7, 8시경에 한다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강의가 있을 때 시간이 안 돼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12. 공동체 활동 경험으로 변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공동체 활동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공동체 활동 후에는 누구에게나 따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같이 활동했던 아버님들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종결되었을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너무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할까 봐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왜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분위기 좋고 잘 지내듯이 어디에서나 서로 좋게 잘 지내는 것이 정인 것 같아요. 이 분들도 조금씩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마을 활동을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13. 내가 바라고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을공동체란 따스한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주택과 아파트의 구분은 따뜻함과 차가움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도 마을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식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알고 지내던 한 언니가 제 둘째 아이가 막내 동생 보느라고 너무 고생한다면서 치킨을 사가지고 문 앞에 두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간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언니가 왔다 갔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런 게 여기서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나눔이 많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겨움이 많이 줄어들어서 찡찡하다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파트도 할 수 있겠네, 다만 서로 모르는 것뿐이지, 아파트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이루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기로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모으다 보면 따뜻하고 재미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맛있는 걸 했는데 옆집에 갖다 줄까?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감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여기 바느질하는 바리스타라는 공간이 사람들이 와서 힐링이 되고 편안하고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불쾌했던 마음을 다 풀고 충전하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공간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4.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예요.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는 계속 얘기하는 중이고요. 저는 골목에 대한 활동 그런 것을 기회가 되면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이 공간 안은 아이들과 아빠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더 많은 마을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과 정을 잘 쌓아가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차단되는 것이 많아졌지만 방역 규칙을 잘 지키면서 활동을 할 수 있

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그 규칙에 잘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5.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좋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베풀어 되는 활동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공유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면 활동을 해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활동하다 보면 뭘 맞춰야 하고 계산해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서로 너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그럼 네 것 이만큼, 내 것 이만큼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면 그것으로 하나의 뭔가를 이룰 수 있으니까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밀고 나가지 말고 서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끝까지 평온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계획이나 활동보다는 우선 좋아하는 것 위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뭐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다가가다 보면 그 활동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보다는 서로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욕심도 많이 버려야 하고 최대한 서로 맞춰가면서 이해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잘 어우러질 수만 있다면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음쓰 담은 화초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음쓰 담은 화초
주요활동	1. 생 음식쓰레기 발효시키기 2. 발효된 흙에 화초 심기 3. 어르신들과 함께 화초 심기
활동지역	신정2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마을공동체를 알고 나서 집에서 나 혼자서 베란다에서 하던 생 쓰레기 발효를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활동은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익히거나 조리하지 않은 생쓰레기(야채 껍질, 과일 껍질)를 흙에 묻어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취지는 적어도 '수박, 과일 껍질은 내 집 밖으로 배출하지 말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처음 시작은 잘할 것 같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활동이 생각보다 저조하였다. 그러나 안양천이라는 야외를 이용하여 그나마 활동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강사 섭외를 해놓고 대표제안자가 급하게 시연을 하게 되어 강사료를 예산변경도 하게 되는 일도 있었다.
어르신들과 꽃 심기를 할 때는 더 보람을 느꼈다.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활동명
함께 제로 행사

일시
2020년 7월 3일(금)
18:30~20:00

장소
안양천 신정교 밑 주차장

7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신정교 밑 주차장에서 신정2동 주민모임인 <음쓰 담은 화초>의 ‘함께 제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음쓰 담은 화초>가 무엇인가 했더니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화초’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명에는 음식물쓰레기, 그중에서도 과일 껍질이나 채소 등의 생쓰레기를 화분의 퇴비로 만들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고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다가 한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도움을 받아 이것을 실행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1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은 월 1~2회 만나서 서로 실행해보고 부족한 점이나 향상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7월에는 첫 모임 후에 회원들이 만든 흙과 꽃을 공유하고 기록물들도 공유하기로 하였는데 7월 첫 모임인 오늘 행사에서는 수박 껍질로 화분의 퇴비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면서 방법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전미이 대표제안자가 오늘 행사를 위해 직접 커다란 수박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회원들은 탁자 위에 수박을 올려놓고 여러 조각으로 잘라 서로 나누어 먹으며 농담을 던집니다. “생쓰레기를 퇴



비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맛있는 수박 껍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 주는 방법은 전미이 대표제안자가 생각한 것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화분에 먼저 흙을 담고 그 위에

잘게 썬 수박 껍질을 올려놓은 다음 다시 그 위에 흙을 담은 식으로 층층이 흙과 수박 껍질을 담고 맨 위에 다시 흙을 덮어 마무리를 한 후 비슷한 크기의 화분으로 맨 위의 흙이 보이지 않게 거꾸로 덮어 주면 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흙 속의 수박 껍질이 발효되어 질소와 탄소가 풍부한 유기질 퇴비로 변신하고 물을 주지 않아도 흙이 수박 껍질의 수분을 빨아들여 질 좋은 퇴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퇴비가 담겨 있는 화분을 그대로 활용하여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무척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한 회원분은 보리 새싹을 심었더니 보리 새싹이 너무 잘 자라서 신기하고 또 그 새싹 끝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고 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수박 껍질을 이용한 화분의 퇴비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집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다고 해서 마늘, 소금 등이 섞여 있는 일반 음식물쓰레기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과일 껍질이나 채소 등의 생쓰레기만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화분이 아니라 생수병을 이용할 경우 생수병 안에 빈틈이 생겨서 날파리가 꼬이기 때문에 생수병보다는 화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초기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리에 함께한 회원들은 퇴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즘 쓰레기봉투 값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과일 껍질을 활용하니 음식물쓰레기가 확 줄더라고 너도나도 입을 모았습니다.

<음쓰 담은 화초>의 회원들은 이 모임을 통해 교류를 하면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실현한 것과 같이 과일 껍질을 활용하여 퇴비를 만듦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 환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음쓰 담은’ 화분을 이용하여 마을 후미진 곳에 꽃 한 포기 심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작은 희망으로 번져 큰 희망



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음쓰 담은' 화분에 예쁜 꽃을 심어 마을 후미진 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마을길에도 놓아 오고가는 사람들이 꽃길을 걸으며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작은 화분을 만들어 판매도 하고 직접 만든 퇴비가 담긴 화분을 지인들에게 설명을 곁들여 선물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오고 가는 분들이 행사 내용에 관심을 갖고 많은 호응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호응해주시는 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으니 환경을 위해서도 <음쓰 담은 화초>가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 중에 현장은 내내 들쭉거렸는데요.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재미있게 해주셔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것을 지켜보는 회원들의 눈빛도 반짝거렸습니다.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기도 하고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마지막 순서로 마을지원활동가 선생님과 함께 '컵타' 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회원들의 모습이 해맑은 해바라기वाद 같았습니다.

웃고 떠들다 보니 1시간 반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자리를 뜨기 전에 오늘의 즐겁고 유익한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 사진을 찍으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음쓰 담은 화초>를 볼 수 있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
11:00

장소
목1동주민센터 2층

참여자
전미미(대표제안자)

진행자
임재현(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하던 것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음쓰 담은 화초>라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화분에 묻어서 집안에서 발효시켜서 재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혼자 해보다가 이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하면 좀 더 큰 효과를 내겠다 싶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마을사업 전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마을공동체 활동은 아니지만 장애인 단체였는데 장애인들이 모여서 여행을 간다든지 장애인들의 자활이라고 할까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 마을사업명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그렇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에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음쓰 담은 화초'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화분

에 담아서 재활용 흙을 만들어서 그 화분에 화초를 심는다는 긴 말을 줄인 것입니다. 대표제안자 셋이서 같이 만든 말이에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줄임말을 써보았습니다.

4. 회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대표제안자 세 명은 기본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처음에는 회원을 모집할 때 이게 옥외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 장애인들만 모이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지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어머니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가 중간에 발생했죠.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길지 몰랐어요.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다들 자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회원들은 모집해놓은 상태였지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애인 지인들을 모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몇 번의 행사는 대표제안자들만 모여서 한 적도 있습니다.

5. 주민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주민들의 반응은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웠죠. 이 활동이 흙을 만지는 일이라 처음에는 지인의 집 앞마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양천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주변 분들이 많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많이 관심을 주셨죠. 반응이 좋았어요. 비록 저희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지켜보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신정4동 놀이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의 호응이 좋았어요.

6. 공동체 사업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냈나요?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양천이 한동안 폐쇄되어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도 길이 너무 침범거리고 지저분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튼 이번에는 악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데이케어센터에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

하도록 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저도 참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대표제안자 중에 한 분이 발이 넓고 아는 분도 많아서 그 분이 홍보를 담당했는데 이번에는 여건상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분이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분들이나 주변 어머니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공터 앞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와 날씨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7. 올해 활동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올해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화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는데 안양천에서 할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데이케어센터에 가서 화분에 꽃을 심는 활동을 할 때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해주셨어요. 제가 처음 의도했던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보자는 것이었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과라면 저 같은 사람이 이웃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집하고 직장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웃 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성과이고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꽃도 심고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게 제일 큰 아쉬움이고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하면 음식물쓰레기도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적극적인 홍보를 못한 게 아쉬워요.

8.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재미있었던 것은 안양천에서 날씨가 좋을 때 모여서 하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활동을 위해서 모인 것이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나들이하는 느낌이 난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서로 음식도 나누어먹으면서 나들이도 하고요. 생활이 바쁘다 보니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하니 그게 참 좋았습니다.

9.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었던 혹은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제일 큰 보람은 사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이긴 하지만 데이케어센터에 가서 저희가 발효시킨 흙하고 섞어서 꽃을 심었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도 뿌듯함을 느꼈고 같이 간 팀원들도 정말 뿌듯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했어요.

10.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애로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정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려웠고 대표 제안자가 서로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전에는 저희가 서로 아는 사이라서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했지만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언제 몇 시에 만나서 활동을 하자고 일정을 맞추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일정 조율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11.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의 지원은 만족스러웠나요?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실무도 많이 도와주셨고 행사장에 센터장님이 직접 와주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여러 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고요. 정신적으로 의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12. 공동체 활동 경험으로 내가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외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다는 것이 저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또 대표 제안자들의 경우 역할 바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했던 일을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고 나도 그 분들이 했던 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표 제안자를 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정해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물론 항상 결정에 잘 따라주어서 고맙지만 그래도 수동적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제안도 하면서 앞에 나서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13. 내가 바라고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공공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직접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아! 이것이 마을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약은 있었지만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알 수 있고 예전 시골에서 더불어 함께했던 것처럼, 그걸 ‘두레’라고 하나요? 그런 종류의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마을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의 역할은 무엇 이든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작은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공동체 활동에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14.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생각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홍보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적극적인 사람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분들이 하면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情)이든 푸른마을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도지나
주요활동	1. 콩콩팔팔 : 텃밭가꾸기 2. 정이든 피클 : 수확물 나눔 3. 친환경 수세미 만들어 나눔하기
활동지역	신정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지난해 ‘이웃만들기’ 활동을 함께한 참여자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또 경험을 밑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마을 안에 있는 연의공원 내 두 군데 텃밭에서 참여자들 및 시시때때로 주민들이 합류해 심고 가꾸며 볼거리 제공, 수확물을 이용하여 함께 요리나 밑반찬 등 먹거리 제공, 수확물 나눔 등을 하였다. 텃밭을 중심으로 진행한 여러 활동으로 아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기회, 어른들에게는 도시농부 활동이 되었고, 남녀노소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었다.

아이를 비롯한 3대가 함께하는 활동이었지만, 일반 주민들도 날이 갈수록 취지를 알게 되면서 관심을 보여주셨다. 서로 내 것처럼 아끼고 애정을 갖고 물을 주고, 풀도 뽑아주며, 경험담을 조언 해주기도 했다. 텃밭을 함께 가꾸고 지켜내고자 서로서로에게 홍보를 해주며 함께한 지난 시간이 눈에 선하다.

심지어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낸 텃밭이라며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시고, 내년에도 활동을 계속하는지 궁금해하시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아이들과 부모들, 어르신들까지 3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이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서 많이 배운 한 해였다. 텃밭에 와서 함께한 활동을 일기로 썼다는 아이를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텃밭을 구경하던 어느 아이에게 활동에 참여한 한 아이가 “여긴 우리가 함께 가꾸는 텃밭이야. 너도 함께할래?”라며 사랑스레 텃밭을 소개하던 귀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이렇듯 함께 활동한 아이들의 모습이 되려 어른들에게 큰 귀감이 되기도 했다.

마을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여럿이 되고 여럿이 모여 마을 사람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고 모여 단체를 이룬다는 것! 마을공동체 활동하면서 확실히 체감한 한 해였다.

삶의 귀한 경험을 하게 한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오랜 일원이고 싶다.

마을동신원



활동명

채소 수확하는 날

일시

2020년 7월 18일(토)
16:00~18:00

장소

연의생태공원 힐링텃밭

7월 18일 오후 4시,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의 힐링텃밭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선정된 <정이든 푸른마을>팀의 열린마을강좌와 텃밭 체험 활동이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꼬마농부가 일찍 와서 푸른 토마토에 시원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아이들도 서로 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물놀이 같은 물 주기를 즐겨워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순서를 기다립니다. 도지나 텃밭 외 다양한 텃밭 이름 팻말과 함께 ‘관계자 외 수확금지’라는 귀여운 문구의 팻말도 있는데요. 아담하고 깔끔한 텃밭에는 옥수수, 가지, 토마토, 호박, 수세미 등 다양한 작물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물 주고 잡풀을 제거하는 등 정성스런 손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파트 속에서 만난 텃밭 안에는 정자 같기도 하고 원두막 같은 공간이 있었고 참여자들이 행사 준비에 부산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돛자리를 깔고 소풍 나온 것처럼 모임 장소는 꾸며졌는데요. 미리 와서 물을 주던 남매는 동생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인사하고 먼저 집으로 가서 다들 아쉬워했고 다음 모임에 건강하게 만나자고 인사를 합니다.

열린마을강좌는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이 진행하셨는데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할 수 있

는 마시멜로와 스파게티면을 이용한 탐 썩기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자기소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기도 하면서 부모님과 자기만의 창작물을 만들었습니다. 퀵 보드를 만들고 탈 수는 없다고 발표도 하고 귀여운 고양이 방을 만들기도 하고 고양이가 좋은 이유는 화가 날 때 발톱이 나와 할킬 수가 있어서라고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임은 천진난만한 웃음이 있습니다.



처음 주민모임에 참여한 부녀의 서먹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함께 온 딸은 아빠 품에 안겨 아빠가 좋은 이유가 다정하다는 말과 함께 나비야 노래를 부르니 분위기는 더욱 도란도란해집니다. 함께하는 텃밭의 농작물과 함께 이웃을 알아가려는 마음도 자라는 듯합니다. 도시에서 이웃만들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텃밭 가꾸기 현수막을 보고 참여하는 주민도 있었고, 텃밭에 물주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기도 했으며, 일주일에 한번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참여 가족의 소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정이든 푸른 마을>은 사업명 그대로 정이 듬뿍 있는 마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지나면서 텃밭 체험활동은 대장 할머니의 주도로 이어졌고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대장 할머니는 <도지나>팀 1대 대표제안자로 텃밭 가꾸기 핵심 회원입니다. 활동 내용과 체험 코스도 친절하게 안내 해주었고 아이들이 무척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도지나>팀은 현재 2대 대표제안자가 활동하는 2년 차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입니다. 주민모임의 1대 대표제안자와 2대 대표제안자가 텃밭뿐 아니라 주민모임도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마을공동체를 직접 알려주는 듯합니다. 호박과 수세미 터널에 거름도 주고 가지와 토마토 따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호박 거름 주기부터 자세히 설명해주고



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거름을 어느 위치에 주어야 하는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십니다. 수세미터널에도 거름을 주고 이렇게 자라는 수세미는 가을에 주민들과 천연수세미 만들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토마토와 가지를 따는 코스로 이동하면서 옥수수가 자라는 상황도 설명해주는 박정연샘을 아이들이 “대장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거리감 없이 다가갑니다. 자연스러운 세대 공감을 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텃밭의 토마토는 정말 탐스럽게 자라 지나가는 이웃들이 많들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누가 키우는 건지, 어떻게 잘 키우는 건지 등등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민모임의 정성이 보이는 농작물은 참여가족 12가족이 함께 수확하고 남은 농작물은 정자로

나오는 이웃들에게 주민모임을 소개하고 나눔을 한다고 합니다. 대장 할머니의 말을 빌자면 ‘나눠야 농작물을 헤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 텃밭에 인심도 후합니다.

곧 감자, 옥수수도 수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자, 옥수수를 수확하는 날은 텃밭에서 함께 쪄 먹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가을에는 배추, 무도 심어 함께 텃밭에서 마을 김장도 할 예정이라고 대장 할머니는 활동계획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는 소감이 대부분이었고 젊은 아빠는 아빠들이 더 나와야 한다고 계속 나오고 싶다고 활동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심 속 텃밭에 작은 원두막이 더욱 정겹게 여겨지는 건 마을 정자라서 반갑지만 그 속에 알콩달콩 주민들의 텃밭 이야기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이든 푸른마을>의 가을 텃밭 이야기도 기대됩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4일(토)
09:00

장소

신정3동 트립 커피숍,
연의생태공원

참여자

박정연(대표제안자)

진행자

이호중(마을기록지원단)

1. 아이들이 대장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마을 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이들도 마을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양이죠?

함께 활동하고 있는 엄마들이 친정엄마뻘 되는 제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고 나름 동네 해결사 노릇도 잘한다고 해서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다 보니 엄마와 같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저보고 대장 할머니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 활동에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마을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한 손 보태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착해 보입니다. 대장 할머니라는 호칭에서 내가 무언가 마을을 위해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기도 한답니다.

2. 마을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로 부터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고 직장 다니는 딸들이 저보고 '오지랖과'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마을 활동이 이렇게 장려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성격상 맞는 일이었고 또 혼자 힘으로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일도 지원을 받으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다른 동네에서 통장 일을 해 본 경험도 있고, 최근까지 생태공원 관리자를 해 본 경험도 있어 마을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3. 현재 우리마을지원사업인 <정이든 푸른마을>의 대표제안자이신데,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참여자들을 모을 수 있었나요?

작년에 이웃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팀명은 <도지나>라고 해서 모여서 도란도란 지지고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지내고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서 마을을 위한 좋은 일도 해보자는 취지였죠. 그때 5명의 참여자가 있었는데, 올해 <정이든 푸른마을> 사업에도 그분들이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주변에 많이 알리고 동참도 권유한 결과 지금은 20여 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가족은 엄마들만 아니라 아빠, 아이들까지 가족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등 3대가 참여하고 있는 가족도 5가족이나 됩니다.

4. 참여자들과 갈등은 없었는지요? 있다면 갈등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모임이 있을 때면 가능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임은 주로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동네 마실 삼아 오시라고 집으로 초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풀어나갔지요. 아이들도 대장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참여자들과 갈등 같은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하는 분들이 엄마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정말 적극적이세요.

5. 마을 활동에서 아빠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이든 푸른마을>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아빠랑 함께할 때와 엄마랑 함께할 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활동에 중심을 둔다면, 아빠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권유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이 버려진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생태공원 조성에도 기여하고 사업의 결과는 이웃과 함께한다는 것인데, 아빠들의 참여가 텃밭을 조성하는 데 정말 큰 보탬이 됐습니다. 땅 일구기, 비닐 씌우기 작업 등 많이 힘든 일을 아빠들이 맡아서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6. 올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무엇인지요?

연의생태공원의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여름 수확과 가을 수확의 이모작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먼저 올 여름 수확을 위해 심어 놓은 채소들, 이를테면 상추, 토마토, 옥수수, 오이, 가지 등을 작은 땅이지만 풍성하게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한 채소는 참여자와 이웃 주민들과 나눴고요. 특히 상추는 70% 이상을 이웃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웃 간의 정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수확한 오이로 오이 피클을 담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을 수확은 주로 배추가 대상인데, 올해 100여 포기 수확해서 이것으로 김장도 담그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운 가운데서도 틈틈이 함께해서 무언가 해낼 수 있었던 점에 만족합니다.

7. 사업 추진의 성과를 설명한다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면요?

먼저 마을 활동을 하면서 수확물 외에도 마을 활동 모습을 지켜본 주변 분들이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면서 동참 의사를 전해온 분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을 활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이 될 것 같아요.

둘째, 함께 참여한 아이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아이들이 텃밭을 일구는 데 한 손 보태면서 친구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이를테면 '이곳은 우리가 함께 가꾸는 텃밭이야' 등. 벌써 우리라는 공동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은 벌써 그 의미를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기쁘게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텃밭에서 어른들과 함께한 것을 일기에 쓰

겠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느낌도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마을지원사업인 <정이든 푸른마을>을 통해 아빠들끼리 별도로 마을 활동을 생각했고, 해서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또 하나의 마을 활동인 '마이들'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엄마들도 별도로 어린이들에 대한 최고의 높임말이라는 '두리이'를 사업 명칭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마을 활동이 또 다른 마을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크게 아쉬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어도 더 많은 모임과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점 빼고는.

8. 마을의 이상형이라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시골 마을처럼 푸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스스럼없이 알고 편하게 지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상적인 마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시의 삭막함을 잊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곳 말이죠.

9. 올해 마을 활동 성과를 생각하면서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마: 마을공동체 봄부터 시작해

을: 을씨년스러운 가을까지

공: 공동이라는 틀 안에서

동: 동고동락하며

체: 체험 중의 최고의 체험을 아이들이 배웠으리라

10. 앞으로의 마을 활동 계획을 소개한다면요?

우선 2021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모를 또 할 것입니다. 이미 참여자들이 제안해놓은 사항도 있는데, 마을 정원과 텃밭을 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텃밭에 심었던 채소는 종류를 줄이면서 특정 작물 위주로 재편할 생각이며 공간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 꽃밭 가꾸기 등을 통해 볼거리도 제공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생태공원에 있는 원두막의 새로운 활용도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날려봐2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은행정 두드림
주요활동	1. 수다방: 함께 모여 수다도 하며 마을 이야기도 나누면서 배구도 하고 손뜨개로 아기이불과 아기신발 손뜨개를 한다. 2. 수다밥상: 딱 트인 공간에서 함께 모여 부재료들을 준비하여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하며 운동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며 손뜨개를 한다.
활동지역	신정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는 배구라는 운동을 매개로 하여 체육관에서 배구공을 두들기며 스트레스를 푼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배구공만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 집의 문도 두드려본다. 또한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아이 이불과 아이 신발을 떠서 신정4동에 출생신고 하는 신생아 부모에게 전달한다. 출산의 기쁨과 축하로 우리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함께 모여서 마을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나누며 아이 이불과 아이 신발을 뜨고 배구도 하려 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함께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아이 이불과 신발 뜨서 신정4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하는 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신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주변의 이웃들과 옥상에서 수다 밥상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이웃 간의 정이 돈독해질 수 있었다.

이웃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

마을동신원



활동명
공동체 활동 홍보

일시
2020년 10월 13일(화)
16:00~18:00

장소
올리브의 바느질 이야기(신정4동)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4시 올리브의 바느질 이야기 앞에 위치한 공원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봐2>의 홍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봐2>는 2020년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배구라는 운동을 매개로 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뜨개질을 배워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좋은 일에 사용하는 봉사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활동해온 내용과 모임의 취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에 활동사진과 함께 뜨개질한 물품을 전시했습니다. 뜨개질한 물품 중에는 겨울 나무 옷도 있었는데 겨울에 나무 옷을 입히면 벌레가 나무 옷 쪽으로 모여들어 해충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모여든 나무 옷은 나중에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무 옷은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에는 한 회원이 직접 뜨개질한 나무 옷을 나무에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의자에 앉아 뜨개질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고가는 주민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회원 3명은 배구를 하면서 배구를 통해서 활동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회원 6명은 모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도 더 멋진 활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을 해왔던 이 팀이 내년에도 멋진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좋은 남편(파파)되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모임명	좋은 남편(파파)되기 프로젝트!
주요활동	1. 아빠들 공동육아 모임 형성 2. 아이들과 함께 놀아요 3. 건강한 아빠가 육아도 잘한다
활동지역	신정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아내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시작한 첫 사업, 사업계획서부터 좌초의 위기!
 - 접수는 항상 평일 근무시간! 물론 수정도 평일 근무시간! 물론 협약도 평일 근무시간!
 -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며 굿파더스 공동체 활동 개시!

좌충우돌 아빠들의 첫 만남 앞에 COVID-19!
 - 자기 아이들밖에 모르는 아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에 소극적!
 - 어색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짝 피는 아빠들의 공감대 그리고 상호 유대감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 아무것도 모르는 밀바닥에서부터 온라인 화상 미팅 전문가로!
 - 아빠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 아빠와 함께하는 과학 키트 만들기
 - 아빠들이 연기하며 들려주는 재미있는 전래동화!

활동 후기
 - 공동체 모임을 통해 아빠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의식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 아내에 의해 타의로 참석했으나 아이들이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과학 시간에는 힘센 아빠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 주말 오전 시간부터 아이와 알차게 보내서 너무 행복하고 쿠킹 클래스를 통해 점심까지 해결해서 매우 만족스럽고 자주 했으면 좋겠음
 - 공동체에 발만 담그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만나기만 하면 먹는 굿파더스 공동체 문화가 너무 좋음



마을동신원



활동명
우리모임 뽀뽀뽀: 놀이 활동

일시
2020년 10월 11일(일)
15:00~16:20

장소
연의생태공원 힐링텃밭

10월 11일(일) 오후 3시,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의 힐링텃밭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 사업 선정 주민모임인 <좋은 남편(파파)되기 프로젝트!>팀의 '우리모임 뽀뽀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차로 9월 마을주간에 이어 2차 10월 마을주간에 진행되는 '우리모임 뽀뽀뽀' 활동은 마을공동체 주민모임들이 본인들의 모임을 소개하고 활동 내용을 홍보하기도 하고 주민모임이 준비한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요일 오후, 힐링텃밭은 오후 3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과 아빠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좋은 남편(파파)되기 프로젝트!>팀의 '우리모임 뽀뽀뽀'은 총 5가지의 체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남편(파파)되기 프로젝트!> 홍보 부스, 즉석 가족사진 찍기(폴라로이드), 돼지바 경단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솜사탕 시식코너를 힐링텃밭에 준비했습니다.

활동 준비를 하는 아빠들이 상당히 많은 것, 코너별 인원 배분과 세심하고 깔끔한 준비사항이 인상적입니다. 야외활동이지만 서로를 위해 체온도 재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출석부도 작성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주민모임 홍보입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올해 활동한 내용을 편집한 동영



상을 각자의 모바일 속에서 QR 코드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세심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동요가 흘러나오면서 연의생태공원 힐링텃밭은 이미 아이들과 아빠들이 멋지게 점령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빠들의 아이디어로 카카오톡 채널 굿파더스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활동을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석 가족사진 찍기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로 나온 주민들에게 추억을 함께 선물하는 코너로 플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촬영하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단란하게 촬영하면서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한바탕 즐겁게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촬영한 사진은 찾아가는 코너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더없이 좋은 날씨라서 많은 주민들이 웃으며 촬영을 합니다.

돼지바 경단 만들기는 인기가 많은 코너로 아빠들이 앞치마를 매고 요리 선생님이 되신을 합니다. 1:1 실습도 하고 맛나게 먹기도 합니다. 찹쌀가루에 아이들 입맛에 맞는 블루베리가루를 섞어 반죽을 합니다. 동그랗게 만들어 팔소도 넣어주고 초콜릿시럽을 듬뿍 뿌린 다음 초코 크런치를 묻혀주면 돼지바 경단이 완성됩니다. 야외에서 마음껏 요물딱조물딱 요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인기가 많아 조기에 재료가 소진된 코너이기도 합니다.

현직 과학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PS열쇠고리 만들기는 야외 과학 교실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긴 테이블을 꽉 채운 아이들은 PS판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여 색칠을 한 다음 오븐에 구워주고 고리를 걸어주는 과정을 신기해합니다. 어떤 걸 고를까 즐거운 고민도 하고 그림도 정성을 다해 그리고 오븐에 구워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즐겁습니다.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기 때문이죠.

텃밭 모퉁이에서는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제기차기를 뽑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관중이 되어 달콤한 솜사탕을 먹으며 지켜봅니다. 아빠는 마음처럼 제기차기가 잘되지 않아도 미소가 떠나지 않고 아이들도 제기차기를 시도해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야외활동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은 솜사탕 코너입니다.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는 달콤한 간식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먹고 또 먹고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아빠들도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즐거워합니다. 처음에 만난 아빠들은 서먹서먹했는데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츰 친분이 쌓여 지금은 격의 없는 동네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너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아빠들은 웃으며 정말 즐겁게 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이를 알아봐주고 일상을 이야기하며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야외활동이라 더욱 재미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잠시 둘러보니 텃밭 뒤에서 엄마들만의 마을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와 아빠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즐기는 아이들도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청량한 가을 날씨에 마을 아빠들의 즐거운 야외 놀이활동으로 텃밭은 자연스럽게 마을놀이터가 되어 갑니다.

10월 마을주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하는 <좋은 남편(파파)되기 프로젝트!>팀은 그동안 답답했던 온라인 모임을 뒤로하고 쾌적한 야외에서 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을 만나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과 정보를 나누며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 마을을 만든다 ◆

생생마을터

평화 마을터
우리 동네 빛내라~

들樂날樂

거기서 만나용



평화 마을터

공모사업 유형	생생마을터
모임명	함께 놀자
주요활동	1. 여러 종류의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공동체 만들기 2. 책 모임, 요가 모임으로 엄마들의 평화로운 삶 만들기 3. 함께 음식 만들고 나누기
활동지역	목5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2019년에는 놀이터에서 만난 대표제안자들이 함께 놀며 아이들 간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이웃만들기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놀면서 점차 이웃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공동체를 만들고자 2020년 생생마을터에 지원하게 되었다.

항상 만나는 경인초등학교 앞 놀이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는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마을에 정착하여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젊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기존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밖에서라도 함께 뛰어놀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코로나 시기였던 한여름 날, 물놀이가 아쉬웠던 우리는 가까운 우리의 마을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렇게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엄마들은 책, 요가, 소독제 만들기 활동 등을 하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고 더욱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나갔다. 그럼으로써 마을의 일원으로 확실히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밥상 모임이야말로 모두가 최고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저희와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네요. 고맙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 마을 사람들의 이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에게 큰 보람이고, 활동하는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기회였다.

<평화 마을터>팀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신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마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마을통신원



활동명

아이들과 바깥놀이

일시

2020년 7월 5일(일)
10:00~12:00

장소

장미어린이공원
(목동 5단지 아파트)

7월 5일 일요일 10시, 목동아파트 5단지 장미어린이공원에서 <평화 마을터>팀의 놀이 활동이 있었는데요.

<평화 마을터>팀은 2020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생생마을터에 선정이 되어, 마을의 작은 놀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웃들과 관계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날은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미술놀이를 한다고 하여 찾아갔습니다.

장미어린이공원은 넓은 운동장처럼 되어 있고 수도 시설도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 놀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에요. 꾸물거리며 흐릿하던 날씨가 구름이 걷히고 기온이 올라가니 잠시 후 진행될 물총놀이가 더욱 기대됩니다.

엄마들은 미술놀이 재료를 바닥에 깔고 아빠들은 수돗가 근처에 풀장을 설치하고 물을 담아 아이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



게 준비해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고 물총이든 미술놀이든 각자 관심 가는 대로 원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놀이 활동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나면 다른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며 놀기도 하고요. 여기에 모인 아이들은 목5동 아파트 인근에 사는 친구들로 카톡방 등을 통해 소식을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자연스레 다가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마을의 놀이터로 누구라도 원하면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실컷 물총놀이를 하다가 지친 친구는 간식을 먹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미술놀이도 한창입니다.

한참 그림을 그리다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네요. 날이 더우니 아이들은 물과 함께 하루 종일이라도 놀고 싶은 모양입니다. 작년에도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활동을 했던 <평화 마을터>팀은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보다 다양한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30여 명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정된 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정리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놀 수 있게 배려해주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함께한 부모님들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벌써부터 다음 활동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을의 작은 공원을 중심으로 누구나 함께 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평화 마을터>팀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10:00

장소

목동아파트 613동

참여자

박보경(대표제안자)

진행자

이정화(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사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노는 것이 일회성이 되어서 아쉬운 마음에 더 잘 놀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2. 함께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모였는지요?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저희 대표제안자들은 놀이터에서 함께 놀다가 “아이가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해서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을 때는 사실 엄마들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그 자체를 다들 좋아해주셨어요.

3.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올 한 해는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잘 놀리는 것을 위주로 미술활동, 전래놀이, 비눗방울 놀이, 모래놀이 같은 다양한 놀이를 준비했었어요. 마을공동체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강의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엄마들 책 모임, 요가 모임, 손 소독제 만드는 모임도 했습니다. 음식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기도 했어요.

4. 코로나19로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요?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것도 꺼려했어요. 실제로 한 엄마는 집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바이러스로 보여서 집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8, 9월까지도 집 밖을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후반기에만 함께 활동했어요. 저는 야외에서는 코로나 감염률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밖에서 놀려야지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밖에서 더 자주 만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5.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조율하였나요?

당연히 모임을 하면서 두 명 이상이라면 무조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진행을 원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음식 나누기를 할 때도 메뉴 정하는데도 정말 많은 논의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래도 갈등이 생기면 저희는 함께 돌파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서 서로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충분히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6. 보람 있었던 것이나 성과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시작할 때도 적지 않은 인원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 많은 인연과 귀한 인연도 만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즐거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감사하다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로 보람되었던 것 같아요.

7.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축제 준비였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회의 참석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파리공원에서 전체가 모여서 활동하기 어려워 각 지역의 거점 공간지기들의 역할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파리공원 때보다 즐거웠어요.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많이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이 즐거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8. 마을 활동 전후 변화(개인/모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을 활동 전에는 각각의 A, B, C를 알았다면 마을 활동을 하면서 A, B, C가 다 같이 활동하니까 만남이 더욱 풍성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합도 잘되고 서로에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했던 것이 다 같이 하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 어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만들면 되거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 같이 협동하면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만들 수 있겠구나, 나부터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10. 내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는 귀하고 좋은 멤버들이 만났어요. 저희는 내년에도 모임을 진행해나갈 생각이 있고요. 내년에도 마을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어요.

11.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 마: 마을공동체 활동이
- 을: 을~마나
- 공: 공동체를 만들고
- 동: 동네에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 체: 체계적인 활동인지 아시죠~

12. 1년차와 비교해서 2년차의 고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 1년차는 강의 같은 것도 없고 시작이라는 느낌이라면, 2년차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좀 확장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13. 대표제안자 또는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나요?

진짜 신기한 것은 고민하다 보면 어디선가 전문가가 나타나더라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분명히 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운명이구나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끌어가는 입장이지만 역할 분담은, 나눌 수 있는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선택지를 주면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요(장 보러 가는 것, 연락을 취하는 것)라고 얘기해주며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14. 1년차 → 2년차 개인&모임의 성장은 어떠한가요?

모임은 일단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개인적으로는 할 때마다 느끼지만 도전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또다시 느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빛나라~

공모사업 유형	생생마을터
모임명	매직(Magic)
주요활동	1. 공원 클린 캠페인 2. 공원 꾸미기 3. 공원 활동 놀이
활동지역	신월2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모임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몸과 마음도 코로나의 위험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힘을 주는 위 캔 두! 캠페인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모임도 거기서 많은 부분을 배워 조금씩 발을 디뎌 나아가보았다.
안 될 거 같았지만 막상 안전을 기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많은 인원을 나누어 여러 차례로 진행하도록 변형하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추진해나갔다.
기초 지식 없이 타이어 꾸미기와 타일 벽화 꾸미기를 추진해서 처음에 정말 많이 힘이 들었다. 하지만 공원에 꾸며진 모습들을 보며 하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름엔 장마로 인해 우리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겨 화상으로 모임도 많이 갖고 의논도 많이 해가면서 올해 계획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다.
사람이 편한 것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의 손길도 더 받게 되면서 어려움이 좋은 거라는 마음도 들었다.
또 마을공동체 한마당 마을주간이 진행되면서 거점에서 활동하는 다른 주민모임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고 안 좋은 거 같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좋은 점이 많이 있었다.



활동명
가을맞이 공원 꾸미기

일시
2020년 11월 14일(토) 13:00

장소
신월2동 한아름어린이공원

11월 14일 토요일, 신월2동 한아름어린이공원에서 <우리 동네 빛나라>팀의 가을맞이 공원 꾸미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인데 아침 9시도 안 된 시각, 웬 남성분들이 나무에 현수막을 걸고 있네요. 누구냐구요?

바로 신월2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팀의 삼촌들입니다. 이 삼촌들은 지난 여름 한아름어린이공원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 때문에 아이들이 모기에 물려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와 제초 작업을 해주신 장본인인데요. 오늘은 왜 출동했냐구요~?

오늘은 <우리 동네 빛나라>팀이 동네 주민들과 6월부터 9월까지 그린 타일 그림을 공원 한쪽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날인데요. 엄마들과 아이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삼촌들이 함께하기로



했답니다.

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또 다른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한마음놀이마당>의 이모들입니다. 마을공동체 한마당 마을주간에 한아름어린이공원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것을 계기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데 동네 삼촌 이모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죠?

먼저 인사 나누고 네트워킹 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늘 하던 것처럼 놀이터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앉습니다. 온라인 마을응원캠페인 ‘아~아~이 장입니다!’의 마을 이장인 최혜임샘의 사회로 재밌는 게임을 이어가는데요. 놀이터에 와서 그럴까요~ 게임을 하는 샘들의 표정이 아이처럼 해맑습니다. 문제를 맞히고 받는 초콜릿볼을 들고 좋아하는 모습 보이죠?

이어지는 순서는 라인댄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하나 두울, 몸 풀기 완료~!!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타일 벽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잡기라는데요. 가로와 세로의 균형을 잘 잡아놓고 타일을 붙여나가야 끝까지 선이 고르게 잘 맞아진다고 합니다. 타일그림을 붙일 벽에 줄을 평평하게 잡고 간격을 맞춰 표시를 하는 손길에 전문가 포스가 물씬 풍기는 걸요?

기초 작업 완료~. 이제 타일 뒷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벽에 한 장 한 장 붙여나갑니다. 2인 1조로 진행하는 타일 그림 붙이기, 손발이 적적! 환상의 짝꿍입니다.

어느새 벽면이 그림들로 채워지는데요. 짜잔~ 칙칙하기만 했던 놀이터의 한쪽 벽면이 화사해졌습니다. 삼촌들이 타일벽화 작업을 하는 동안 엄마 이모들은 놀이터 나무들 장식에 한창입니다. 나무들이 반짝이 웃으로 갈아입었네요.

이제 한아름어린이공원은 더 이상 버려진 놀이터가 아닌 엄마와 아이들, 동네 삼촌 이모들의 정성과 사랑의 손길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 ‘우리 모두의 놀이터’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놀이터의 변신은 무죄!! 잡풀과 담배꽂초, 동물의 똥로 가득했던 버려진 놀이터,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 게 무서워 다른 곳으로 피해 다녔다는 놀이터가 사람 향기 물씬 풍기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아름어린이공원이 어떤 변신을 이어갈지 더욱 기대됩니다.



마을인터뷰



일시

2020년 11월 19일(목)
09:00

장소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참여자

정해란(대표제안자)

진행자

임재현(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앞에 한아름어린이공원이라고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이 있는데 그곳이 저도 그렇고 주민들에게도 마을 의제로 남아 있었는데 생생마을터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생기면서 이것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마을공동체 활동 전에 비슷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학교 때 영등포 YMCA에서 서클 활동을 했는데 봉사활동이었어요. 또 <우리 동네 빛내라~> 활동 전에는 양천구청 우수 동아리 활동을 몇 년 했었고요.

3. 이런 활동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도움이 되었나요?

네, 멤버들도 그때 활동을 같이했던 지인들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해서 하기 쉬웠고 또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로 도와주기도 해서 도움이 됐어요. 혼자라면 하기 힘들었을 텐데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전래놀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재료 구입 시에도 구입할 수 없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도 많이 빌려주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기존에 했던 활동들이 이 활동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4. 회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성원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우수 동아리를 했던 멤버 세 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수 동아리를 그만하고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기존 멤버들과 그 자녀들, 또 이 동네의 아는 엄마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했죠. 홍보지를 몇백 부 뽑아서 근처 아파트에 붙이기도 하고 복지관에도 비치하고,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이곳 관장님께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십사 부탁하기도 했어요. 지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사 현장을 지나다가 우연히 보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행사 현장을 지나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관심 갖고 우연히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5. 대표제안자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셨나요?

회계는 처음부터 정해진 한 분이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큰 행사를 주로 담당하고 나머지 한 분은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 주민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작년에는 주민분들이 부모님과 아이들 두세 명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보통 40명 넘게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을 제한했어요.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었죠. 코로나가 끝나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원래 이곳 주민들도 한마을어린이공원을 마을 의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고 홍보를 하러 다니니까 주민들도 마음으로 응원해주겠다, 한 번 가보고 싶다, 함께하겠다, 또 공원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언제 이렇게 좋아졌나 등등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다른 공동체 활동을 하는 분들도 “여기 예전에 내가 알던 곳인데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놀랍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7. 공동체 사업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려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한마을어린이공원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사진 찍으러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타이어로 공원을 꾸며놓으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사진도 찍고, 그 옆에는 타일 벽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잘 짜서 “이곳에 가면 이게 재밌대.”라든지, 매주 혹은 한 달에 어느 주마다 “행사를 한다네.”라면서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바자회도 하고 마을 축제도 다양하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 올해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1년차와 비교해서 2년차는 어떠했나요? 올해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요?

1년차에는 전래놀이 같은 행사도 했지만 주로 공원을 청소하고 풀을 뽑는 정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없다 보니 타이어 작업도 어른들이 많은 분량을 사회적 거리를 두고 했고 타일 벽화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나눠서 작업을 했지요. 여기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외했기 때문에 놀이를 빼다 보니 아무래도 꾸미기 활동 위주로 하게 됐어요.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개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을 하다 보니 주로 굵직굵직한 일들 위주로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작년과 다른 성과는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작업이었고 하루 종일 해야 하고 무거워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도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공원이 작년과 다르게 새롭게 변화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9.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재밌었던 점,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재밌었던 것은 하루 종일 작업하다 보니 팀원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10. 올해 진행한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혹은 보람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요?

타이어 꾸미기도 긴 시간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하고 나니까 정말 좋았지만 그보다 더 보람을 느꼈던 것은 타일 벽화였어요. 타이어 꾸미기는 어른들만 작업을 했는데 타일 벽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고 또 아리랑 TV에 방영되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마지막 타일 붙이기 작업 때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팀의 삼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또 주변의 남자 지인 분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타일 벽화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11.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애로 사항, 관련된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어려웠어요. 소수 인원이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힘이 되고 수고를 덜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날씨 문제였어요. 대부분 벽에 타일을 붙인다든지 물감을 칠하고 말리는 활동이 많았는데 날씨가 따라주지 않아서 활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습니다.

12. 현재 모임의 대표자로서 모임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팀원들이 다 개인 사정이 있고 활동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해 나갈 때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팀원들의 마음이 좋아야 같이 활동하는 것도 즐거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모으고 해결을 같이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 문제나 개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모두 좋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의 마음의 문제는 저희가 함께 일을 하면서 풀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해했던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마음이 풀려야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팀원들 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13.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의 지원은 만족스러웠나요?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너무 많이 지원해주셔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센터에 감사하고 있어요. 마을지원활동가분도 마음을 써주셔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가 미술 쪽은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쪽 일을 하는 분을 섭외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강연도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솔직히 전문으로 하는 분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요. 재능 기부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저희 팀은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 기부를 해주는 분들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4.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활동 전후를 비교할 때 개인적으로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마을공동체 활동이 자신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두 가지 질문에 하나의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을 활동을 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그들을 알게 되고 서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하나의 마을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그런 고리가 생겼다는 것이 저에게 생긴 변화이자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마을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엮이게 되고 서로 알아가고 그런 것들이 내게 가장 큰 경험이 됐고 영향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15. 내가 바라고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는 마을공동체는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만 생각하면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 공동체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알아가게 되었죠. 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갖다 보면 마을에 대한 소속감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을 제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을 활동을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저는 알리는 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을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분들도 동참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6.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네, <우리 동네 빛내라> 사업을 그대로 내년에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진 후에 많은 주민들이 한마을어린이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곳에서 마을 축제, 바자회 등을 열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주말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쉼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17.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센터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원하는 마을 사업도 있지만 우선 센터와 조율해가면서 나도 충족하고 센터도 충족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로 잘 맞춰진다면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나용

공모사업 유형	들樂날樂
모임명	우리모두
주요활동	1. 무엇이든 그려보살 2. 우리마을 그림잔치 3. 우리마을 느린우체통
활동지역	목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거기서 만나용>은 양천구 목4동에 있는 공동체 공간에서, 매일매일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 공간으로 사람들은 여기를 힐링+사랑방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다. 엄마들의 모임 공간, 아이들의 휴식터, 지역의 많은 봉사 모임 공간, 지역 연계 기관들의 축제 준비, 베품시장, 청소년 상담 공간 등 여러 다양한 형식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생활환경이 흔들리면서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졌지만, 공간이 있었기에 잠시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또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도 꺼내고 함께할 수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도 그림을 많이 그린 해였다. 우리 동네에 대해서 생각해 해보았고, 현재 우리 모습을 상상 세계 또는 현실 세계를 그림으로 담아보았다. 몇 달 동안 모아진 240여 점의 그림들은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정목어린이공원에서 전시하기도 했다.

6월에는 '무엇이든 그려보살'이라는 놀이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9월에는 '우리마을 느린우체통'을 진행하였다.

사람의 의미를 만나서 찾고, 그 과정 속에서 매일 배우면서 우리는 더 의미 있게 살게 되었다. 애플당당스튜디오라는 공간이 있기에 함께 라는 가치를 더 새기고 중요시하며 더 즐거운 마을살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다채롭고 더 풍성한 모임들을 해나가고 싶다.

내년에도~~~ 거기서 만나용!!♡

마을동신원



활동명

도자기에 쓰는 캘리그래피

일시

2020년 8월 23일(일)
10:30~12:30

장소

목4동 애플당당스튜디오

아침부터 햇벌이 강하게 내리쬐던 8월 23일 일요일 10시 30분, 목4동 공동체 공간 애플당당스튜디오에서 <거기서 만나용>팀의 8월 활동으로 '도자기에 쓰는 캘리그래피'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나용>팀은 목4동 공동체 공간 애플당당스튜디오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들樂날樂 사업으로 2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서로 나이와 성향은 다르지만, 다채로운 개성들이 모여 다양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마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웃으로 만나 마을을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며,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기도 합니다.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같이 배우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상상하는 것이 좋아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말 아침, 마을 안에서 마을을 나누는 이웃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활동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져 활동을 시작하기 전 마스크 착용은 기본입니다. 각자 손 소독을 하고,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공간의 여기저기를 꼼꼼하게 방역합니다.

다른 분들을 기다리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엄마들의 주된 관심사는 늘 그렇듯 아이들 이야기네요. 집에 있는 아이들 밥 먹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 '마을살롱'에 첫 손님으로 출연한 현진샘 이야기를 하며 하하 호호 웃음이 피어납니다. 마을에서는 모여서 이야기만 해

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시간으로 '도자기에 쓰는 캘리그래피'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종이에 써도 글자가 그림처럼 근사하고 멋진 캘리그래피를 도자기에 써볼 생각에 참여자들은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캘리그래피 활동은 스텔라샘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데요. 주말인데도 기꺼이 품을 내어 함께 해주셨답니다.

먼저 본인이 쓰고 싶은 문구를 생각하고 종이에 써보며 연습합니다. 참여자 중에는 미리 써보고 싶은 문구를 찾아오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스텔라샘의 작품을 살펴보며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과 가족은 잠시 잊고 진지한 모습으로 오롯이 글에 집중합니다. 각자 정한 문구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문구를 정리하면서 이웃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미리 문구를 찾아온 동료에게 칭찬을 보내고, 손으로는 문구를 쓰면서도 일상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문구가 정리된 후에 붓 펜을 이용하여 차분하게 종이에 여러 번 써봅니다. 캘리그래피의 생명은 속도이며, 구도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연필로 구도를 잡고 연습을 많이 해야 좋은 구도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은 공간과 공간 사이에 위치하고, 자음은 같은 형태로 표현해야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그림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글자들의 간격에 따라 같은 글자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네요. 또 강조하고 싶은 글은 크고 굵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듯하지만, 막상 하



려니 쉽지 않은 작업이네요. 마치 마을공동체 활동이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되듯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글에 집중하고 여러 번 반복하여 쓰다 보니 힐링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계속 연습하다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장난기 어린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제 맘대로 할게요,' '자기

글씨체로 돌아오네요.' 등 다양한 반응에 또 한바탕 웃음이 터집니다.

여러 차례 종이에 연습해보고 나서 이제는 실전입니다. 자신만의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들 도자기의 종류를 선택하는데요. 동그란 원형 접시, 예지 있는 사각 접시, 머그컵 중 각자 하나씩 골라서 진짜 문구를 쓰는 시간이 되자 떨리기까지 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은 언제나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 설레기도 하죠.

도자기에 문구를 쓸 때는 종이에 쓸 때와 다르게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덧바르듯이 작업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하느라 끊어질 않던 이야기들도 쏙~옥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접시, 나만의 컵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니까요.

남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컵,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컵, 라벤더 향이 날 것 같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접시, 희망을 원하는 주문(Spero Spera)이 있는 접시 등 다양한 문구를 새긴 각자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과정은 자신만의 문구와 그림을 그린 도자기를 가마로 구워내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이현진샘의 몫입니다.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각자 자리를 정리하고 사용한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모습에서 2년차 주민모임다운 연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캘리그래피를 쓰면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나용>팀의 다음 활동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마을인터뷰

‘귀하는 지역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 2020.9.24. 서울특별시시장 -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09:00

장소

목4동 애플당당 스튜디오

참여자

이현진(대표제안자)

진행자

이호중(마을기록지원단)

1. 마을 활동을 한 지 3년차인데, 처음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는지요?

원래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회화)을 살려 공방을 운영하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졌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을 활동에 참여하게 됐지요. 2018년에 이웃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활동을 처음 시작했어요. 다문화 모임을 통한 마을 활동이었는데요, 언니가 일본에 살고 있고 형부가 일본인이라 언니의 일본 생활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봤구요.

그래서 <다문화와 함께하는 그림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 자신의 전공을 기부한다는 면도 있고, 그리고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도 그림이라는 공동의 언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구요.

2. 모임을 결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우선 다문화 가족들이 어디 살고 계신지도 잘 몰랐고 해서 가까운 곳부터 찾아 나섰고, 처음에 2가족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 일본에서 오신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 12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들로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만이 아니라 대만, 홍콩, 우즈벡,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함께 했죠.

지금은 함께 했던 다문화 가족 중의 몇 가족들이 별도로 마을 활동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모습들도 보여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3. 올해도 ‘들樂날樂’을 통해 마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하게 됐는지요?

마을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공간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행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운영하는 공방은 사실 작은 편이라 고민도 했었죠.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이 진정성있는 연결에 중점을 둔다면 크고 작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들樂날樂’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차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을 2년 전 처음 할 때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사람을 알고 낯을 때의 즐거움을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한뫼한 셈이죠.

4. ‘공간’이 주는 의미가 조금은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다가 이사 가면 그만이라고 마을을 생각한다면 삭막한 일이죠. 내가 사는 마을은 따뜻한 인간의 정이 흐르고 마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서로 만나서 시너지를 통한 경험들이 삶에 보탬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운영하는

공방이지만 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동체 공간으로 내가 남을 위해 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연 것이 아니라 서로 열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저는 첫 문만 열어 놓은 셈입니다.

이쯤에서 이현진샘이 '서울마을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 왔기에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5. 서울마을상을 수상했는데, 올해 성과가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으로 수상의 영예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요?

먼저 '우리 마을 그림 잔치'를 통해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자유주제 혹은 우리 마을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게 한 후 수집해 보니 모두 240여 점이나 모였습니다. 1인당 1점씩 받았으니 모두 240가족이 참여한 셈입니다. 모여진 그림은 모두 사진 파일 작업을 통해 대형 현수막 5장에 나누어 편집했고, 마을 정목 놀이터에서 한 달간 전시도 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엄마들이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우리 마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돈독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현진샘은 한번도 공간을 닫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코로나로 나오기는 어려웠지만, 공동체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외연을 넓혀 밖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자주 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행사는 놀이터 행사였는데, '무엇이든 그려 보살'이라는 행사와 '우리 마을 느린 우체통'이라는 행사입니다.

'무엇이든 그려 보살'은 놀이터 한 공간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이틀테면 테이블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 비치), 누구든지 와서 낙서나 그림 등 아무거나 그려보는 공간을 제공해준 것입니다.

'우리 마을 느린 우체통' 행사는 9월 마지막 토요일 정목 놀이터에서 했습니다.

정목 놀이터에 모인 아이들에게 엽서를 나누어 주고 편지를 쓰게 한 다음 1년 뒤 발송하는 느린 우체통 체험을 하게 한 것이죠. 아이들이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아이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쓴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1년 뒤 발송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 목동지역을 중심으로 벽화사업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죠?

지난해 목4동 지역에서 벽화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주택가의 벽에 그림을 그려서 마을 환경도 좋아지고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목3동 주민자치회 사업의 일환으로 타일 벽화사업을 위해 저의 공방에서 타일 벽화에 사용할 타일 300개를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11월에는 목2동에서 펼치는 벽화사업을 맡아서 <거기서 만나용>팀의 참여자 7인이 함께 벽화를 그려서 완성시킨 일도 있습니다.

7. 마을 활동을 하면서 함께하는 참여자들과 갈등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요?

서로 의견이 달라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통해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었기에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8. 마을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마을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른바 하고 싶어 하는 병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것 저것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져요. 일을 하면서 중간 중간 정리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마을 활동을 시작할 때 남편이 반대하는 편이어서 그 점도 힘이 들었는데 다행히 요즈음은 일을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9. 마을 활동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본다면요?

참여자들의 확실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바뀐다. 저 자신도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구요. 이러한 변화는 마을 활동을 추진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도 변하는 것 같아요. 마을 활동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비참여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새로운 참여자가 확대되는 등 행복 바이러스의 전파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동일한 것 같아요.

10. 이상적인 마을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활동이 일부의 소유나 모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가치 공유 등 균형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웃이 되고 친해져서 마을에 대한 애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사실 처음에는 마을 활동을 하는 한 명의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을을 품어 가는 엄마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 2021년도 계획은 무엇인가요?

‘들樂날樂’에 다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마을 활동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안에서 보다는 밖에서 하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오히려 열린 공간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닫혀진 공간은 사람들이 오기까지 쉽지가 않지만 열린 공간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공방도 당연히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만, 공간의 범위를 한 뼘 넓혀 밖에서 하는 활동도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을 비단 목4동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12. 마을공동체로 오행시를 지어 주세요.

마: 음을
을: 라울라 하면서
공: 동체의
동: 심을
체: 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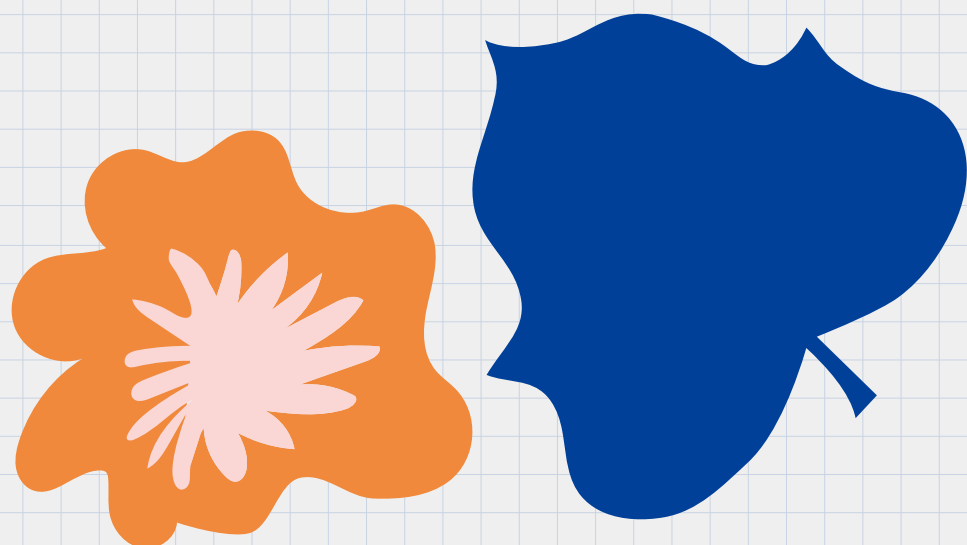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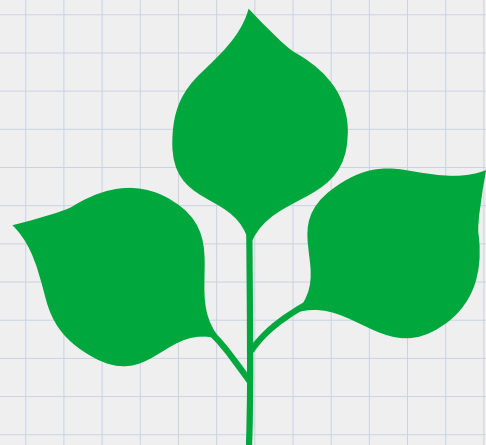


함께라서 행복한 양천구 마을공동체

- ◆ 양천구 마을공동체 with 코로나
- 나눔, 배려 그리고 희망
- ◆ 코로나19 속에서도 양천구
마을공동체는 자라고 있습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with 코로나

- 나눔, 배려 그리고 희망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힘내라 양천!



<힘내라 양천!> 면 마스크 만들기 및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초래된 마스크 대란이라는 국가 재난을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힘내라 양천!> 1탄에 26개 주민모임, 311명의 주민이 참여하셨는데요, 재봉과 뜨개 활동을 해왔던 모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도 많았습니다. 모임별로 성격은 다

다르지만 어려운 시기에 나눔과 연대의 마을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 하셨습니다.

센터는 먼저 누구라도 면 마스크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키트를 표준화하는 데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내 가족에게 나누는 마음으로 최고의 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말 많은 분과 함께 했습니다. 최고의 원단과 부자재를 찾기 위해 센터장님이 동대문종합시장을 몇 차례 방문하고, 신월4동 김창숙샘은 착용했을 때 숨쉬기 편한 형태와 예쁜 디자인으로 도안을 해주셨습니다. 면 마스크 7,000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단을 디자인에 맞춰 재단하는 일은 신월1동 C&S 박철이 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재능을 나누려는 숨은 고수부터 예전에 재봉틀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가며 함께하신 분, 손바느질 초보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주민자치회, 생협,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학교 교사, 어린이집 교사, 공무원 등 참으로 다양한 연령, 계층의 주민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3월 18일에서 3월 31일까지 311명의 주민들이 총 7,000개의 면 마스크를 제작하였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함께하겠다면, 너도나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받으시는 분들께 기쁨을 드리겠다며 정성을 다해 만드는 아이들의 고사리 손길에 사랑이 전해져왔습니다. 프랑스 자수로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기도 하고 예쁜 손 글씨로 일일이 응원의 메시지도 써주셨습니다.

힘내라 양천! 면 마스크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이 깃든 손길과 마을공동체의 힘을 듬뿍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면 마스크는 18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3,500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힘내라 양천!> 2탄은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2,000개의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담도폐쇄증환우회, 살레시오 청소년 미래교육원, 용산 나눔의 집, 요양보호사 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힘내라 양천!> 3탄은 참여주민들이 면 마스크를 나눌 대상을 직접 발굴하여 경비원,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폐지수집 어르신 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힘내라 양천!>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보자는 응원과 안부의 메시지가 마을 곳곳에서 이웃들에게 전해졌으며, 상호부조와 연대의 마을공동체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힘내라 양천!> 캠페인은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이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또한 기획, 시제품 및 키트 제작, 면 마스크 만들기, 전달식까지의 전 과정에 주민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한 민관협력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극복 공동체백신나눔 수기공모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과 주민들의 코로나 극복 노력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기억하기 위해 5월 25일(월)부터 6월 28일(일)까지 한 달여간 코로나 극복 공동체 백신나눔 수기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수기 공모에 총 58건의 사연이 접수되었는데, 유아, 초·중고생, 성인, 어르신, 주민자치회, 생협, 새마을부

녀회, 통장협의회 등 다양한 연령, 계층의 주민이 코로나 극복 우수 사례, 감동 사연,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제 경험을 담은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글로 진정성 있게 표현해 주셔서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을 고르는 데 무척이나 애를 쓰셨답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감동과 희망이 되는 사연으로 주민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수상자 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습니다. 양천백신상 1명(3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행복바이러스상 5명(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함께라서행복한상 11명(5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등 총 17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도 나누었습니다.

청년 유** 샘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행복한세상백화점 앞 광장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었던 '바로 서기'라는 시로 응모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표* 학생은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는 활동을 했는데, 수필로 한 번 남겨보지 않겠느냐는 샘의 제안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뿌듯함을 경험하고, 글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고 합니다.

글쓰기 지도를 하는 유** 샘은 우연히 수기공모 현수막을 보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

까지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시상식을 통해 여러 사람의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다고 말씀 해주셨네요.

시상식을 통해서 저마다의 감동적인 사연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림, 일기, 시, 수필, 편지글 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극복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 다양한 응모작들은 2020년 상반기 동안 주민이 경험한 코로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응모작들은 수기공모책자로 발간하여 많은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행복밥상 꾸러미 뉴(New) 딜(Delivery)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행복밥상 꾸러미 뉴(New) 딜(Delivery) 공모사업>은 14개 주민센터를 통해 동별로 15가구씩, 총 210가구를 추천받아 2020년 9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5주간 총 10회에 걸쳐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이 준비한 행복 밥상 꾸러미를 전달한 활동입니다.

공모를 통해 14개 동별로 꾸러미 제작을 담당하는 주민모임과 꾸러미를 전달할 주민을 선정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상호부조

와 마을공동체 정신을 실천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웃 나눔 실천, 골목경제 활성화, 마을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30일(수), 추석 선물로 첫 번째 마을공동체 행복밥상 꾸러미 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양천아이쿱생협과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의 적극적

인 협조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라고 건강 먹거리, 안심 먹거리로 푸짐하게 준비한 꾸러미를 정성껏 포장하여 전하였습니다.

5주간의 꾸러미 전달을 마치고 11월 12일 목요일과 11월 25일 수요일 두 차례로 나누어 그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참여자분들과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영상을 통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각 동에서 내 이웃을 위해 정성스레 꾸러미를 준비하고 전달한 5주간의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작부터 모두 눈시울이 자꾸 붉어지며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고 하시네요.

특히 목4동에서는 꾸러미 전달 과정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하고 주민센터 및 구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돌봄을 마을공동체가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국가 재난 극복에 기여하며,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해 꾸러미를 제작하고, 활동비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5주 동안의 마을공동체 행복밥상 꾸러미에 담긴, 이웃을 향하는 따뜻한 사랑과 정성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일상적인 관계망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품을 내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꾸러미에 담고자 애써주시고, 따뜻한 마음과 정성까지 가득 담아 전달해 주신 100여 명의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와 나의 마을응원 캠페인

오하공!



2020년의 시작과 함께 발발한 코로나19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2월 말, 움츠린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마을 곳곳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을공동체 릴레이 명랑 캠페인 <오하공!>을 진행했는데요.

<오하공!>은 ‘오늘 하루도 마을공동체의 힘으로~!’라는 뜻으로 마을공동체 SNS 소통방에서 매일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소한 마을살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긍정과 행복

의 기운을 전파하고자 진행한 캠페인입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마음만은 더욱 끈끈하게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SNS상에서 서로 안부를 나누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9시, ‘카톡’ 소리로 시작하는 아침.

“모처럼 방콕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코로나 덕분(?)에 새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네요~. 카톡방에서 날마다 사진을 올리면서 이 와중에 끈끈하게 소통 중입니다. ...”(이선화)

“봄 느낌이 살랑살랑 드는 아침에 코로나로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힘들지만, 공동체방에 글을 남길 수 있어 행운과 행복이라 여깁니다. 긍정의 힘과 희망은 언제나 작용합니다. 그 힘을 믿고요!! 잘 이겨내리라 늘 생각하고요!! 핫팅 핫팅♡♡♡♡♡”(이현진)

“지난 3월 1일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손 글씨 릴레이에 동참해보았어요~. 매년 참여하지만, 올해는 아이들도 저도 응원의 마음을 듬뿍 담아보았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 19”(이선미)



오늘 하루도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마음의 원동력이 되어가는 오하공~!

2020년 2월 26일(수)부터 3월 13일(금)까지 매일 아침, 마을 곳곳의 소소한 이야기를 마을공동체 소통방에 공유하면서 ‘몸은 멀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매일 가장 먼저 사연을 올리는 주민에게는 빵튀기 선물을 배달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위로와 응원을 보내며 마을공동체성을 확인하여 긍정의 기운과 행복 바이러스를 마을 곳곳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거야~!



2020년 5월 5일 화요일 11시, 행복한세상백화점 앞 광장에서 <괜찮아! 잘 될거야!> 마을응원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3 수험생과 영세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입니다. 약 300명의 고등학생에게 15곳의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착한 소비를 통해 마련한 응원 꾸러미와 간식 쿠폰을 전달하고, 당일 현장에

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작성한 응원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은 부끄럽고 어색해하면서도 정말 기뻐했는데요.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휴일을 맞아 광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여 준비한 600장의 응원 메시지 카드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마을의 어르신, 부모님, 선배, 후배, 그리고 어린 동생들의 정성 어린 응원이 고3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나눠주신 응원의 마음들입니다.

- ◆ 형아 누나 힘내세요♥
- ◆ 인서울하시면 밥 사주세요~.
- ◆ 수험생 형님들 힘내세요! 저도 곧 따라갑니다~.
- ◆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당황스럽겠지만, 집중 잘해서 수능 대박 기원할게요!
- ◆ 코로나19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ㅠㅠ 열린 이 사태가 진정돼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만 참으시고 힘내세요! 재수 없다! (코로나로 입학 못한 고1 백수)
- ◆ 코로나 이겨서 대학도 통과! 고3 파이팅~
- ◆ 준비하고 꿈을 이루길! 파이팅!
- ◆ 엄마가 준비한 밥 먹고 파이팅!!
- ◆ 코로나19로 시작부터 힘들었던 2020년이지만 2021년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 날은 고3 수험생에게 마을의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롯이 고3이 주인공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준비한 두더지게임과 다트 게임에 참여하면서 온 가족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위캔두!



<위 캔 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들고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파리공원 등 관내 주요 공원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함께 희망과 격려를 나누는 마을응원 캠페인인데요. 위 캔 두는 '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캔: 앞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다', '두: 희망의 두드림을 함께해요~!'를 의미합니다.



<위 캔 두!> 캠페인은 2020년 5월 24일(일)부터 6월 21일(일)까지 양천구 관내 주요 공원을 순회하며 총 8회 차로 진행되었습니다. 7회 차까지는 '찾아가는 제자리마을운동회'를 진행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이 서로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외활동이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발열 체크, 손 소독을 꼼꼼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찾아가는 제자리마을운

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자리를 잡고, 유아, 초등학생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정말 많은 분과 함께했습니다. 집에서도 공원에서든 각자 격리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주민들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반갑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제자리마을운동회는 '에너지 팡팡!', '다함께 차차차', '으랏차차 힘을 내~!' 순서로 진행됩니다.

'에너지 팡팡!'은 유재경씨의 워킹 자세 설명을 듣고, 가볍게 머리, 가슴, 배, 손바닥을 두드리면서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동작을 익혔습니다. 가벼운 몸동작이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운동도 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다함께 차차차'는 재미누리협동조합 송기문샘으로부터 3가지 기본 동작을 배우고 나서 신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컵타 연주를 했습니다. 어느새 손발이 척척, 마치 멋진 컵타 공연이 펼쳐진 듯합니다. 지나가는 주민들도 흥겨운 모습에 가던 길을 멈추고 응원의 마음을 나누며 참여해주십니다. 함께하는 마을의 응원가가 널리 퍼집니다.

'으랏차차 힘을 내~!'는 광목천에 응원의 글과 그림을 그려 나와 주변 지인, 이웃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현장에서 응원의 마음을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일요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8회 차는 행복한세상백화점 앞 광장부터 파리공원까지 가면 퍼레이드 및 캠페인을 진행한 후, 파리공원에서 찾아가는 제자리마을운동회, 코로나 박멸 물 풍선 터트리기를 함께하였습니다.

<위 캔 두!> 캠페인을 통해서 마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코로나 시기에 가능한 주민모임의 활동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웃 간 관계망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며, 마을공동체의 중요성과 역할을 지역사회에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내라! 마을 바캉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희망과 격려의 마을응원 캠페인 <위 캔 두!>로 양천구의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찾아가는 제자리 마을운동회를 진행한 데 이어, <힘내라! 마을 바캉스>는 코로나19와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일석이조의 마을응원 캠페인으로, 마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자리 마을운동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5일(토)부터 8월 15일(토)까지 골목 곳곳의 어린이공원을 순회하며 총 7회 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힘내라! 마을 바캉스>는 ‘다함께 차차차’, ‘너와 나의 마을응원 그림그리기’, ‘코로나 박멸 물풍선 트리기’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함께 차차차’는 띄엄띄엄 dot자리를 띄고 앉아 재미누리협동조합 송기문샘의 진행으로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컵타를 연주하는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마을응원 그림그리기’는 목4동 공동체 공간 애플당당스튜디오의 이현진샘이 그려온 마을응원 밑그림을 협동화로 함께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라♡/ 친구야 사랑해/ 아빠 힘내세요/ 엄마, 코로나 이겨내요!/ 의료진 선생님들은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와! 건강한 여름 나기♡/ 아이들이 편하게 숨 쉴 수 있기를... / 모두 힘내요! 등등

함께 그린 마을응원 그림은 해당 공원에 한 달 동안 전시하여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과도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박멸 물 풍선 터트리기’는 코로나 모형을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줄을 서서 차례대로 물 풍선을 신나게 던져 봅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를 정말 한방에 날려버릴 기세로 힘차게 던집니다.

작은 어린이공원에 늘 나와 계신 어르신들과 놀이터의 주인공인 아이들 모



마을살롱



5, 4, 3, 2, 1, 땡~. 저녁 8시 정각이 되면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바로 온택트로 즐기는 마을인물 열전 ‘사람책’ 함께 읽기 코너인데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사업지기를 <마을살롱>에 초대하여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습니다.

‘사람책’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사람을 책으로 초청하여 소중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휴먼라이브러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을살롱>은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람책’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살롱지기인 바리스타 초이(최혜임, 마을사업지기)의 진행으로 함께 했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수요일부터 격주로 1시간 동안, 신정1동 바느질하는 바리스타와 목4동 애플당당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1회 차는 들樂날樂 <거기서 만나용>의 대표제안자이자 목4동 공동체 공간 애플당당스튜디오 공간지기 이현진샘, 2회 차는 우리마을지원사업 <아빠들의 커피 수다>의 대표제안자이자 바바 공간지기 박건영샘, 3회 차는 생생마을터 <우리 동네 빛내라~>의 대표제안자 정해란샘, 4회 차는 마을주관을 맞이하여 특별 손님으로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과장, 5회 차는 이웃만들기 <다문화가정과 함께 공생 공영의 삶>의 대표제안자 구와하라 아끼꼬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활동 내용, 마을 활동 전후의 삶의 변화, 감동적인 일, 어려웠던 점, 마을의 공간과 사람 이야기부터 소개하고 싶은 의미 있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초대 손님들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마음 끌리는 대로 시작해보세요!! 물론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마을에서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저처럼 행복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박건영)

“마을공동체는 가치, 취미, 생활 등 공동체로, 근거리에서 살며, 급할 때, 숨 넘어가기 전에, 아플 때 살펴봐 줄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물통 들고 뛰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서로 신뢰하는 관계.”(최순옥)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어떤 소중한 인연이 맺어질지 모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을로 나오세요~ 도전하세요~.”(구하와라 아끼꼬)

이렇게 <마을살롱>을 통해 마을공동체 주민 리더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공유하고, 실시간 댓글 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택트 방식으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심리적인 면역력을 다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의 근황 소개를 통해 상호 간 교류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었죠.

나아가 일반주민들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여 보다 친숙하고 쉽게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아~~이장입니다!



2020년 10월 16일부터 격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온라인 마을응원 캠페인 <아~아~~이장입니다!>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마을응원 캠페인 <위 캔 두!>, <힘내라! 마을 바캉스>에 이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아~아~~이장입니다!> 온라인 마을응원 캠페인은 총 3개 코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 (1) ‘오늘도 체면차립시다!’: 체조로 면역력을 챙기는 날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몸 풀기와 체조하기
- (2) ‘딩동딩동~ 이장이어유~’: 이장이 직접 주민모임을 찾아가 안부 묻기와 함께 묻는 게릴라 인터뷰
- (3) ‘양천은 지금’: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필요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

올해 진행된 총 4회 차 방송 중에서 1회 차에서 3회 차는 첫 번째 코너인 ‘오늘도 체면차립시다!’로 진행되었습니다. 재미누리협동조합 송기문샘의 킥타 연주와 신월1동 ‘수요밥상; 지역주민과의 소통Day’의 박인순샘의 신나는 레크 댄스를 온라인상에서 함께하며, 신나고 재미있는 운동과 웃음으로 힐링과 면역력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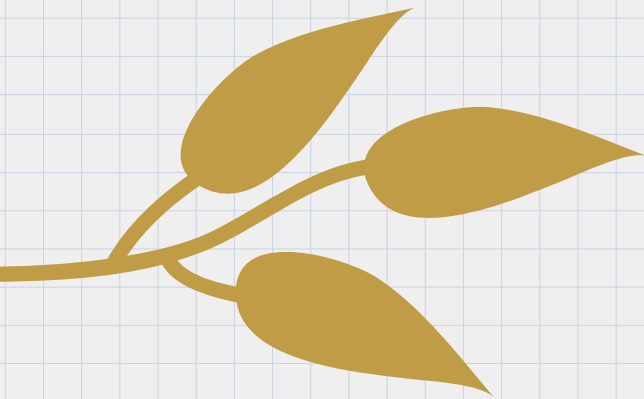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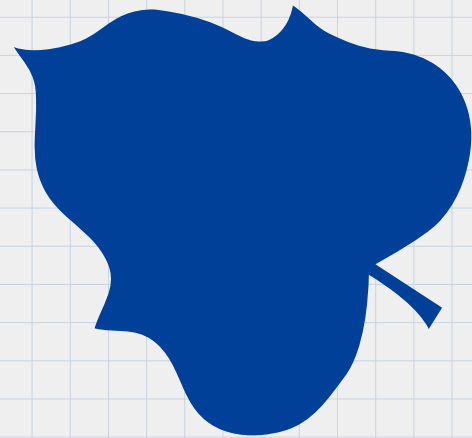
하나둘~ 하나둘~ 추억의 국민 체조로 굳었던 몸을 풀고 나면 기분 좋은 온기가 사르륵 감돕니다. 이어서 킥타와 레크 댄스를 통해 체조를 함께하며 면역력을 팍팍! 키우는 시간이었죠. 몸은 멀어도 함께하면서 지켜보면서 내내 웃음꽃이 피어나고, 엔돌핀이 힘차게 솟아나는 듯했답니다.

4회 차에는 두 번째 코너인 ‘딩동 딩동~ 이장이어유~’로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인 신월2동 스카이 그라운드를 찾아가 재미누리협동조합의 근황과 다양한 활동, 따뜻한 마을공동체 경험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사람과 공간을 알아가고, 상호부조와 호혜의 마을공동체 정신을 나누며, 희망과 격려의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마을응원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양천구 마을공동체는 자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어렵지 않아요!

공모사업 설명회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 주에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취지를 전달하고 공모사업의 유형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통합설명회와 찾아가는 설명회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해누리타운 2층 해누리홀에서 <통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참석 주민들이 모두 손 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통합설명회>는 총 2부로 진행되었는데요. 1부에서는 박진갑 센터장님이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2020 공모사업을 유형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2부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목적과 취지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활동했던 이웃만들기 '마음모아 뜨개나눔', 우리마을지원사업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생생마을터 '우리 동네 빛내라~', 마을해결책 '가즈아! 2019 피플 퍼스트대회', 들樂날樂 '거기서 만나용!' 팀의 선배 사업지기샘들을 초대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보람있었던 사례 등을 생생하게 나누었습니다.

2월 첫 주에는 <통합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목동, 신월, 신정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열어보는 '마을공동체 할까말까송'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환기하며, 양천구의 퓨어 박~! 박진갑 센터장님의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사업유형별로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진행

하고자 하는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마을자치센터의 마을지원활동가 강희녀 강사의 진행으로 ‘뽐히는 제안서 쓰기-제안서 같이 써 볼까요?’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보다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활동계획을 제안서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주민들끼리 이웃을 만들고 관계를 맺는 모임을 하는데 왜 세금을 지원해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정모임 워크숍 ‘반가워요~ 마을!’



5월과 6월에 <선정모임 워크숍 ‘반가워요~마을!’>이 있었습니다.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와 이웃만들기에 선정된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우리마을지원사업, 생생마을터, 들날날 등 통합공모에 선정된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차례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모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회계 정산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세금

으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열정과 품도 많이 내야 하지만, 낯선 정산서류 정리 등 새롭게 익히고 배워야 할 부분도 참 많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지원활동가들과 센터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역할극을 선보였는데요. 식·다과비, 소모성물품비, 홍보인쇄비, 활동비, 임차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어 주의해야 할 점을 콕콕 짚어주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지출증빙서류를 정리하는 방법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해보았습니다. 직접 해보니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저절로 궁리하게 됩니다. 마무리로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개사한 ‘정산의 달인송’을 함께 불렀는데요. 보조금 사용과 정산과정을 쉽게 요약한 가사가 매우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설명으로 듣고, 직접 해보고, 흥겨운 노래로 다시 정리하며 즐겁게 체득할 수 있었던 선정모임 워크숍이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이웃만들기에 선정된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목동권, 신월권, 신정권과 구단위 이웃만들기로 나누어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은 박진갑 센터장님의 축하와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는 주민모임을 응원하며, 향후 어떻게 하면 활동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지 센터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장휴 강사의 ‘공동체 속 역할 찾기: 스토리 명함 만들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명함을 만들면서 공동체 속 역할을 고민하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사업지기샘들이 만들어낸 다양하고 이색적인 나만의 직함이 탄생했습니다. 마음연결가 모리 카즈에/ 소통디자이너 김정미/ 행복바이러스 신혜용/ 라이프 코디네이터 김은혜/ 행복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터 김세영/ 소소한 아이디어 뱅크, 선물 같은 삶 김미혜/ Life Miner 이경언/ 빛나는 我 탐색가 이혜은/ 또바기 행복 나눔가 김보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박정남/ 가을하늘 힐링닥터 김영민/ 지혜로운 (중년) 삶의 러너 김종란/ 행복수레 여행가 김귀자/ 사회복지사 김해나/ 해결사 송은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김정옥/ ♥귀요미♥ 민병순/ 한빛 사시월 주민모임의 리더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마을 속 역할이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마지막으로 정산실무 교육으로 ‘실전 준비: 정산 A to Z-!’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인 보조금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보조금 지출 방법과 지출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한 양천구 마을공동체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모든 주민모임을 응원합니다.



마을로 한 걸음 더

마을아카데미



7월과 8월에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배우고 마을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보는 <마을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석인원을 소규모로 나누어 강좌별로 3회씩 진행했는데요.

7월에는 뮤지컬 배우이자 관계소통 강사인 박무진님을 모시고 관계·소통을 주제로 ‘소통의 시작, 나의 목소리를 찾아라!’ 강의를 있었습니다. 몸 스트레칭, 박수치기로 어색했던 분위기를 환기하고 나서 박무진 강사의 멋진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많은 마을사업지기들에게 떨지 않고 말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친구야 놀자’라는 문구를 제안해주었습니다. 소통의 시작은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것인데 부담스럽거나 어색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구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직접 느껴보기 위해 서로 잘 모르는 참석자끼리 2인 1조가 되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1분 동안 자기 소개를 한 후, 옆 짝꿍의 소개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짝꿍을 소개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친구를 소개한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니 하나도 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내 목소리 찾기’입니다. 본래 타고난 나의 목소리 톤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진정성과 진심을 담은 목소리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데 자신이 타고난 본래의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할 때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월에는 ‘숲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마을인문학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숲 철학자

김용규 강사를 모시고,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마을활동을 하는 목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숲과 마을공동체의 상관관계는 “숲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마을이 공동체가 되는 과정과 같다”고 합니다. 나대지 상태의 자연에서 풀들이 자라고 죽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장소는 다른 터전이 되어 소나무가 자라나고 숲을 형성하게 되는데, 마치 좋은 살터를 만들기 위해 마을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 유사하다는 의미겠지요. 우리가 골목골목에서 하는 소소한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마을공동체는 철학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을활동에 철학이 왜 필요하냐구요? 철학이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세상과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규범, 즉 생각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고 생각의 기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을과 마을에 사는 사람들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고자 하는 마을공동체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다음으로 좋은 삶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마을활동을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은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동네 골목에 버려진 휴지를 줍는 작은 행동은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는 우리 동네를 위한 실천이랍니다. 마을공동체의 호혜의 정신이 이 작은 실천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을인문학은 ‘우리는 어떻게 나로 살고 또한 우리로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숲의 지혜에서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할 것은 ‘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실무교육



마을공동체 주민모임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모임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에는 주민모임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아카이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영상편집 교육 '우리모임 뽐뽐뽐'을 마련하였는데요. 다큐영화 '가현이들'의 윤가현 감독이 교육을 담당해주었습니다.

먼저 편집에 대한 개념과 낯선 용어들을 익힌 후, 편집툴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사진도, 봄날에 찍어 둔 어여쁜 꽃들도 짧은 시간 동안 멋진 영상으로 탄생합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니 모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후기를 들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멋진 영상으로 기록되길 기대해봅니다.

7월에는 '쫘·유썸이 알려주는 마을활동 원 포인트 레슨'이라는 주제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마을활동이 다소 위축되었던 터라, 마을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밸런스워킹과 컵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캔 두> 캠페인의 제자리마을운동회에서 진행을 맡았던 유재경샘과 송기문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유재경샘의 '힐링타임, 밸런스워킹 원 포인트 레슨'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자세를 배우고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하나씩 배웁니다. 하나, 두울, 세엳, 네엳, ... 열! 동서남북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밸런스워킹을 하다 보니 움츠렸던 어깨도 우울했던 마음도 활짝 펴지는 듯합니다. 잘 배워서 모임에서 응용하겠다는, 동작 하나하나를 익히는 샘들의 모습이 진지한데요. 체온이 높아지니 땀이 송글 송글 맺히며 어느새 기분도 개운해졌습니다.

다음은 재미누리협동조합 송기문샘의 '컵타 원 포인트 레슨'입니다.

네 가지 간단한 동작을 익히고, 쉬운 노래부터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컵타 연주를 해봅니다. 3~4명씩 짝을 이루어 배운 동작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동작도 만들어서 모둠별로 컵타 연주를 뽐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롭게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해서 마을 곳곳에서 '이웃 간의 친밀한 관계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1번 모여라



양천구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의 리더(대표제안자 1번)들을 대상으로 <1번 모여라>를 진행하였습니다. <1번 모여라>는 주민모임을 이끄는 대표제안자 1번들이 서로 교류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주민모임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는데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5월에는 강북구 마을공동체 주민조직활동가인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의 우성구 트레이너를 모시고, '주민

모임소통'을 주제로 첫 교육이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人(사람)'이란 혼자가 아닌 서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고민이 필요하답니다. 20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각 주민모임의 대표들은 자신의 모임을 되돌아보며 소통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더들이 가진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며,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코로나로 활동이 조심스러운 시기, 어떻게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두 차례로 나누어 <1번 모여라: 네트워킹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 주민모임 소개와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의 활동을 독려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했는데요. 다른 주민모임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교류하자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이밖에도 센터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몰랐거나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제도에 대해서는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센터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웃음을 지으며, 때로는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서 센터에 대한 주민리더들의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과 격려를 통해 앞으로도 잘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른 다양한 주민이 모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7월 말에는 '갈등관리, 뿔이 중헌디~'라는 주제로 (사)갈등해결과 대화의 상임대표인 전상희 강사를 모시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하는지, 갈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방법을 실습을 통해 배워보았습니다.

10월에는 ‘마을공동체 이해하기(나와 마을공동체)’라는 주제로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의 이경희 트레이너를 모시고,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게 된 계기,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하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국, 마을공동체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 주민 스스로 만드는 것,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 방법을 찾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 26일과 27일에는 이경희 트레이너를 다시 만나 ‘양천구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마을리더교육’이라는 주제로 <1번 모여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동안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민모임 리더인 대표제안자 1번샘들은 마을을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품을 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번 모여라>의 지속적인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각 주민모임의 활동이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비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7월 말에서 8월 초에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예비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이 있었습니다. 예비마을지원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으로, 총 4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의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해주셨습니다.

1강은 7월 29일(수) 오후 3시, 해누리타운 5층 나눔실에서 있었는데요, ‘왜 마을공동체인가?’라는 주제로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소라 센터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20여 년간 노원구에서 활동해 온 김소라 센터장님의 경험담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보편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을공동체 정책의 흐름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모사업, 교육,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마을 주

민들이 관계를 맺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마을공동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기도 했는데요. 참여한 샘들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공감하였습니다.

2강은 7월 31일(금) 오후 3시, 해누리타운 5층 나눔실에서 ‘성장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박진갑 센터장님이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소개해주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례와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속에서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중심은 주민들의 주도성에 있으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면서 강의에 집중하는 샘들의 모습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이어서 참석한 샘들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어떤 것이며 마을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나의 역할을 찾고자 고민하는 샘들이 든든했습니다.

3강은 8월 5일(수) 오후 3시, 해누리타운 5층 나눔실에서 ‘마을에서 활동가란?’ 주제로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소라 센터장님의 강의를 있었는데요.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로카드를 보는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향을 살펴보고 ‘마을에서 나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이어서 노원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고민하는 샘들에게서 함께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밝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4강은 8월 7일(금) 오후 3시, 해누리타운 8층 회의실에서 있었는데요. 관악마을활동가 여용옥샘과 함께 1-3강에서 배운 내용을 나의 언어로 정리하고 마을공동체의 비전을 찾아보는 워크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을지원활동가를 시작하려는 샘들에게 대선배 여용옥샘이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보다 내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활동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3년 뒤의 양천구 마을공동체를 상상해보고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일,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꿈꾸는지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 마을지원활동가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의 마음 그대로 쪽~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비마을지원활동가샘들을 응원합니다!

마을을 잇다

마을주간



9월 21일(월)~9월 26일(토), 10월 10일(토)~10월 16일(토) 총 2주 동안 양천구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10군데에서 <마을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주민모임들이 파리공원에 모두 모여 한해 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교류하며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일반주민들에게 알리는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어려워져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10군데에서 <마을주간>을 운영하였답니다.

<<Hug Earth>>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과 배려의 마을로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1) 환경보호와 이웃 나눔 캠페인, (2) 공동체 공간 맛보기, (3) 따뜻한 연결, 안전한 마을(마을사업지기 교류회), (4) 우리모임 뽀뽀뽀(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홍보 및 체험)이 진행되었는데요. 마을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시간을 늘리고, 규모를 줄여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소중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10곳을 소개하자면, 애플당당스튜디오(목4동), 장미어린이공원(목5동), 신월1동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아름어린이공원(신월2동), 스카이 그라운드(신월2동), 엄마의 작업실(신월3동), 범블비썬스튜디오(신월7동), 바느질하는 바리스타(신정1동), 연의생태공원 힐링텃밭(신정3동), 올리브의 바느질이야기(신정4동)입니다.

환경보호와 이웃 나눔 캠페인에서는 10군데 거점공간에 빈 우유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우유팩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공간별로



환경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워크숍을 진행하여 환경보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실천 선언문'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 맛보기는 10군데의 공동체 공간을 소개하고 공간지기의 공간운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뜻한 연결, 안전한 마을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간의 네트워크 파티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주민모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공감팔찌를 만들어보았는데요. 이웃하는 주민모임들을 알아가고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모임 뽀뽀뽀은 올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52개 주민모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일반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 활동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을주간 동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참여자들이 만든 천연염색 손수건, 핸드폰 크로스백, 에코백, 뜨개 수세미, 냄비받침, 도자기 화분, 수저받침, 인견 때밀이 타올, 팝아트 작품, 짬짬팩, 다양한 마스크 목걸이 등의 마을 수작들은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을 하기로 했는데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여 10월 18일(토)에 열리는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주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주민모임들이 모여 관계망을 넓히고 연대하며 주민모임 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공간을 거점으로 주민모임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모임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동네의 안전한 공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환경보호와 이웃 나눔의 실천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한마당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파리공원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2주 동안 진행한 마을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마을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결’, ‘환경’, ‘나눔’을 주제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은

- (1) 연결: 제자리마을운동회, 너와 나의 마을응원 협동화 그리기
- (2) 환경: 환경골든벨, 실천사례 나눔, 환경보호 실천선언문 작성하기
- (3) 나눔: 천연수세미 만들기 및 전달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모임 52개 팀의 마을사업지기 등 총 100여 명이 함께하셨습니다.

파리공원 가장자리에서는 마을전시회도 열렸는데요. 주민모임이 골목골목에서 활동한 모습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올 한 해 센터에서 진행한 다양한 캠페인의 활동사진도 전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춤 없이 활동을 지속해온 양천구 마을공동체 주민모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공원 가운데에 100여명의 초대손님을 위한 지리가 마련되었습니다. 1인 1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하여 충분히 거리를 유지합니다. 지난해처럼 많은 주민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파리공원 한 켠에는 1, 2차 마을주간 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사랑과 정성의 손길로 만든 수작 22종, 총 508점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여 전시하였습니다. 천연염색 손수건, 핸드폰 크로스백, 에코백, 뜨개 수세미, 냄비 받침, 도자기 화분, 수저받침, 인견 때밀이 타월, 팝아트 작품, 짬질팩, 다양한 마스크 목걸이 등등. 초대된 손님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전시된 수작들의 판매 수익금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약속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보호를 위한 마을공동체의 작은 실천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어느새 100개의 자리가 속속 채워졌는데요. 화창한 가을날 이렇게나마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이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자리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우정과 연대로 함께 해주신 성남 논골마을의 윤수진 대표를 비롯해 부산, 강릉, 영등포, 서초, 용산 등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여러 활동가샘들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시작합니다. 오늘 사회는 들樂날樂 <거기서 만나용>팀의 박선화샘이 맡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연결’을 주제로 한 제자리마을운동회와 너와 나의 마을응원 협동화 그리기인데요.

신월1동 <‘수요밥상’; 지역주민과의 소통Day>팀의 박인순샘과 함께 시작합니다. 추억의 국민체조 구령에 맞춰 하나둘 하나둘 몸풀기를 하구요. 이어서 재미누리협동조합 송기문 이사장의 진행으로 신나는 컵타도 함께 연주합니다. 다시 박인순샘의 레크체조로 이어지는데요,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별과 바람이 좋은 날, 야외에서 신나는 댄스를 함께하니 더욱 즐겁습니다. 다음으로 들樂날樂 <거기서 만나용>팀 이현진샘의 진행으로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너와 나의 마을응원 협동화 그리기’가 시작됩니다. 멋진 가을풍경 스케치가 모두의 손길을 거쳐 알록달록 단풍이 든 근사한 작품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협동화가 완성되는 동안 목4동 장재영 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는



분위기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모두 정성스레 색칠을 하고, 서로를 위한 응원의 문구도 남겨봅니다.

이어지는 축하공연 시간. <날개를 활짝펴고 세상을 자유롭게>팀이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누이'를 들려주었고, <배움+나눔+해소 우쿨렐레 마을>팀이 우쿨렐레로 '조개껍질 묶어', '소양강 처녀'를 연주해주었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함께 부르는 모습이 마을잔치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시간.

재미누리협동조합 송기문 이사장과 함께 환경골든벨 퀴즈도 풀어보고, 환경 실천사례도 나누어 봅니다. 각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선언문도 작성해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걷고 매일 만보 걷기, 분리수거 잘하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등등 다양한 실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음쓰 담은 화초>팀 정숙희샘의 '그 여자의 마스크라', 양천구가 낳은 기타 신동 송시현군의 기타 연주와 노래까지 함께 즐겨보았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나눔'을 주제로 한 천연수세미 만들기 및 전달식입니다.

<정(情)이든 푸른마을>팀의 박정연샘과 함께 천연 수세미를 만드는데요. 1개는 나를 위해, 5개는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합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바느질을 하고 수세미 걸이를 달아줍니다. 다 만든 수세미는 커다란 대바구니에 담아주는데요. 하나씩 완성된 천연 수세미가 어느새 바구니를 수북이 채웠습니다. 이어지는 수세미 전달식. 함께 만든 천연 수세미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여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연샘이 선사하는 '최고의 인생', 'Beautiful Sunday' 독창 무대와 여성밴드 <칼라>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흥겨운 춤과 합창으로 모두가 함께 합니다.



센터장님의 인사말과 기념촬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결', '환경', '나눔'을 주제로 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은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도 환경을 함께 고민하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양천구 마을공동체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내년에는 많은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해피투게더> -성장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야기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신정1동 공동체공간 바바(바느질하는 바리스타)에서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해피투게더> -성장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1년 동안 함께 활동한 마을사업지기들이 모두 모여 서로 반갑게 얼굴을 마주하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한된 장소와 공간이 아니기에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싶어 더욱 기대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따라 공동체공간 바바는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전날 저녁부터 촬영 스튜디오로 변신을 했습니다. 각종 방송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테이

블을 아기자기한 소품과 조명으로 세팅하였습니다. 자타공인 마을의 금손인 박진영샘의 샘솟는 아이디어와 수작업을 통해 고급스러운 초록색 배경 천에 알록달록 반짝이는 글자로 붙여진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해피투게더'라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마치 크리스마스 파티장에 초대된 듯합니다.

온라인 성과공유회를 위해 11월 28일(토), 29일(일), 12월 1일(화)에 미리 찾아가는 시상식과 사전촬영을 거쳤습니다. 한 해 동안의 성과공유와 찾아가는 시상식뿐만 아니라 축하영상, 축하공연, 마을사업지기샘들이 함께 부른 노래와 퍼포먼스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인 날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성과공유회가 많은 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인 만큼,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의미 있고 즐거운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전 9시가 되니 성과공유회를 함께 만들어갈 샘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시간 방송에는 확인할 사항이나 변수가 많기에 더욱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전 리허설을 마치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자리를 잡고 성과공유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의 사회자는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한마음 놀이마당>팀의 최혜임샘입니다. 마을사업지기 본연의 활동부터 마을살롱지기 바리스타 초이, 마을이장까지 다양한 부캐(부캐릭터)로 마을 곳곳에서 한 해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최혜임샘이 마을 산타로 찾아오셨네요.

두구두구두구~
기대하며 기다리던 시간! 드디어 오전 11시, 레드 고!!
보다 즐겁게 소통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한껏 느끼기 위해 최다댓글상, 감동댓글상, 웃음댓글상과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참여한 분들께는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드릴 예정이라며 혜임샘이 안내를 합니다.

먼저 센터장님의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퓨어 박'이라는 애칭처럼 양천구 마을공동체에 순수한 열정을 품고 있는 박진갑 센터장님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온라인상으로도 마 함께 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도 열정과 품을 내어 활동해주신 마을사업지기샘들께 감사의 마음을 꼭꼭 담아 전해드립니다.

인사말에 이어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축하영상입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사)양천마을 정미옥 이사장, 최순옥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

원 전민주 센터장과 직원분들, 구로구마을자치센터 조선미 센터장과 직원분들, 강서구마을자치센터 양희경 센터장,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춘희 센터장과 직원분들, 운수진 논골마을센터장께서 축하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더욱 빛났던 양천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말씀과 함께 성과공유회를 마음 모아 축하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축하공연으로 마을의 꿈나무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차임벨 연주가 있었습니다. 캐럴 메들리에 맞춰 은은하게 울리는 차임벨 소리가 바바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의 호응과 감동의 댓글이 쏟아집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날개를 활짝펴고 세상을 자유롭게>팀의 황계진샘과 이웃만들기 <소소한 일상 나누기>팀의 김정미샘도 함께합니다. 올해 있었던 센터 활동영상과 주민모임 활동영상을 차례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에도 유독 빛났던 다양한 활동들을 새록새록 떠올려봅니다. 혜임샘이 놓치지 않고,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니 더욱 즐겁습니다.

다음은 숫자송을 개사하여 만든 '마을공동체가 좋아송!'입니다.





가사 한 번 보실래요?

마을공동체가 좋아! 마을공동체 좋아!
일 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보고픈데

삼 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이야이야이야~
사랑해 마을 사랑해 오하공 너무 좋아!
육십 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마을에 주민모임 하나두울~ 생겨 행복해~

좋아져 우리마을 멋진 모습 매일매일 기대해~
팔방미인 모두 모여 구석구석 빛내리~
십 년이 가도 마을공동체~
양천구 마을공동체 최~~고~~

찾아가는 시상식 3일 동안 주민모임들이 불렀던 노래가 영상 편집을 통해 한 곡의 멋진 노래로 완성되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양천 마을을 더욱 멋지게 구석구석 빛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성과공유회의 꽃인 시상식 차례입니다. 주민모임의 활동과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서인데요. 무럭무럭 자랐구나상, 마을과 통하였구나상, 함께라서 행복했어요상, 정산의 여왕상, 코로나를 이겨내는 마을백신상, 최고의 마을응원상, 몽클 스토리상, 그대가 마을지킴이상 등 총 8개 부문, 52개 주민모임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전에 거점별로 찾아가는 시상식을 통해 상패와 간식 꾸러미를 전달 했는데요. 2개 부문씩 영상을 통해 시상 모습을 보고, 상을 받은 주민모임의 10글자 활동 소감도 함께 합니다. 한 해 활동을 10글자로 줄여서 말하라니, 길고 긴 소감을 어찌 10글자로 말하느냐며 고민고민하시던 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같이 공감되고 재치 넘치는 10글자 소감들입니다.

- ◆ 양천구 마을공동체 최고!
- ◆ 마을친구 생겨서 행복해!
- ◆ 코로나 이기는 우리 이웃
- ◆ 마을에 꽃에 피었습니다.
- ◆ 마을공동체는 힘이 있다 압!
- ◆ 마을공동체 좋아합니다!
- ◆ 함께라서 코로나 이겨냈어요

- ◆ 수고했어 나! 너! 우리모두!
- ◆ 마을에 관심, 애정 생겨요~
- ◆ 나눔, 기쁨, 행복했습니다.
- ◆ 행복한 우리들이 만났다!
- ◆ 마공만남 유쾌! 상쾌! 통쾌!
- ◆ 이웃과 함께해서 달콤해
- ◆ 마을공동체 최고야! 최고!
- ◆ 함께하면 즐거움이 커요
- ◆ 주민이 주인되는 행복함
- ◆ 진짜 이웃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올해 마을응원 캠페인과 마을주간,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단합하게 했던 제자리마을운동회의 시그니처송 '최고최고' 퍼포먼스 영상을 봤습니다. 촬영 당시,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시더니 금새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함께 해주신 샘들이 역시 최고야~최고!! 그 열정 덕분에 컨셉 영상 촬영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응원의 기운을 마구 뿜어내는 최고의 영상으로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어느새 한 시간 반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실시간 댓글창에는 여전히 뜨거운 호응과 고마움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중간 중간 환경퀴즈, 영상퀴즈, 영상을 보며 내는 즉석 퀴즈를 맞춰 가며 열띤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한번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성과공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재미누리협동조합 송기문샘과 함께 '찐이야' 노래에 맞춰 신나게 컵타 연주를 했습니다. 사회를 맡아 준 최혜임샘, 진행을 함께 해준 황계진, 김정미샘과 센터 식구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컵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를 크게 외치며 성과공유회를 마쳤습니다.

끝난 줄 알았다고요? 센터도 몰랐던 비공개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마무리로 '최고최고' 퍼포먼스 영상을 촬영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순간을 담은 B컷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유쾌한 웃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생생했던 현장의 분위기를 다시 되새겨보며 채팅창에서도 끝까지 함께 소통해주셨습니다.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해피투게더>를 통해 2020년 한층 더 성장한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양천구 마을공동체

서울마을상 수상



9월 7일(월) 저녁 8시에 공동체공간 목4동 애플당당스튜디오에서 <서울마을상> 시상식 촬영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의 주인공이 누구냐구요?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목4동 지점장이자 공동체공간 애플당당스튜디오의 공간지기이자 깜찍한 허당이현진샘인데요. 마을공동체 분야의 노벨상이자 올해 단 6명에게만 영광의 자리를 허락한 <서울마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현진샘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양천구 마을공동체 들날날 <거기서 만나용>팀의 대표제안자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서울마을주간 기념식이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어 이날 애플당당스튜디오 현장에서 시상식 사전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곳곳에서 열일하고 있는 마을사업지기들과 양천구청 주민협치과 마을공동체팀에서 함께 축하해주었습니다.



행복동지 이야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



신월2동 한아름어린이공원을 주무대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생생마을터 사업의 주인공 <우리동네 빛내라~>팀이 SH 공사와 한겨레신문이 주관하는 '행복동지 이야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천구 1호 기적의 놀이터를 꿈꾸며 엄마들과 아이들이 정말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모두가 피해 다니던 버려진 놀이터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청

소와 꾸미기 등의 활동으로 동네 정자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아름어린이공원의 사례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아리랑 TV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취재하던 날, "왜 버려진 놀이터에서 쓰레기를 줍고 화분을 심느냐?"는 피디의 질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라고 대답하던 초등학생의 당당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을의 의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동네 빛내라~>팀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마을노티나무들의 뭉클 릴레이



마을사업지기



'구단위 이웃만들기'로 처음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접했습니다. 결혼이민자로서 목동 지역에 25년 이상 거주하면서도 친하게 지내는 이웃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서 많은 사람과 새로 만나게 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의지하게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고비를 하나 하나 넘으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참석자들이 다음에도 만나자고 말할 때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면 살기 좋은 동네, 지역을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센터분들과 모든 제안자분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적 전염병을 만나게 된 2020년은 사람을 만날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뒤편 하는 난감한 한 해였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하는 상황에서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자 모임과 서류 작성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사람이 하는 일하기에 이웃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 두기'의 시대를 '함께'로 풀어나가 해준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사업지기님들과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님들, 마을지원활동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반찬 배달 갔다가 이웃집에서 밥 얻어먹고 다니던 어린 시절과 다르게 옆집에 어떤 가족이 사는지 모르기도 하고 이웃 그 리고 마을이라는 단어가 귀해진 요즘인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 그 귀한 단어가 매일매일 들려 그리운 감정을 채워주었습니다. 서로의 활동을 으싸으싸 응원해주는 활동팀들, 내 일처럼 도와 해결해주는 마지할 선생님, 마을 활동에 참여해준 이웃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나오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모두의 콜라보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며 나보다는 우리를 배우고 행복하게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처음 두려움과 설레는 마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걱정을 했지만 소중한 이웃들과 소소하게 모임을 가지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값진 마을공동체 활동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 큰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이웃만들기 도지나(도란도란 지지고 나누자) 활동을 시작으로 이어서 올해는 우리마을지원사업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쁜 한 해였습니다. 신정3동 <정(情)이든 푸른마을(도지나)>은 텃밭 활동을 통해서 이웃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힐링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알찬 모임이 되었고, 특히 새로운 가족들과의 만남도 참 즐거웠습니다. 수확한 작물, 피클과 친환경 수세미는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수가 많았지만 도지나 가족들의 품을 잘 모아 활동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참 기쁩니다.



민병순

올해 제 가정에 큰 상처가 있어서 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있다고 해서, 처음 들어보고,해보지 못한 활동이라서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고, 이웃들에게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마을활동인가 고민도 많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과 즐거운 추억들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박건영

나연이가 준 마을 셋째 아이의 진로를 위해 마을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시작한 <아빠들의 커피 수다>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는데, 많은 사람과의 정을 쌓고 이야기 나누고 이해하고, 마을이란 이름 아래 만난 사람들은 정말 정겹고 따뜻한 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유독 개인적인 큰 일이 많았습니다. 막내의 갑작스러운 수술 진행으로 마음이 많이 뒤숭숭하고 겁나고 그랬는데 힘내라 응원도 해주시며, 연이온 큰 딸 수능까지 토닥토닥 이런 거구나! 사람이 어울리는 이유는 그냥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만 따스하게 안아주시니 너무 포근했습니다. 나만 잘 지내면 괜찮은거지, 난 혼자도 괜찮아... 뭐 다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옆에서 웃어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더 나다워지고 뭐든 더 열심히 해보자는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셋째 딸은 제게 뭐가 필요인지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만난 2020년!! 고맙습니다~~ 우리 딸 그리고 소중한 인연...



박보경

<평화 마을터> 활동을 진행하면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많았는데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활동하며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굶은 일도 함께하며 정을 쌓는 우리를 보며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맑게 웃는 꽃 같은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내년에도 평화롭고 즐거운 마을 모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박선화

2020년 그래도 마냥 힘들고 싫지는 않다. 여느 해보다 코로나19로 답답함이 컸던 올해, 코끝의 시원함, 가슴의 뚫림을 주었던 순간 순간, 돌아켜보니 그때마다 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안에 함께있었다. 사람속에 산다고 하면서 사람 속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하는 생각이 머무를 때마다 오후공, 힘내라양천, 위캔두, 마을 바캉스등의 행사들로 양천구 마을공동체는 머물러 있지 않고 나에게 끊임없이 관계의 지속성,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게 자극을 주었다. 나는 올해 마을공동체속에 들어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지런히, 마스크를 쓴 채로도 더 많은 이들을 만났고 알게되었다. 덕분에 감사했던 올해, 그러해서 내년이 더 기대되는 순간, 이렇게 지난 일년을 되돌아보니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땀 뚫리듯 시원했던 나의 가슴 속엔 이제 가득 온기가 남았다.



박인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개성 있는 많은 분과 함께 신나는 업다운 해누리타운에서의 달밤 체조, 아-아~ 이장입니다, 마을공동체 한마당 등 활동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몇 년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데도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분을 만났고 소중한 추억을 쌓아 힐링 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장님, 팀장님, 김지은 활동가님, 최영경 활동가님의 따뜻한 팀워크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연

살면서 마을사람들과 오롯이 마을을 위해 만나고 이야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올 한 해 곳곳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인연이 아니면 어찌 수많은 날,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겠나 싶다. 정 나눌 기회가 줄어들어 드는 도심에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모여 각각이 아닌, 조금 더 진보한 마을이라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초단체 '마을공동체'라서 가능했을 것이다. 가상같은 설정을 뜻을 같이한 마을사람들이 모여 하나하나 이뤄가는 실현성 높은 활동이 아닐까. 이웃간의 꺼지지 않을 불씨가 되길 염원하는 것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결과물일 것이다.



보이즈팀

마을에서 살고 있으나 학교, 학원, 집을 오고 갈 뿐이고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는것이 즐거움인 우리들... 우연찮게 친구들과 시시콜콜 마을탐험대 '더보이즈'라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서 예전에는 눈여겨 보지 않던 쏘잉공방을 찾아내었고, 또 처음으로 재봉틀을 배우고 내 손으로 직접 가방도 만들어보면서 온라인 게임보다 더 재미난 세상을 알게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 범블비쏘잉스튜디오 선생님~ 재미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가혜

2019년도까지만 해도 생소하고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분야라 생각했습니다. 이웃만들기 사업과 마을공동체 행복밥상 꾸러미 뉴(New) 딜(Delivery) 공모사업 등에 참여해 본 2020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마을공동체는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준 저의 힐링 아이템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었고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이웃과 힐링하며 즐겁게 시간을 나누고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뜻깊은 자기 발전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으니까요. 덕분에 앞으로도 마을공동체와 꾸준히 인연을 맺고 싶고,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 12월입니다. 비록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남은 12월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더 밝은 날들이 오길 기원해봅니다!!



유재경

프리랜서 운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위 캔두!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웃만들기 모임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풍요롭고 선물 같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옥미라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2020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며 만나야 했지만 모두 달콤애(愛) 활동으로 좋은 이웃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에게 달콤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쓰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선생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불안과 걱정을 안고 시작했던 2020년이었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새로운 변화와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 활동했던 대표제안자와 참여자들 그리고 우리의 달콤한 이웃들 모두 감사합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파이팅!!^~^

이은희

우리 집에서 아랫층으로 누수가 되어 난감했습니다. 주스를 사들고 찾아가 사과를 했지요. 아랫 집 이웃분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이웃끼리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함께 그림을 배우고 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매월 둘레길 걷기를 시작했고, 마을공동체가 끝나고 우린 계속 걷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애경사도 챙기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겠습니다. 삭막한 아파트 문화를 깨고 지금은 독서 토론을 하고 다양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현진

올해는 우리에게 어떤 해였을까요?
복적복적 연말분위기를 어디서도 못 느낄만큼 2020년은 코로나가 늘... 함께했던 한 해였어요. 일상처럼 만나던 사람들은 약속잡기도 서로 조심스럽고 행사나 모임들은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평범하고 당연했던 마을에서의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생각해보게 되고 되짚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거침없이 해보았던 용기가 가장 좋았구요~그 용기를 늘 응원하고 함께해주신 양천구 많은 식구들 넘나 멋지고 사랑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더 즐겁게 살아가 보자구요!!!

정해란

늘 생각만 해왔던 일을 마을공동체를 만나 발을 내딛는 기회가 되었던 게 저에게는 가장 좋았습니다. 생생마을터 사업이 없었다면 지금도 아마 생각만 하며 제자리였겠지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은 모임 구성원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또 센터에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되어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만나 더욱 더 '마을'과 '공동체'를 배우게 되어 좋습니다.

전미이

처음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되고 기뻐던 마음, 코로나19로 두려웠던 마음 모두 마을공동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다 버무려져 두려움도 이겨내고 사업도 올한 해도 마무리하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도 확실히 이겨내고 새로운 사업들로 설레이길 바랍니다.

최강남

2020년 마을공동체를 접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마을 일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간지기 선생님들은 각자 개인 공방을 하면서도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봉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퇴근하고 회의할 때마다, 맛있는 커피와 쿠키, 차와 음료 그리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자리 제공도 해주신 바바 박건영샘 정말 고맙습니다. 파리공원에서 마을공동체 한마당 축제 때, 코로나19로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주민이 모였더라면 좋련만,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마침을 감사하고 추진해주신 박진갑 센터장님과 선생님들께서 너무 수고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마무리하고 매주 만나서 정을 나누다 보니, 모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각자 공간도 돌아보면서 샘들이 더욱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정(情)이든 푸른마을' 의 연의생태공원 힐링텃밭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마법 같은 박정연샘. 인기 좋은 컵타와 체조 가르쳐 준 박인순샘 외에도 안 보면 보고픈 선생님들과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많은 샘을 만나서 많은 재산을 얻은 것 같아 보람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최혜임

올해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다들 어찌할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뒤야하고 만남과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마을공동체와 함께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몸은 거리를 뒀어도 마음은 연결되고 함께하게 해준 다양한 활동과 마을응원 캠페인은, 위로와 희망을 주고 올 한 해를 즐거운 추억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황계진

2020년 코로나19
우리들의 일상이 사라져버렸다. 할 일이 없는 듯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던 때, 팀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 시대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함께 찾아보자. 지금 누구나 다 어렵겠지만 더 어렵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자.....
"어린아이들이 모이는데 제초작업과 방역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78세에 혼자 이사와서 몇년을 살았는데 수리를 못하고 그냥 살아요." "이 둘레길에 쓰레기를 줍는 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돌아보니 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감사해 하는 이들을 만나니 우리가 행복하다.

마을지원활동가

박동매

안녕하세요.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마을지원활동가 박동매입니다. 한 그루의 튼튼한 나무 마냥 마을을 지키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몸담으며 저 또한 더 풍성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더 풍성해진 마을 나무,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가지만 남지만, 봄이 오면 또 다시 잎이 자라나고, 꽃이 핍니다. 씨앗의 희생 없이 다시 자라나지 못하는 나무처럼 올해도 많은 활동가의 고생이 마을 곳곳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마을나무들이 튼튼하게 자라나는 옥토와 같은 양천구 언제 어디든지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원은실

사람을 모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은 모으는 사람인가요? 사람이 모이는 사람인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마을에서는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알보지 말고, 입장 바꿔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내가 너인 것처럼, 네가 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 소중해요!

양혜원

바람처럼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보려던 나에게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새로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덕분에 마음의 창인 눈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미소를 짓고 있지 아니한가... 성내고 있지 아니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는 한 해하기를 바랍니다.

마을기록지원단



원은실

양천구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 이야기가 궁금해서 시작했고 주민모임 활동, 마을행사 활동을 취재하면서 열정적인 분들이 많음에 감동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서 긍정의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취재를 나갈수록 마실 거뒀던 즐거움도 하고 때로는 '어떤 활동일까?'하는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활동했습니다. 마을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연결되는 조금 더 커지는 따뜻한 마을이 양천구에 있습니다.



이호증

마을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각자 사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더군요. 마을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을은 연결-관계-움직임이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함께 할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남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기록합니다. 한뼘 더 넓어질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서.



임재현

6월부터 시작한 마을기록지원단 활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 현장을 찾아다니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고 취재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였는데 의미 있는 활동을 전달하면서 자신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협치과 마을공동체팀



안현희 (팀장)

개인의 삶과 행복은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웠던 2020년, 마을공동체의 선한 열정과 노력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전하는 해였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올 한 해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52개의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최은정 (계장)

이웃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이웃이고 마을이라는 생각은 늘 우리들의 의식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무의식을 일깨워 따뜻한 어울림을 만드는 일이 새삼 낯설기도 했지만 조금씩 어우러짐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공동체의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마을공동체 파이팅!!!



함옥주 (주무관)

걱정과 우려가 희망과 용기로 바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모임'에 기반을 둔 공동체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활동들을 보며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한 데 모아 나누고, 온라인 모임을 시도하기도 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속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최고!!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박진갑 (센터장)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마을공동체는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모두의 힘을 모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양천 곳곳이 따스한 온기와 행복바이러스로 가득 차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입니다. 사랑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로컬의 시대! 마을이 미래입니다. 마을에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서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가는 길에 지지 말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숙 (팀장)

2020년, 정말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도전으로 시작한 1월부터 우리는 안개로 가리워진 길 위에서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12월, 우리가 걸은 길을 뒤 돌아 봅니다. 우리가 걸어 온 발자국들이 이어져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길은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는 나눔과 배려의 길이며 '함께'라는 가치가 녹아 있는 연대의 길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희망의 길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공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걸어온 마을사업지기생들과 활동가생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마을현장에서 함께했음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김지은

2020년은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토록 그리운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나 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도 그러합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이웃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 참 ~~~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최영경

제게 2020년은 여러모로 도전의 해였습니다. 마을사업지기에서 센터의 지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고,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의 소중함과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가치를 새삼 깊게 깨닫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연대의 힘을 빛낸 양천구 마을공동체~!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을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며,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양천구청 주민협치과,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 화 02-2643-1557
디자인 글자와기록사이
제 작 제이케이프린팅

홈페이지

www.yangcheonmaeul.org